

코로나19, 예술지원의 성찰과 방향성

담당부서 : 코로나19대응TF

Tel : 061)900-2140 | 집필자 : (위원) 정유란, 유은선, 이원재
(사무처) 정창호, 권용민, 나혜영, 조강주,
한하경, 강보경

- I. 서론
- II.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현장의 위기양상
- III.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진단 및 시사점
- IV. 코로나19 피해 실태 및 인식조사
- V.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지원 방향과 사업개선방안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대응TF
보고서

코로나19, 예술지원의 성찰과 방향성

2021. 04

머 리 말

지난 한 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관객의 참여와 대면 소통이 제한되며 예술분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은 프리랜서 및 계약직이 다수를 이루는 예술 생태계의 취약성과 한계점이 드러나고, 그동안 예술분야에서 묵과해온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계기를 만들어준과 동시에, 예술분야 전반에 대한 재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사회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예술계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인식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례 없는 위기와 변화에 직면한 국내 예술계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이를 개선·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대응 TF’를 구성하였습니다. TF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예술현장의 피해실태 및 위기양상을 진단하고, 국내외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지원사업을 고찰함으로써 다양한 위기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 속 예술가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심리적 인식현황,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 미적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예술의 본연적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고 ‘발코니 음악회’는 격리된 개인 간의 연대와 위로를 가져다주는 대표 사례로 회자되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 회복력을 선사하는 예술의 사회적, 도구적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며, 인류를 위한 예술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긴급 지원책과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대응 TF’에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로서, 본 연구보고서 이후에도 위드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 an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개선 및 발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술가 및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선사하는 창조적인 기쁨과 활력을 맞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뉴노멀이 일상화된 위드코로나 시대에 국민과 예술현장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대응 TF 일동

목차

I. 서론	1
1. 연구 개요	1
가. 연구배경	1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대응TF 구성	1
다. 연구범위 및 방법	3
II.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현장의 위기양상	4
1. 코로나19와 예술계 대응 경과	4
가. 코로나19 시대,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주요 제언	4
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피해실태조사 현황	8
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8
나. 예술경영지원센터	8
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학 분야)	11
3. 코로나이후 시대와 예술계의 변화 양상	12
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12
나. 포스트 코로나 사회 변화	16
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 환경 변화	19
4. 시사점	21
III.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진단 및 시사점	23
1.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정책 경향	23
가. 1차 추경	23
나. 2차 추경	24
다. 3차 추경	25
라. 4차 추경	27
2.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29
가.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지원기관 대응 경과	29
나. 유형별 지원사업 현황	30

3. 해외 사례	41
가. 정책 대응 현황 및 분석	41
4. 시사점	45

IV. 코로나19 피해 실태 및 인식조사48

1. 개요	48
가. 조사배경	48
나. 조사설계	48
2. 조사결과	51
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실태	51
나. 코로나19 종식과 향후 문화예술활동	59
다. 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요구	71
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76
가. 조사결과 요약	76
나. 시사점 도출	78

V.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지원 방향과 사업개선방안81

1. 코로나19와 예술의 가치	81
가. 예술의 가치에 대한 담론 전개	81
나. 재난시대 예술의 가치 확산 노력	85
다. 시사점	87
2. 코로나 이후 시대 예술지원 방향 설정	88
3. 코로나 대응 지원사업 개선방안	88

I. 서론

1. 연구 개요

가. 연구배경

- 2019년 연말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고하게 다져져 있던 글로벌 가치사슬과 국제 협력 구조는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세계는 끝을 알 수 없는 역성장과 장기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
- 하루빨리 코로나19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진화하는 변종 바이러스들을 완전히 퇴치할 수 없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 이제 원하건 원하지 않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임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19대응TF 구성

-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출범한 7기 위원회는 지난 6기 위원회에서 운영되어온 소위원회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설 소위원회와 워킹그룹형 TF 운영 원칙을 수립한 바 있음
- 코로나19대응TF는 문화예술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유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의 구축, 코로나19 이후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의 수립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킹그룹형TF로 구성되었음

1) 코로나19대응TF 운영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예술 생태계 침체 극복 방안 모색 필요
-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방역조치는 문화예술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사각지대를 더 실감나게 하였음
- 상당수 예술가들은 코로나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작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됨
 - 단계별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과 공간의 제한은 불특정 다수인 밀집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연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예술가들은 대안 없이 버티기 상태에 들어감
 - 상당수의 예술가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경제적 수단으로서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됨
-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현장 기반의 정책 제안 필요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로 안전하고 결핍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모두가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재난상황에 더욱 취약계층으로 나타나게 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타당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대응TF 활동 목적

- 코로나19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정부 대응과 사업진단을 통한 문제의식 공론화 및 개선방향 도출
- 재난사회 예술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필요한 예술정책 대응체계 및 매뉴얼 제언
- 문화예술계를 넘어 대국민 메시지로써 재난사회에서의 예술의 가치 인식과 필요한 정책제안으로의 확대

3) 코로나19대응TF 구성 및 운영

■ 정책혁신 소위원회 내 코로나19 대응 TF 운영

- 위원(3명) : 정유란(팀장), 이원재, 유은선
- 사무처(6명) :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강보경 대리, 정책연구 담당자 4인(권용민, 나혜영, 조강주, 한하경)

■ 운영방법

- 단기간 내에 효율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하여 내부위원과 사무처간의 워킹 그룹형 TF로 운영
- (필요시)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 워크숍, 간담회 수시 운영, 외부 전문가 1~2명 TF 총원 가능

[표 1-1] 코로나19대응TF 운영 경과

일자	회차	주요논의사항	외부전문가
'20.8.1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 19대응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발제 및 논의 ○ 예술지원분야 코로나19 대응 해외사례 시사점 분석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식조사 계획(안) 논의 ○ 예술정책 대응체계 및 매뉴얼 가이드 수립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조형준(안산문화재단 시민축제실장), 김동균(공연장안전지원센터장)
'20.8.2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식조사 설문설계안 검토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전시분야 가이드 국내외 현황 공유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방역관리 체크리스트 공유 및 전파방안 논의 ○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및 소통구조 마련을 위한 기관장 연석회의 추진방안 논의 	정영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극장운영부장)
'20.9.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TF 보고서 목차 검토 및 추진계획 논의 ○ 타기관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및 긴급재난지원사업 사례조사 방안 논의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 문제 논의 ○ 코로나19 대응 해외사례 조사방안 공유 ○ 코로나19 인식조사 설계안 공유 	-
'20.9.2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예술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코로나19대응 인식조사 설문문항 검토 ○ 예술포럼 준비사항 논의 	김상철(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양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20.10.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술포럼 세션 최종구성안 공유 ○ 코로나19 인식조사 방법 논의 ○ 코로나19 대응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공유 ○ 국내 코로나19 지원정책 유사사례 조사 및 공유 	-
'20.10.28		코로나19 예술포럼 개최 <전환기, 예술지원의 위기진단과 해법모색>	-
'20.12.17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개최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년, 예술을 말하다>	-
'20.12.21		온라인 토론회 개최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계 공정보상 토론회 - 공연예술분야 취소사례를 중심으로 >	-

다.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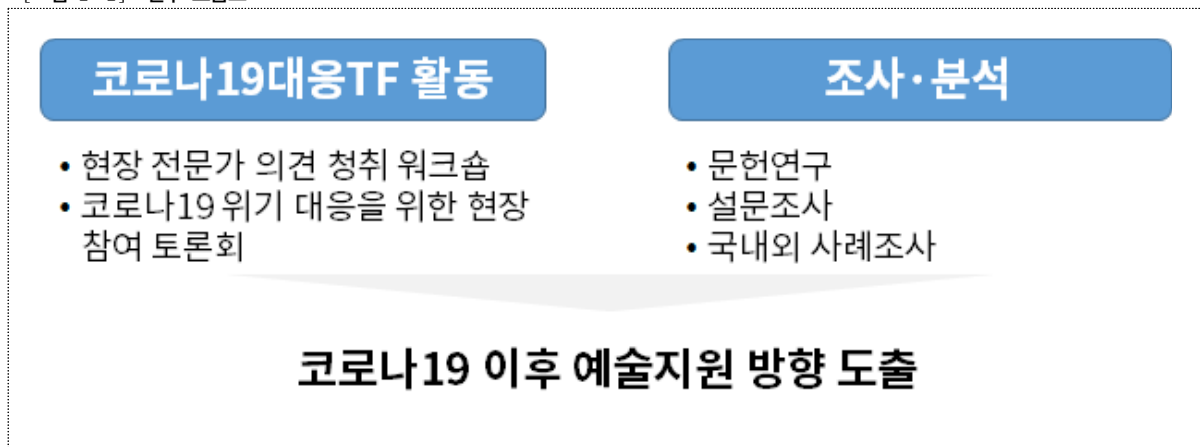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국내(코로나19 관련 주요 기관, 예술인 및 예술단체), 국외(코로나19 관련 주요 기관)
- 시간적 범위 :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12월,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기
- 내용적 범위
 - 코로나19 피해 실태 및 양상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술계 자구노력, 주요 정책기관 대응 양상(국내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2) 연구방법

- 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 :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운영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 문헌조사 :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보고서, 전문서적 고찰
- 설문조사 : 예술인 및 관람객 대상 코로나19 피해 양상, 대응, 미래 준비 등에 대한 인식
- 사례조사 : 국내외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지원 사업, 주요 활동 조사

[그림 1-1] 연구 흐름도



II.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현장의 위기양상

1. 코로나19와 예술계 대응 경과

가. 코로나19 시대,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주요 제언

1)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계(단체)의 주요 사례

■ 본 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정부 대응에 대한 니즈를 도출함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환경의 주요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사례는 ARKO에서 진행한 주요 토론회(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정부 대응에 대한 니즈는 우리나라의 예술인(단체) 대표 연합체의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 도출함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예술계(단체)의 주요 사례

코로나19와 함께한 2020년, 예술을 말하다
(ARKO 코로나19 대응 TF, '20.12)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계 공정보상 토론회
(ARKO 코로나19 대응 TF, '20.12)

구분	주요내용
코로나19 예술 현장 토론회	예술계의 대응 현황
	<p>□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술현장에서 나타난 변화와 어려움</p> <p>서울) 공연단체 M사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현황: 대학로 공연 20년1월말 개막~3월까지 공연 중, 2주간 중단. 약 6천만원 손실 → 4-6월 논의중이거나 계약했던 공연들 연기. 8월 공연을 2주간 진행하고, 막공 앞두고 취소. 일부 사업 온라인 전환, 12월 예정된 공연 3건→50% 보상, 21년으로 연기, 온라인 전환 - 지원사업: 대관료지원사업, 복지재단 융자 및 창작준비금, 개인후원을 받음 -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공연시장 리스크(관객감소, 공연장 거리두기, 팀 내 코로나 발생 등), 대안활동에 대한 리스크(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역량 및 성공 가능성 등) <p>서울) 아동청소년 공연단체 H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개막 예정작을 5월에 오픈. 이태원발 확산으로 판매량 지속 하락 → 공연횟수 탄력적 운영(확산세 지속 시 횟수 감소, 확산세 감소 시 횟수 확대) → 8월 광복절 확산세로 공연 중단 → 10월 재오픈 → 크리스마스와 겨울방학 성수기를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공연 중단 - 관객들의 티켓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공연 횟수와 일수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수익에 영향 - 특히 아동 공연의 경우, 안심할 수 있는 공연장 환경(가족간 거리두기)과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 <p>지역) 소극장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현황: 지역의 경우 소극장 운영과 공연제작운영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음. 19년의 경우 2개 극장에서 14편~16편 정도 작품 상영, 관객은 4만명 정도 → 20년 3편, 관객 3,000명 정도 → 21년 라인업은 못 잡고 있는 상황 - 코로나 버티기: 후원회원의 후원금, 상설공연(소속 배우들이 있었기에 상설공연 가능→긴급 보조사업 및 용역사업이 들어왔을 때 일정을 맞출 수 있었음), 전문인력(극장 및 작품 홍보 기능), 소극장 간 연대(공동제작, 마케팅 공유 등) <p>전통예술 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기획한 작품이 12개 정도 → 2개 대면, 2개 취소, 8개 영상콘텐츠로 제작. 축제들이 취소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 - 전통예술 전용 극장들의 셧다운에 따라 전면 취소 공연들이 많았고, 하반기부터는 영상 대체. 장비와 예산이 있는 극장들의 경우 영상 퀄리티가 높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영상 퀄리티 낮음 <p>장애인 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예술의 소비(향유)에서도 늘 벽이 높았지만, 특히 장애 창작자에게는 장애인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습장, 공연장은 거의 없음 -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예술 창작향유의 제약은 그야말로 일상이 재난인 상황임

공정 보상 토론회	제안 사항	<p>□ 코로나 19이후 신규 콘텐츠 개발(온라인 콘텐츠 개발)</p> <p>적응과 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를 위한 영상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가장 높았음 - 논의 결과, 공연의 영상화가 아닌 멀티유즈 컨셉으로 공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상품을 제작. ‘휴뮤지컬’은 비디오와 연계된 놀이키트를 결합함으로써 집 또는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 활용 가능 - 전통예술계는 특히 영상 콘텐츠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부분으로, 사전기획 및 연출이 매우 중요. 코로나 19로 영상물 제작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새로운 공연 영상을 어떻게 제작할 것이고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p>우려와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의 한 요소가 관객인 만큼 대면공연이 중요한 공연예술의 특징. 예술가 스스로 만족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 과연 어떻게 온라인 공연을 지속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 - 온라인 공연시장이 형성되고 있는가, 투자를 할 만한 시장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공연 영상화를 위한 기반(장비, 기획연출 인력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퀄리티 낮은 영상물이 제작·유통 되는 것에 대한 우려: 관객의 실망, 대면 공연 관객 감소 <p>기타 대안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오디오 콘텐츠 제작을 실행 중 - 작품의 온라인 콘텐츠화 뿐 아니라 이를 연계한 (어린이) 활동 키트 등을 만들어 확대하고자 함
		<p>□ 코로나 19대응을 위한 제안사항</p> <p>코로나19 대응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시기, 예술활동 지속) 재난상황에서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대안활동 모색, 예술(인)-시민의 접점 확대 필요(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지원-국민의 예술향유 지속이 연계되는 지원 확대) - (공공극장 운영) 2.5단계 이후 공공극장들의 행보가 갈팡질팡함.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의 공연장 운영 매뉴얼에 따라 예측가능한 상황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취소연기 보상) 대관기획 등 계약서 체결을 공연 시작 전에 하는 관행 지속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소연기가 여전히 천재지변으로 여겨짐. 계약서 체결 의무화 및 계약서 조항 조정 필요 <p>온라인 콘텐츠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예술활동 방향) 재난시기 문화예술 활동 지속을 위한 대안, 새로운 문화예술 유형 및 모델로서의 방향. 온라인 예술활동 방향과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방향과 기반형성 모색 필요 - (제작 지원) 공연물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데에는 새로운 기획연출과 장비가 필요. 공공부문의 지원 사업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시,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 - (온라인 공연 초청료 및 저작권) 초청 공연으로 온라인으로 전환 시, 3회 예정이었던 것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1회만 지급하는 등의 상황 발생. 또한 저작권에 대한 기준 설정 필요
	민간 단체 공연 행사 취소 사례	<p>□ 공연(행사) 주최 측에서 사업 취소를 결정한 경우</p> <p>축제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봄, 여름, 가을 축제가 모두 취소되었고, 축제 선정단체는 보통 공연 전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례상 미리 체결한 계약서는 없었음 - 축제 공연까지 현장답사와 협의 과정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축제 취소 시 예술가들을 위한 대책계획은 없었음 <p>콘텐츠 제작 및 공연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역사 콘텐츠 제작 및 공연 의뢰로 제작에 들어갔으나, 발표 1개월 앞두고 취소됨 - 역사연구, 시나리오, 무대 제작, 음향 등이 진행된 상황이었으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함 - (반면) 유사 경우였으나, 공연 셋업 전 취소 시 계약서상 50%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실제 취소되었을 때, 녹화와 내부시연 형태로 계약금 100%를 지급한 사례도 있음 <p>공연 취소 시, 시스템 팀에 대한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팀은 행사 기획 혹은 대행사에서 하도급을 받거나 지자체 등이 직발주를 하면 이를 수주하고 계약하여 행사를 진행. 행사 취소 시, 제작비나 준비비 등에 대한 보손이 없음. - 지난 7월 사단법인 한국이벤트협회에서 매출감소 조사 시, 7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p>□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공연장 폐쇄 : 대관공연 취소 경우</p> <p>자체 제작 공연의 온라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50석 객석을 20석으로 줄여 예매를 받았으나, 셋업 3일 전 거리두기 격상으로 대면 공연 불가능 통보를 받음 - 대안으로 온라인 공개를 결정하였으나, 온라인 공개 방식은 전혀 다른 접근과 방식, 영상 제작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기에 시간적·재정적 준비에 역부족 - 특히 티켓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상 제작에 대한 추가예산 책정은 어려운 상황임 <p>대관 공연의 취소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운영 공연장에서 셋업 2일 전 공연이 취소되었고, 대관료 환불만 진행됨 - 공연 준비과정 중 배우 연습, 연습실 대관료, 셋업에 대한 비용은 보상받을 길이 없음 - 발레의 경우, 12월 ‘호두까기 인형’ 공연으로 1년 재정을 충당하는데, 모든 공연이 취소됨 - 올해 공연도 70~80% 취소연기 된 상황이었기에, 무용수들의 월급, 연습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공연을 준비하다 전날 취소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상실감이 큰 상황임
		<p>□ 공공기관 기획공연이 취소된 경우</p> <p>방방곡곡 문화공감 순회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팀 내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확진자와 식사)가 발생함에 따라 2일 전 공연이 취소됨 - 공연 취소에 대한 공연장 실무자와 경영진의 보상 의견이 달랐지만, 보상이 결정됨
	공공 부문 (공공극장 축제 조직) 대응 사례	<p>□ 공공극장기관 대응 사례</p> <p>의정부음악극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이 축제기간이었으나, 7월→8월로 연기. 해외작품을 취소하고 전체 국내 작품으로 기획 - 첫 번째 연기를 하면서 공연 초청료의 70% 선지급 - 실내공연 일부는 비대면으로, 좋은 영상을 찍어서 제공하고자 하였음 - 광장에서 진행된 거리극에도 거리두기를 적용, 실내외 공연 모두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 <p>서울거리예술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여 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운영에 참여하는 공간을 섭외, 공연료 사전 지급 및 공연 준비과정에 대한 배상 추진 -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대면 축제 취소를 결정하고 대안을 모색 -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고, 인터뷰나 원고를 요청하면서 예술단체 손해를 최소화
		<p>□ 공공기관극장 대응 사례</p> <p>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방곡곡 순회프로그램 관련 문체부, 문예위, 예술현장과 논의, 운영대책과 피해보상안을 마련 - 1차 대책: 온라인 공연전시 허용, 공연료 선금지급, 실비보상 등 - 2차 대책: 비대면 공연 개최 시 영상장비 임차료 지원, 소외계층 의무초청비율 완화, 사업연장 - 보상방안: 계약체결 전 연습비용 인정, 계약 후 공연 개최 기간에 따라 20~100% 단계별 보상 <p>한국문화예술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매뉴얼 제작배포 -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공연 취소된 경우, 보조금 집행 인정 여부 및 정산 방침 마련 - 국제교류 사업의 경우, 사업변경, 비목 전용, 예산변경 등 인정 범위 확대하여 대책 마련 - 대관취소 관련, 미환불 대관료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 기관 극장 대관료 전액 환불, 기획공연 취소 시에도 공연비 전액 지급 - 공공시설 방역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제안 사항	<p>□ 공연행사 취소 대책 마련</p> <p>법률자문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불가항력’조항에 코로나19 또는 변종 코로나 발생,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표기 -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 시, 취소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명확하게 설정 필요 - 계약서 작성이 관행화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어 제공·배포하는 노력 필요 <p>해외사례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예술인의 보상을 이야기하는 반면, 영미권에서는 극장, 예술인, 프로듀서, 관객의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관객들에게는 제작한 영상을 전달하여 보상 - 영미권은 작품 영상화가 2-30년 전부터 준비되었고, 코로나 기간에도 극장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영상을 정기구독의 형태로 극장 홈페이지에 올려서 볼 수 있게 함 - 영국의 프로듀서 보험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의 소해를 보상해주지 않고 있음(신종 질병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 때문에 정부가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한 로비가 진행 중임 - 과정에 대한 보상에 대해, 영미권은 수십년간 주급으로 배우들의 개런티를 지급함
	□ 취소 공연행사에 대한 보상 방안
	<p>공연행사 취소 시, 준비과정에 대한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준비에 투입된 실손 내역을 현실화 하는 방법, 공연일 기준으로 통상적 손해 보상하는 방법 등이 있음 단, 공연별, 장르별, 성격에 따른 편차가 있으므로 공론화를 통한 합의 필요 <p>공모지원 시, 과정에 대한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하는 과정까지를 예술이라 한다면, 현행 총액 지급 방식이 아닌 정기지급 방식 도입이 필요 <p>대관 취소에 대한 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공연장 사용에 대한 승인, 대관료의 할인 등으로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예술계(대표 단체)의 주요 요구사항

-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예술계의 주요 요구사항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민예총)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 살펴봄
- 두 단체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예술인(단체) 연합체로,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라는 점에서, 이들을 통해 예술계의 주요 목소리와 정부 대응에 대한 니즈를 도출함
- 예술인(단체) 연합체의 주요 입장발표 경과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코로나19 추경에 대한 성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의 추경 편성에서 예술가와 예술활동 대응이 제외됨을 비판 • 예술활동의 사회가치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근본 대책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계와 논의, 사회적 위기환경에서 예술활동 취소에 대한 ‘비상시 예술가와 예술 활동 지원 매뉴얼’ 마련 -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활동 보상을 위해, 감염사태 극복 후 예술활동 지원 충분히 보장 • 예술가와 예술 활동은 국격을 만드는 중요 요소임을 고려,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총 소속 예술단체의 코로나19 피해현황을 조사, 대응방안을 제언 • 20년 1~4월 예술계 피해액 약 600억 추정→생활·운영자금, 손실자금, 인건비 등 긴급 조치 필요(문화예술계 지원에 대한 추경 편성이 절실함을 강조) • 법적기반을 갖춘 종합예술단체 설립 제안 • 예술인이 체감하는 예술정책, 창작환경, 향후 기대 등에 대한 「(가칭)문화예술 환경체감지수(ASI: Arts Survey Index)」 개발·도입하여 정책참여 및 소통기구 체계화 • (가칭)「예술작품은행 설립」을 통해 청년·신인 작가들의 작품 임대사업 활성화

예술분야 추경 환영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추경예산에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예산이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국가재난 시기의 예술활동 지속화 방안’ 마련 제안 • 정부, 국회 등과 함께 예술분야의 안전자금 마련, 방역단계별 예술활동 지속 방안, 그에 따른 자원 마련 및 사용 기준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 정책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것
정부 추경편성 논의에 대한 입장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의 코로나19 피해 규모가 심각함에도 직접적 손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인식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스러우며, 정부 당국자들에게 다음을 촉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예술문화계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청함 - 둘째, 예술문화인들의 손실에 대한 직접적 지원과 생존을 위한 최저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를 요청 -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예술문화인들이 보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예술혼을 꽃피우며 왕성한 창작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야

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 피해실태조사 현황

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¹⁾

1)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한국예총 회원협회(10개) 및 연합회(16개), 지회(140개)

■ 조사내용

- 코로나19 피해 현황 : 행사 취소 건수 및 규모(금액), 소득 변화
- 현장 예술인들의 지속가능창작환경 조성과 권익대변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

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 e-mail 및 FAX 설문

■ 조사기간 : 2020.3.9. ~ 3.12.

3) 주요 조사 결과

- 코로나19로 취소·연기된 예술행사 규모(2020.1~4월 사이)는 전국적으로 2,511건으로 피해 금액은 523억 원 대로 조사
- 예술행사의 취소·연기로 예술인들의 수입(2020.1~4월 사이, 전년 동 기간 비교)은 88.7%가 감소했다고 응답

나. 예술경영지원센터²⁾

1)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공연예술실태조사 모집단 5,077개(공연시설 1,044개, 공연단체 4,033개), 기타(협회 등) 1,278개
-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에 해당하는 6,355개 기관 중 중복기관 873개 제외
- 응답자 한 명이 여러 공연시설·단체를 담당할 경우(149개) 총괄하여 1회만 조사 진행

1)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2020). 「코로나 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 2020.3월 보고서 내용 요약
2) 예술경영지원센터(2020).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 2020.5월 보고서 내용 요약

○ 위 절차를 거친 후 총 5,333개 기관을 조사모집단으로 확정

■ 조사내용

○ 코로나19 피해현황,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코로나19의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전화(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및 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

○ 코로나19 피해 기간 : 2020.2~5월

○ 실사 진행 기간 : 2020.5.14. ~ 5.25.

3) 주요 조사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또는 운영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기관이 82.4%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공연단체 (85.3%), 공연시설(73.1%)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공연의 취소 또는 연기(74.7%), 매출액 감소(73.5%), 공연관람객의 감소(66.9%), 휴·폐 업(39.6%), 인력의 감원이나 해고(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경험률은 14.8%로 나타남

○ 지원받은 분야는 재정지원(공공 보조금 지원)이 55.9%, 금융지원(저금리 융자 대출)이 22.3%, 인력지원(고용 유지비 지원)이 20.0%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은 ‘충분하지 않다(전혀+충분하지 않은 편)’라는 인식이 78.8%로 나타남

—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실제 지원금이나 혜택이 시설(단체)의 수요(금액이나 범위)에 비해 적음(67.7%)’,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원보다는 일시적인 지원에 그침(65.1%)’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운영비(33.5%), 인건비(13.9%), 임대료(13.1%), 작품 제작비(12.5%)의 순으로 나타남

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³⁾

1)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문화예술 분야 통계데이터

○ 대상 통계

- 문예연감(각 연도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월별/분기별 예술활동 현황자료
- 문화예술분야 신용카드 지출액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
- 미술시장실태조사 데이터
- 서비스업 조사의 연간 총 지출
- 사업체 노동력 조사

■ 조사내용 : 예술분야 매출 및 고용 피해 추정

3) 양혜원(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146호(2020.7.9.) 내용 요약

2)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기간

- 조사방법 : 문화예술 분야 통계데이터 조사·분석을 통한 매출 및 고용 피해 추정
- 조사 대상기간 : 2017~2020년 1~6월 기간 비교

3) 주요 조사 결과

- 문화예술 분야 매출 피해 추정 결과 2020년 상반기 공연예술분야 피해는 823억 원, 시각예술분야 피해는 666억 원으로 총 1,48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표 2-1] 공연 및 전시 분야 매출액 피해 추정(2020.1~6월)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공연	전시
2017.1~6월	9,298	7,435
2018.1~6월	10,128	7,611
2019.1~6월(p)	11,032	7,791
2020.1~6월(p)	12,017	7,076
코로나 피해율 반영(p)	5,560	6,451
취소된 건수(p)	6,457	1,525
건당 매출액(백만원)	20.3	43.7
코로나19 피해금액(백만원)	82,258	66,598

※자료 출처 : 양혜원(2020: 2)

주1) (p)는 추정치

주2) 2019년, 2020년의 공연 및 전시건수 추정치는 2017년, 2018년 문예연감 외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활용하여 추정(유료 및 무료 포함)

주3) 공연예술분야 코로나 피해율 반영 추정치는 2019년 대비 2020년 1월~6.20 기간 동안 '공연장, 극장' 업종의 신용카드 지출액 감소율(-49.6%)을 활용

주4) 시각예술분야 코로나 피해율 반영 추정치는 2019년 대비 2020년 1월~6.20 기간 동안 '화랑, 표구사' 업종의 신용카드 지출액 감소율(-17.2%)을 활용

주5) 취소된 건수 추정치 = 2020.1~6월(p) - 코로나 피해율 반영(p)

주6) 공연 건당 매출액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2019년 1~12월 공연건수와 매출액 자료를 활용

주7) 전시 건당 매출액 :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의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미술관, 기타 전시공간의 연간 전시건수와 매출액(관람규모) 활용

주8) 코로나19피해금액 = 취소된 건수 x 건당 매출액

- 문화예술 분야 고용 피해 추정 결과 2020년 상반기 공연예술분야 피해는 305억 원, 시각예술분야 피해는 34억 원으로 약 339억 원의 피해(인건비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표 2-2] 공연 및 전시 분야 고용 피해 추정(2020.1~6월)

(단위 : 백만원)

구분	연간 인건비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p)	1~6월 고용피해(p)
공연시설	412,467	28,460	14,230
공연단체	471,771	32,552	16,276
소계	884,238	61,012	30,506
화랑	24,289	1,676	838
경매회사	11,140	769	385
아트페어	1,786	123	62
미술관	60,932	4,204	2,102
소계	98,147	6,772	3,386
합계	982,385	67,785	33,892

※자료 출처 : 양혜원(2020: 3)

주1) 연간 인건비 = 연간 총지출 x 인건비 비율(%)

주2) 총지출 : 2019 공연예술실태조사,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주3) 인건비 비율 :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 2018 기준 서비스업 조사

주4)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p) : 사업체노동력조사의 2019년 대비 2020년 2월~4월의 고용감소를 평균값 활용(전체 종사자 기준 전년 대비 6.9% 감소)

주5) 코로나19 고용피해(p) = (고용감소로 인한 연간 인건비 상실(p) / 12개월) x 6개월

- 예술인들의 경우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다는 특성을 반영하여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 피해는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기준 244억 원,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 기준 572억 원으로 추정

[표 2-3]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 피해 추정(2020.1~6월)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예술인 수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상실분(p)	1~6월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 피해(p)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2018 기준)	178,540	9,534	57,206
예술인활동증명 예술인 수(2020.4.21.기준)	76,201	4,069	24,416

※자료 출처 : 양혜원(2020: 3)

주1)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상실분(p) = 예술인의 수 x 프리랜서 예술인의 비율(72.5%) x 월평균 예술활동 수입(107만원) x 고용감소율(6.9%)

주2) 1~6월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 피해(p) = 월평균 예술활동수입 상실분(p) x 6개월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학 분야)⁴⁾

1)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한 문학 창작인(유효표본 : 481명)

■ 조사내용 : 코로나19 피해 정도, 코로나19 지원정책 및 대정부 제안

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배너 이용)

■ 조사기간 : 2020.7.13.~7.24.

3) 주요 조사 결과

■ 문학 창작인 69.9%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5.9%의 응답자는 창작활동에 어려움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코로나19 문학분야 피해 관련 설문조사. 내용 요약

을 겪고 있다고 응답

- 연령이 높을수록 전업 작가일수록, 창작활동 연차가 오래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희곡작가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0%로 나타남

3. 코로나이후 시대와 예술계의 변화 양상

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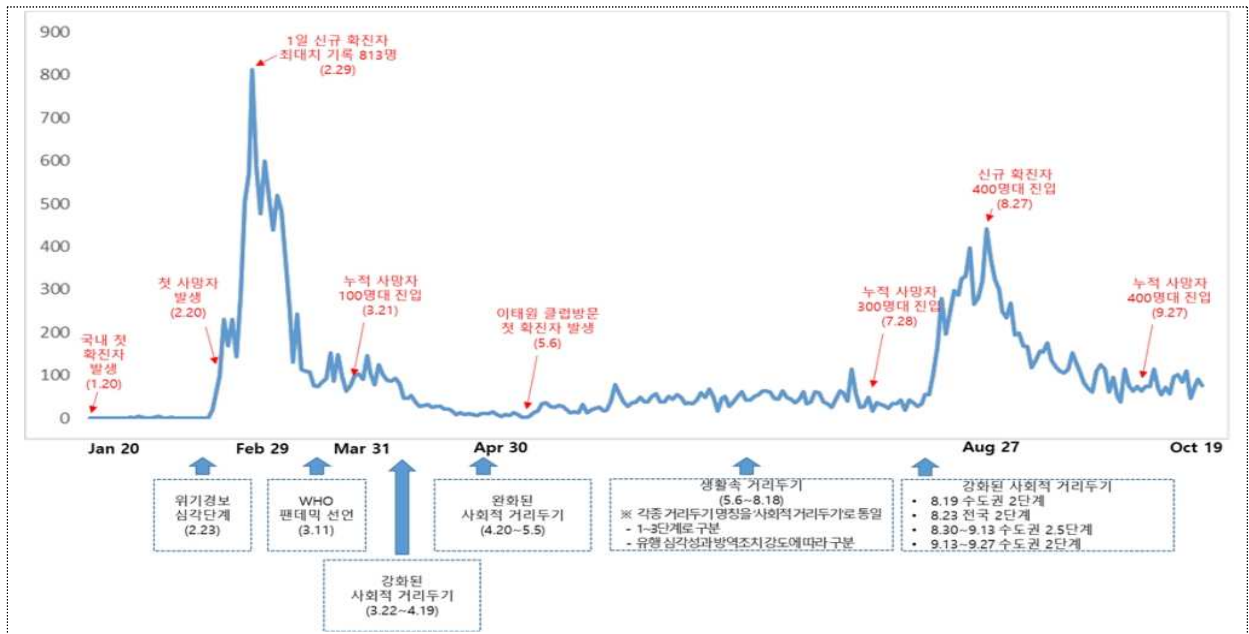
1)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응

-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됨
-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이상)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⁵⁾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 빈도도 높게 나오고 있음
-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비교해보면(박영숙·제롬 글렌, 2020), 확산 속도에서 코로나19가 계절독감보다 2~3배 빨리 퍼지며, 5~20배 더 치명적임
 - 코로나19의 기초감염재생산지수⁶⁾는 2.0~2.5(일부 연구에서는 3~4명)이며, 코로나19가 만약 일반적인 독감과 같은 상태(예컨대, 적극적 봉쇄조치 등이 없었던 상태)에서 퍼졌을 경우를 가정하면, 4,000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음(2020년 10월 기준)

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과 그 밖에도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홍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21.3.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12275&cid=43667&categoryId=43667>)

6) 감염자가 없는 인구집단에 처음으로 감염자가 발생하였을 때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의 수

[그림 2-1]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2020.10.19. 기준) 및 기간별 현황, 주요 방역 대책 개요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유행의 심각성, 방역조치 강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임

[표 2-4] 기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및 주요 내용

구분	기간	주요 내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22~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인이용시설의 통제하는 규제 해외입국자에 대한 강력한 격리 및 위반 시 엄중 처벌
생활 속 거리두기	5.6~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 규범과 문화 형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3단계)	6.28~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 →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도입 (단계별 적용 기준) 코로나19 확산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50인 이하 2단계(2.5단계) :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50~100인 이하 3단계 :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100명 이상인면서, 1주 2회 이상 2배로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5단계)	11.7.~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권역별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기준 세분화 60대 이상 확진자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지수, 집단감염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 상향 검토

- 또한, 총 4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66.8조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 지원 실시

[표 2-5]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차 추경예산 (3.17/11.7조원)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등
제2차 추경예산 (4.30/12.2조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전국민 대상 지급)
제3차 추경예산 (7.3/35.1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K방역 고도화,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 문화체육관광부 추경 3,469억 원 확정
제4차 추경예산 (9.22/7.8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긴급고용안정패키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긴급돌봄지원 등

2) 코로나19와 사회변화

-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촉진하는 심층 원동력으로 작용(최윤식, 2020)
 - 중세를 강타한 페스트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중세 경제 체제를 무너뜨렸으며, 자본주의를 태동시킴
 - 페스트는 종교에도 영향을 미쳤고, 인간에 대한 성찰과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기반으로 근대 인본주의와 르네상스 운동이 발생하는 원동력이 됨
 - 전염병으로 인한 크고 작은 변화들은 한 곳으로 모여 거대한 흐름이 되고, 이 흐름은 결국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도 함
 - 전염병은 사회를 휩쓸고 지나가면 곧 잠잠해 지지만, 그 영향력은 시대를 바꾸는 심층 원동력이 되기도 함
 - 2020년의 코로나19도 이전의 전염병들처럼 크고 작은 변화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어떤 현상들은 사라지기도, 어떤 현상들은 사회 전반의 기존 질서의 큰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음
- 코로나19가 확산되는 1년 여의 기간 동안 2차 세계대전 이후 공고하게 자리 잡았던 질서가 무너짐(박영숙·제롬 글렌, 2020)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상황에서 기존의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오던 세계적인 리더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코로나19 이후 초글로벌(Hyper-Globalization)이 쇠퇴 → 감염병의 역제를 위한 국경 폐쇄를 통한 자국민 보호, 국익 우선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던 글로벌 네트워크 붕괴 조짐
 - 코로나19는 세계 질서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세계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박영숙·제롬 글렌, 2020)
 - 세계 경제는 수축사회 진입과 더불어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침체 국면으로 진입(임현 외, 2020: 5)
 - 코로나19로 인해 복합 경제위기 지속이 우려됨
 - 실물위축 → 자금경색 → 기업부도 → 금융위기 → 실물위기
 - IMF, 블룸버그 등은 코로나19 이후 2020년 경제는 역성장 전망을 내놓음
 - 세계 경제 성장 전망 : -3.0%(IMF), -8.1%(블룸버그)
 - 한국 경제 성장 전망 : -1.2%(IMF), -0.1%(블룸버그)
 - JP모건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40% 이상 줄어들고, 미국은 2분기에 경제가 14% 위축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변화로 공급망의 지역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세계화 후퇴
 - 글로벌 리더들이 자국 정치에 몰입하고 있는 시대를 뜻하는 G0 시대라는 개념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는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학습방식, 살아가는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킴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과는 다른 삶의 방식 경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박찬욱, 2020)
 - (교육) 학생들의 개학, 개강이 연기되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

- (근로) 재택근무의 확산 및 화상회의, 온라인 협업툴 사용 확산
- (경제) 소상공인의 몰락, 홈코노미(homeconomy)⁷⁾ 촉진, 비대면 서비스 확산⁸⁾,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⁹⁾의 폭발적 성장
- (의료) 감염병 관리를 위한 국내 자원 및 경험 축적의 중요성 확대,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체제로 변화
- (문화예술) 문화예술의 경험, 소비의 단절 발생,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증가
-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던 사회 치유 필요성 인식을 높임
 - (경제규모 대비 낮은 행복도) 2020년 세계 행복지수¹⁰⁾ 조사결과 5.872점, 전체 조사대상국 153개국 중 61위 기록
 - 상위 10개국 : 핀란드(7.809), 덴마크(7.646), 스위스(7.569), 아이슬란드(7.504), 노르웨이(7.488), 네덜란드(7.449), 스웨덴(7.353), 뉴질랜드(7.300), 오스트리아(7.294), 룩셈부르크(7.238)
 - 우리나라는 건강 기대수명(10위, 73.602점), 1인당 GDP(27위, 10,510점)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으나 관용(81위, -0.043점), 부정부패(81위, 0.790점), 사회적 지원(99위, 0.799점),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140위, 0.612점)에서 낮은 순위 기록
 -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지만, 사회적으로 갈등과 차별, 불신이 심하고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기회와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편으로 평가
 - (코로나 블루 등 정신건강 치유 필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불안 호소하는 국민 증가
 - 신체·정신 건강 관련 조사¹¹⁾ 결과 작년 대비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는 응답 24%, 정신 건강이 나빠진 데에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은 85%
 -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 조사¹²⁾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
 - 코로나 블루 대처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 또는 산책’(46.2%), ‘집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개발’(30.7%),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소통’(11.0%) 등이 있었음
- 코로나19는 신종플루나 메르스 등 감염병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음
- 그러나 한편으로 변화하는 것이 많지 않거나 변화하는 것들도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최윤식, 2020: 43)
 - 최윤식(2020)은 코로나19로 인해 곧 많은 것이 변할 것이라는 예측이 넘쳐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7) 집이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휴식·문화·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집안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것(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21.4.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40961&cid=43667&categoryId=43667>)

8)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쇼핑을 통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잠정) 기준 17조 3,282억원 규모이며, 배달앱 가입자는 2,500만 명(2019년 기준)임(‘코로나에 배달음식시장 호황…작년 17조 달해’ 뉴시스 2021.2.22. 기사, 검색일 2021.4.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22_0001347095)

9) 구독경제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화장품이나 의류 등 제품을 제공받거나 영화나 음악, 도서 등 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모델을 의미. 전통적으로 신문, 우유 등이 대표적 구독경제 모델. 처음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주요 모델로 부상했으나 최근엔 식품과 가전제품, 차량으로까지 서비스 영역 확대. 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리포트에 따르면, 구독경제 시장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오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2000년 2,150억 달러(약 265조원) → 2020년 5,300억 달러(약 646조원))

10) UN 지속가능발전법네트워크(SDSN)가 세계 행복의 날(International Day of Happiness)을 맞아 2020년 3월 2일 세계 153개국에 대한 행복 보고서 발표. 1인당 국내총생산, 사회적 지원, 건강 기대수명, 삶에 대한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국가 순위 선정

1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 「기획조사 #코로나19 #거리두기 #고립...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참조

12)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조사

나면,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

- 그 이유로는 첫째, 코로나19가 강력했지만 수십 년 동안 완벽하게 익숙했던 일상생활과 행동 패턴들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생각했던 것이나 경험의 상당수가 잊힐 것이기 때문이며,
- 둘째,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들이 만만치 않으며, 제도와 규범 또한 바꾸기 쉽지 않음
- 셋째,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 문제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될 것이기 때문

○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 변화의 여부, 방향성, 속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는 시점

— 최윤식(2020)은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중요한 개인이나 기업이 집중해야 할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함

- 먼저,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어 서서히 시작하는 변화를 포착.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에 집중해야 함
- 둘째,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시작된 변화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강력해지는 상황에 집중.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나 활용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대표적
- 셋째, 위기상황에 가졌던 잠재적 위기의식을 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외 다시 반복될 가능성 높은 위험에 대비하는 새로운 선택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 필요

나. 포스트 코로나 사회 변화

1) 코로나19로 인해 서서히 시작되는 변화들

■ 코로나19 이후 공공안전 및 사회위험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대

○ 감염병 창궐 등 X-Event, 블랙스완 등으로 불리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주기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위험 대응이 일상화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3년 사스 유행 이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총 4차례 선포¹³⁾한 바 있음

- 이후 WHO에서는 ‘연구개발 청사진’¹⁴⁾을 업데이트(2018)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8개의 항목 외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키는 한편,
-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협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질병 X(disease X)’를 제시

○ 알려지지 않은 감염병 확산 등 위협의 일상화로 위기 시 개인과 공공의 이익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 ‘감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줌(최윤식, 2020)
-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개인 자유와 공공 감시에 대한 국민적 협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13) 2003년 사스, 2009년 돼지독감 대유행, 2014년 소아마비와 에볼라, 2016년 지카(마크 호닉스바움, 2020)

14)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고, WHO가 추가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원체의 우선 순위 목록을 말하며, 2015년에 크림-콩고 출혈열, 에볼라, 마버그열, 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 라사열, 니파 감염증, 리프트게곡열 등 8개의 항목을 선정(마크 호닉스바움, 2020)

국가 주도의 강제적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함

- 위험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에 기반을 둔 과학적 조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코로나19 이전부터 원격근무, 원격학습,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규모로 비대면 사회를 강제로 경험하게 됨

○ 몇 년 전부터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노마드¹⁵⁾ 방식의 새로운 노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도입하였고,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유지·확대하겠다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대면 업무 수행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

— 이는 비대면 사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 세밀한 정책 검토를 통한 비대면 전환이었다기보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최소한의 업무 단절을 막기 위한 공여정책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

—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방식은 모든 노동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층에 따라 차별이 발생

[표 2-6] 코로나19 위기로 재조명되는 새로운 4계급과 계급별 주요 내용

계급 구분	주요 내용
The Remotes	· 원격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 전체 노동자의 약 35%에 해당하는 전문, 관리, 기술직 인력 · 화상회의, 이메일 등 온라인 비즈니스 수행이 가능한 집단 ·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보장받으면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급
The Essentials	· 필수적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 · 전체 노동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 · 의사·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이 이에 해당 · 사회적 위기 상황 시 업무 수요가 더 많아지는 이들에게, 일자리는 유지되지만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계급
The Unpaid	·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 코로나19 위기로 무급휴직상태이거나 직장을 잃은 사람들 · 자영업자, 소매업, 음식점 등 모든 업무가 디지털 등으로 대체될 수 없는 직업군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있어도 장기적인 불황과 재난이 가져올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계급
The Forgotten	· 수감자, 노숙인 등 이미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공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

자료 출처 : Robert Reich. "Covid-19 pandemic shines a light on a new kind of class divide and its inequalities". 2020.4.25. The Guardian.

○ 다만,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비대면 중심의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제적’인 비대면 사회의 경험은 향후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

— 수용자 입장에서는 비대면 경험의 유용성, 비대면 가상 활동의 수용성에 대한 경험이 확대되었다는 것과 비대면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단점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음

— 공급자 측면(기업, 비대면 기술 공급자 등)에서는 비대면 사회의 전면적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해킹, 트래픽, 소통 간섭,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파악, 비대면 사회의 확산을 저해해 왔던 법과

15) 디지털 노마드란, 온라인을 의미하는 디지털과 유목민을 의미하는 노마드의 합성어로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 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명분과 사례의 확보함으로써 기존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음

- 코로나19가 비대면 사회로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지는 못할지라도 언젠가 다가올 대전환의 시기를 경험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현상을 지속하고 가속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최윤식, 2020)

2) 기존의 변화가 더욱 강력해진 사례들

-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이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의 개발 및 도입이 이루어져 오고 있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초지능, 전자동화, 초고속, 초종강현실의 키워드로 요약되며, 디지털 환경은 곧 사회적 환경이자 구조의 의미를 갖게 됨(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 2019)
 - 사회적 구조로서 디지털 환경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과 같은 개별 기술로부터 형성될 수도 있고, 개별 기술들이 융·복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내는 거대기술체계로부터 출현할 수도 있음

[표 2-7]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기술 및 내용

주요 기술	내용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에 범용기술로 활용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를 높임 · (역기능) 비숙련-중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을 비롯하여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는 자동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등 문제 제기
빅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현상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적 예측 가능,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출현 시킴 · (역기능) 전자감시사회의 등장을 유발할 수 있고, 전자감시사회 속 개인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등급화와 계층적 차별이라는 불평등에 노출될 수 있음
AR/V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트너의 기술성장주기(hypecycle) 곡선에 따르면, VR은 기술이 안정화되고, 비즈니스가 본격화되는 4단계이고, AR과 MR은 기술이 아직 불완전하고, 소수기업만 투자를 이어가는 3단계임 · 향후 글로벌 AR/VR 시장은 폭발적 성장세가 예상됨 - 전 세계 AR/VR 시장은 2019년 464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5천억 달러로 3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장기적으로 AR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AR/VR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 (역기능) 호모커넥티드(homo connected)의 인간성을 출현시켜 인간들을 자신들이 관계 맺고 있는 대상(사람, 기계, 사물 등)으로부터 따돌림과 통제를 당하도록 만드는 인간소외로 내몰 수 있음

자료출처 : 강준모·이은민(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기술: VR/AR 산업과 규제 이슈. KISDI Premium Report 20-08.

- 코로나19라는 X-event는 그동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장벽에 막혀 도입되지 못했던 혁신적 기술들을 일상에 과감하게 도입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옴
- CIFS(Copenhagen Institute for Future Studies)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블록체인을 선거에 활용하고, 격리구역에서 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하는 등 기술의 혁신과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0)
- 자동차 산업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람이 조정을 하는 것에서 인공지능이 조정하는 것으로 대전환을 시작(최윤식, 2020)했으나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은 윤리적 딜레마¹⁶⁾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실질적 도입에 많은 논쟁이 있었음

16) 자율주행차의 윤리적 딜레마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위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내리는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 등 윤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함. 예를 들면, a 상황에서 가드레일에 위치한 보행자가 어린 아이고

- 코로나19는 미래 자동차가 갖는 장점 중 하나를 부각시킴으로써 자율주행차 연구 및 도입에 박차를 가하게 함
 - 자동차 내에서의 비대면 업무와 일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개인화된 이동수단으로, 연결성 강화를 통해 이동뿐만 아니라 업무 및 일상활동이 가능한 대안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

■ 콘텐츠 소비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활용 활동 증가¹⁷⁾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확대는 콘텐츠 소비 수단으로서의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의 활용을 증가시킴
- 우리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도입 초기인 2010년 3.8%에서 2019년 91.1%로 10년 사이 급증함으로써 매체 생태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함
 - 국민여가활동조사(2018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으로 TV 시청, 인터넷 검색, 게임, 산책 및 걷기,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등의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외부 활동 외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활동으로 향후 콘텐츠 소비에서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을 시사
- OTT¹⁸⁾ 이용률은 2016년 35.3%에서 2019년 52.0%로 크게 증가
 - 10대와 20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각각 84.8%, 83.2%), 40대 이용률 55.3%에 달함
 - 최근 3년 간 이용률 증가폭은 1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20%p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60대도 7.4%에서 21.3%, 70세 이상도 0.75%에서 4.4%로 증가
- 스마트폰 활용 콘텐츠 이용 확대 : 동영상 이용률 전 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확대
 - TV 프로그램 외 동영상 이용률은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높게(각각 52.5%, 48.5%) 나타났으나 30~50대 연령에서 최근 3년 간 이용률 약 3~4배 증가
 - 60대는 3년간 2%에서 14%로 약 7배 증가했고, 70대 이상은 1.2%에서 4.7%로 증가

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 환경 변화

■ 코로나19는 오랜 시장실패 영역이던 기초예술 분야에 큰 타격을 입힘

- 2020년 상반기 공연 및 시각 분야 매출액 피해 규모 총 1,489억 원 발생 추정, 동기간 약 339억 원의 고용 피해 발생 추정¹⁹⁾
-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던 3월 이후 공연·전시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91.0%, 55.0% 감소²⁰⁾

■ 예술계에서는 새로운 예술활동 대안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임

-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집에서 즐기는 비대면 공연·전시 크게 증가
 - 빅데이터 & AI 적용 사례 : 레픽 아나돌(Refik Anadol/미디어 아티스트)과 구글 아트앤컬처 AMI가 협업하여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외벽에 초대형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진행(LA 필하모닉 아카이브 데이터에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
 - AI & 로봇 기술 적용 사례 : 영국 옥스퍼드대,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 AI-DA 개발, 기계팔과 연필을

10명의 보행자는 모두 나이든 노인들이라면, 또는 그 어린아이가 탑승자의 자녀이거나 10명의 노인 중에 내 부모가 포함되어 있다면 탑승자는 단순히 보행자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아님 자신의 안위에 따라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의 상황이 있음(류준범, KAMA Web Journal 2016 vol. 326 참조)

17) 정용찬(2020). 스마트폰, TV의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KISDI STAT Report 20-05호(2020.3.15.) 참조

18) Over 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

19) 양혜원(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문화관광 인사이드 제146호(2020.7.9.) 참조

20) 권용민(2020). 코로나19, 예술현장의 위기양상과 특징. 제5회 코로나19 예술포럼(2020.10.28.) 참조

사용하여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인지한 것을 그려낼 수 있음

- AR 적용 사례 : 구글 실험 웹사이트의 증강현실 실험의 일환인 ‘NormanAR’,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이 손쉽게 자신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이를 실제 세계에 추가 가능

○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비판이 존재

- (장점) 시간적·공간적·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무대와 관객 간의 거리를 축소하여 생생한 관람을 가능하게 하고, 유통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관객기반을 형성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 (비판) 기존 오프라인 예술의 현장성의 퇴색으로 몰입이 어렵고, 오프라인 공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완성도 있는 영상 제작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기초예술 분야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점, 디지털 격차로 문화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

○ 코로나19로 인해 부상한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²¹⁾는 예술분야에서도 그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음

- 구독경제 성장 추이(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리포트)
 - 2000년 2,150억 달러(약 265조원) → 2015년 4,200억 달러(약 518조원) → 2020년 5,300억 달러(약 646조 원/예산)
- 구독경제 성장 전망(가트너 그룹)
 - 2023년 정기구독 서비스 영역에 전 세계 기업의 75%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
- 예술분야 구독형 서비스 확대
 - 일간 이슬아 : 작가가 독자에게 이메일로 글을 보내주고(월 20편), 1만원의 구독료를 받는 서비스 제공 (2018.2월 창간)
 - 잇선의 SEND NOTE : 만화가 잇선이 운영하는 1인 에세이 정기구독 서비스, 월 2만원에 한달간 매일 글과 그림을 이메일로 발송)
 - 스타트업 핀줄 : 매달 해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아트프린트 형식으로 인쇄해 3, 6, 12개월 기간에 따라 배송 및 정기구독하는 서비스 진행
 - 전자책 대여 서비스 : 리디셀렉트, 교보문고 등 월 정액 무제한 도서 대여 서비스 제공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요구 확대

○ (재난 상황에서 예술의 가치)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 고립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 연대의 손길

- 사례 1 : 이탈리아,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Andra tutto bene)’라는 메시지로 담은 발코니 콘서트가 플래시 몹으로 진행
- 사례 2 : 우리나라, 클래식 랜선 라이브 콘서트인 ‘방구석 클래식’과 소규모 살롱 콘서트인 ‘방구석 탈출 클래식’이 코로나로 지친 관객에게 위로와 감동 선사

○ 세계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활동 활발히 진행

- UNESCO 넥스트 노멀(The Next Normal) 캠페인, 레질리아트(ResiliArt) 운동, American for the Arts “예술이 희망을 만듭니다(#ArtsCreateHope)” 캠페인 등

21) 구독경제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화장품이나 의류 등 제품을 제공받거나 영화나 음악, 도서 등 콘텐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모델을 의미. 전통적으로 신문, 우유 등이 대표적 구독경제 모델. 처음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주요 모델로 부상했으나 최근엔 식품과 가전제품, 차량으로까지 서비스 영역 확대

4. 시사점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예술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려움은 공연·전시·축제 등의 취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예술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실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코로나19 인한 예술현장의 위기상황과 대응에 대한 니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예술을 지속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위험상황의 기간과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임

• 코로나19 1차 확산 시기, 유래 없는 질병 확산으로 공공부문은 엄격한 방역관리를 적용. 이에 따라 공공 문화시설이 전면 섯다운 되면서 상반기 공연·전시·축제 등이 취소·연기되는 상황이 발생

• 이후 코로나19 확산-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공연·전시·축제(행사) 대응이 지역별·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됨에 따라 예술가(단체)의 예술활동은 시기·지역·기관·담당자에 따라 ‘복불복’으로 진행

— 때문에 재난상황 대응단계에 따른 일정한 예술활동 지속 방안(매뉴얼)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재난상황에서 예술활동 지속 방안(가이드)’은 공연장과 같은 ‘예술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 가이드’와 함께 ‘대응단계별 사업운영 가이드’를 포함

• 현재 시설(공간)에 대한 가이드는 방역단계에 따른 운영방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은 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어, 위기단계별 취소, 연기, 지속 등의 기준과 방안 설정이 필요

• 장르, 사업 형태(대관, 기획 등)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세분화된 가이드 수립이 필요하며, 문체부를 포함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필요

○ 둘째, 재난상황으로 인한 예술활동(행사) 취소 시, 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 재난상황으로 인한 예술활동 중단(취소)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과 함께 이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문화의 개선이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이 예술활동의 시장역할을 하고 있어(문예회관 등 공공부문의 기획·초청 공연·전시, 지자체 축제 등), 코로나19 이후 공공부문의 예술활동 취소·축소는 예술계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

• 실제 공연·행사 등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작성하는 계약문화와 재난상황에 적용되기 어려운 일반적 계약서로 취소공연에 대한 보상기준이 미흡한 상황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연기된 예술활동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 사례와 함께 타 분야 사례들을 적용한 보상방안과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

•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불가항력 조항에 재난상황, 정부당국의 행정명령 등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고 위기 단계별 대안 선택사항(취소, 연기, 지속) 및 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명시 필요

•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사업 수행 방식(대관, 기획 등), 형태(장르, 축제 등)에 따라 세분화된 방안 마련

○ 셋째, 예술인(단체) 예술활동 지속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가 연계되는 지원 확대

— 예술가(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감소가 장기적으로 관객의 감소(소멸)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또한 ‘왕성한 창작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야 함’을 제시

— 예술의 가치는 그 본질적 의미와 함께 예술 향유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재난상황에서 예술활동 지원이 취소·보상이라는 소극적 대응에서 대안활동의 모색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연계되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

○ 넷째, 온라인 공연예술의 방향성과 세밀한 지원방안 추진

- 코로나19로 확대된 예술활동의 온라인 콘텐츠화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필요
 - 대면 문화예술활동의 제약으로 예술활동의 영상화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실제 예술현장에서는 영상화에 대한 작업 기반 부족, 추가 제작비용에 대한 부담, 저작권 보호, 투자 가치에 대한 부담으로 혼란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활동의 영상화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비용 및 인력지원 그리고 온라인 송출에 대한 저작권, 활용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미래대응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유형 및 온라인 공연 영상화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온라인 공연시장에 대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

III. 코로나19 대응 지원사업 진단 및 시사점

1.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정책 경향

가. 1차 추경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17일 본회의를 통과함

■ 1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2조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32조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 지원(10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지원 프로그램 도입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규모 지원 등을 포함

■ 본예산 대비 11.7조원(세출 확대 10.9조원, 세입경정 0.8조원) 규모가 증액되었으며, 세출확대 10.9조원의 주요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3-1] 1차 추경 중점 투자방향(국회확정안 기준)

규모	11.7조원 (세출확대* 10.9조원 + 세입경정 0.8조원)	
중점 투자 방향	①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2.1조원
	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마스크 공급역량 강화	0.2
	②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1.9
	②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4.1조원
	①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최저금리 대출 확대	3.1
	②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 등	0.6
	③ 코로나19 피해점포·전통시장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등	0.4
	③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3.5조원
	①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긴급복지 등	2.9
	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	0.6
	④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1.2조원
	① 코로나19 피해지역 대상 지역고용 특별지원 등	0.2
	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0.2
	③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책비 및 교부세·교부금 정산 등	0.8
	※ 대구·경북 지원예산 1.7조원 별도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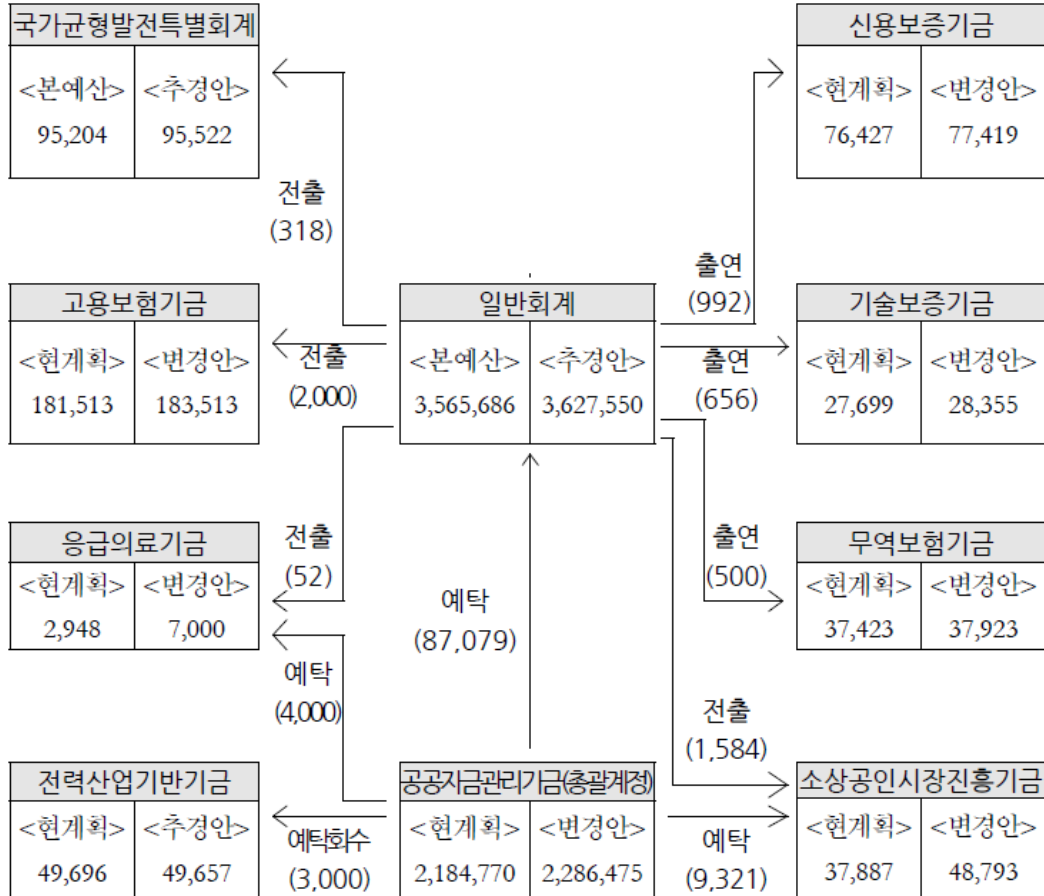
출처 : 기획재정부(2020.3.18. 보도자료)

■ 1차 추경의 주요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보임

- 첫째,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를 추진함. 2~3월 품귀현상을 보인 마스크 생산·공급,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 음압병상 및 음압구급차, 의료기관 손실 보전, 파견의료인력 등의 사업에 지출
-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을 추진함. 소상공인 융자, 코로나 우대대출, 신용 및 기술 특례보증, 소상공인 고용유지, 피해점포 재기 지원(휴·폐업지원) 등 사업에 지출

- 셋째, 취약계층 생계부담 경감 및 소비 진작을 추진함. 저소득층 및 아동수당 대상자 쿠폰, 노인일자리 참여자 쿠폰,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사업에 지출
- 넷째, 대구·경북 등 피해심각지역 지원을 추진함.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교부세·교부금 등 지방재정 보강 사업에 지출

[그림 3-1] 1차 추경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세부내역(정부안 기준)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13p

나. 2차 추경

- 정부가 국회 제출한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함
-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1차 추경 이후 총지출 8조원이 증가함
- 본예산 512.3조원 → 1차 추경 523.1조원(10.8조원 증가) → 2차 추경 531.1조원(8조원 증가)
-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국고 12.2조원에 지방비 2.1조원을 포함하여 총 14.3조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 12.2조원의 재원은 국채발행(3.4조원)과 지출구조조정(8.8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함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171만 가구에 대해 지급 결정
- 지원단가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
- 당초 지방비 매칭 비율을 서울 7:3, 지방 8:2의 보조율을 결정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비 추가부담분 1조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함

- 그 결과 서울 81.9%, 지방 86.1%의 국비 보조율이 최종 결정
-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조달을 위한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대비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 개도국 차관이나 ODA 및 해외봉사단 등 해외사업, 국내·외 주요행사 및 연수비, 개강 연기 및 방학 축소에 따른 근로장학금 등 집행곤란 사업의 축소
- 둘째, 주요 인프라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 방위사업 조달 및 군시설 정비 계획 변경, 철도·국도·항공·상하수도 인프라의 투자계획 변경, 청사신축 사업 감액 등임
- 셋째, 코로나19 계기 환경변화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액을 활용함
 - － 유가하락에 따른 난방연료비·유류비 절감액, 금리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액,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지출 축소 등임

다. 3차 추경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는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3차 추경을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정부는 35.3조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2020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 국회 검토과정에서 0.2조원 순감한 35.1조원으로 결정
- 국회 최종확정 된 35.1조원의 3차 추경 예산은 세입경정 11.4조원과 세출증가 23.7조원 규모
- 본예산 512.3조원 → 1차 추경 523.1조원(10.8조원 증가) → 2차 추경 531.1조원(8조원 증가) → 3차 추경 546.9조원(15.8조원 증가)
- 3차 추경은 금년 성장률하락·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 반영을 위한 세입경정이 포함되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안정패키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이 포함

[표 3-2] 3차 추경 중점 투자방향(국회확정안 기준)

규모		(정부안) 총 35.3조원 → (국회확정) 총 35.1조원	
중점 투자 방향	① 세입경정을 통한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	[정부안] 11.4조원	[국회확정] 11.4조원
	① 코로나19 등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 반영 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제감면 등 요인 반영		
	② 위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5.0조원	5.0조원
	①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	1.9	1.9
	②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3.1	3.1
	③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	18.9조원 ^{주)}	18.7조원 ^{주)}
	①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4	10.0
	▪ 고용유지·직접일자리·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8.9	9.1
	▪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0.5	0.9
	② 경기보강 패키지	11.3	10.4
	▪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7	3.2
	▪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	2.5	2.4
	▪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5.1	4.8

주 :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K-방역 등)간 중복 : 약 1.7조원

출처 : 기획재정부(2020.7.3. 보도자료)

■ 일자리 버티기 측면에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금융지원 포함)과 내수 진작 등 경기보강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주요 지원내용으로 포함

○ 일자리 버티기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기업 금융지원 5조, 고용유지 및 직접일자리 공급을 위한 지원 9.1조가 편성

○ 지역경제 활성화는 8대 할인소비쿠폰, 유통기업 전용보조금,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사업내용으로 3.2조가 편성

○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2.63조), 그린뉴딜(1.22조), 뉴딜 산업 관련 고용안전망(1조) 등 총 4.8조원 편성

■ 문체부는 3차 추경으로 확보한 3,469억 중 문화예술계 사업으로 1,596억을 책정함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공공미술사업(759억), 공연예술 인력지원 사업(288억),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149억), 공연·전시 등 소비쿠폰(211억),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33억), 공연장 방역 안전지킴이(31억), 창작준비금 추가 확보(99억),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115억) 등임

— 일자리 지원으로는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3,000명), 공연장 방역지킴이(500명), 공공미술 사업(8,500명)에 해당
•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은 2020년 7월~12월 기간 단년도 지원으로 3,000여명에 총 288억원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

• 공연장 방역지킴이는 3개월 단기 일자리 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

• 공공미술 사업은 전국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형식

— 창작지원을 위해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149억), 창작준비금 확대(99억) 등이 편성

— 소비 진작을 위해 공연 관람료 지원(159억)으로 1인당 8,000원씩 180만장, 전시 관람료 지원(52억)으로 1인당 3,000원씩 160만장을 지원

[표 3-3]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분	'20	'21~'22	'23~'25	합계
1) 디지털 뉴딜	2.7 (52.9)	10.7 (40.8)	23.0 (51.1)	36.4 (47.7)
○D.N.A 산업 생태계 강화	1.3 (25.5)	5.1 (19.5)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0.2 (3.9)	0.6 (2.3)		
○비대면 산업 육성	0.7 (13.7)	0.7 (2.7)		
○SOC 디지털화	0.5 (9.8)	4.3 (16.4)		
2) 그린 뉴딜	1.4 (27.5)	11.5 (43.9)	14.0 (31.1)	26.9 (35.2)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0.3 (5.9)	5.5 (21.0)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0.5 (9.8)	1.2 (4.6)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0.6 (11.8)	4.8 (18.3)		
3) 고용안전망 강화	1.0 (19.6)	4.0 (15.3)	8.0 (17.8)	13.0 (17.1)
합 계	5.1 (100.0)	26.2 (100.0)	45.0 (100.0)	76.4 (100.0)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123p

주 : 괄호안은 비중임

라. 4차 추경

-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 추경예산 7.8조원과 기금변경·예비비 등 4.6조원을 포함해 총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
- 4차 추경에서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자 지원, 중학교 이하 아동의 비대면 학습 지원,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긴급생계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정부안에 대한 국회 검토 과정에서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로 2,3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2,074억원,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1,450억원 등 5,903억원이 증액됨
- 또한 통신비 지원 5,206억원을 포함하여 예비비 등 6,177억원이 감액됨

[표 3-4] 4차 추경 중점 투자방향(국회확정안 기준)

규모	(정부안) 총 7.8조원 → (국회확정) 총 7.8조원		
중점 투자 방향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정부안] 3.8조원	[국회최종] 3.9조원
	①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가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3.3	3.4
	②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0.5	0.5
	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4조원	1.5조원
	①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1.0	1.1
	②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0.1	0.1
	③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코로나극복 일자리)	0.3	0.3
	③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0.4조원	0.4조원
	①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0.4	0.4
	②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0.03	0.02
	④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2.2조원	1.8조원
	①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	1.3
	②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	0.1
	③ 이동통신요금 지원	0.9	0.4
	④ 아동학대 예방·보호	-	0.01
	⑤ 목적예비비	0.1	0.05
	⑤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	0.2조원
	① 코로나·독감 등 백신지원	-	0.2
	② 의료인력 등 교육·상담·치유 지원	-	0.02

출처 : 기획재정부(2020.9.22. 보도자료)

■ 4차 추경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대상별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3조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0.1조원, 특례보증 0.2조원, 영세 중소기업 및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추가 공급 0.3조원 등으로 구성
- 둘째,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로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한 0.5조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법인택시기사 등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0.1조원, 미취업 구직 희망 청년에 대한 특별 구직지원금 0.1조원, 구직급여 0.2조원, 방역·수해복구 지원 등 코로나극복 긴급일자리 2.4만개 공급을 위한 0.1조원 등으로 구성
- 셋째,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로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자금으로 0.35조원, 저소득층 5천명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0.02조원 등으로 구성
- 넷째,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532만명에게 아동특별돌봄 1.1조원 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0.2조원, 가족돌봄휴가 지원으로 0.06조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원, 이동통신요금 경감 0.4조원, 위기 아동보호 47억원 등으로 구성
- 다섯째, 긴급방역지원 패키지로 백신 조기개발과 물량 확보를 위해 0.2조원, 방역활동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및 교육·상담비용 지원으로 0.02조원 등으로 구성

2.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가. 코로나19 대응 문화예술지원기관 대응 경과

1) 코로나19 대응 예술분야 지원 총괄 현황

- 코로나19 발생 초기,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방역 활동 등으로 대처했으나, 코로나 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공연·전시의 취소·연기 사태가 속출하면서 예술계 지원대책 마련이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문화예술분야 기관들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예산편성,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
 - 2020.7월 기준 약 2,5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지원 예산 투입

[표 3-5] 코로나19 대응 예술분야 지원 총괄 현황(2020.7.9.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주관처	예산
생계·방역 지원	(공통)코로나19 예술인 특별응자	예술인복지재단	71
	(공연)소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3.1
	(공연)공연장 방역안전지킴이*	공연장안전지원센터	31
	(교육)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1
	(공통)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복지재단	360
	(공통)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99
예술활동지속 여건 조성	(공연)공연장 대관료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소극장협회	60
	(공연)공연예술 초연·재공연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별 문화재단	153.7
	(공연)공연 온라인 생중계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공연)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49
	(공연)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
	(공연)청년예술가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
	(공연)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88
	(시각)전시공간 긴급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5
	(시각)공예 판촉행사 실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1
	(시각)공예 포장상자 무상보급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9
	(시각)공공미술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59
	(교육)예술강사 원격수업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6
	(교육)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교육)문화예술 교육 자원 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15
	(문학)지역문학관 소장유물 체계화*	한국문학관협회	14
	(공통)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3
수요진작	(공연)공연 관람료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130
	(공연)공연할인쿠폰**	예술경영지원센터	29
	(시각)미술 전시 할인쿠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2
기타	문예기금 집행 인정범위 확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예술경영지원센터	-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고용노동부	-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구축		-
	심리상담 지원대상 확대	예술인복지재단	-
계			2,492.4

자료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자료

* 3차 추경(국고) 사업 : 1,455억 원 규모

** 3차 추경(문예기금) 사업 : 114억 원 규모

나. 유형별 지원사업 현황

1) 생계지원형

■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약 3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사업을 전개
- 지원대상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이며,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함
-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의 조건에서 한도 상한, 상환기간 유예, 금리 인하, 부부 예술인 중복신청 허용 등이 주요 지원내용임
 - － 융자한도 : (기존) 5백만원, (변경) 1천만원
 - － 상환기간 : (기존) 1년 거치 3년 상환, (변경) 2년 거치 3년 상환
 - － 금리 : (기존) 2.2%, (변경) 1.2%
 - － 기타 : 부부예술인 중복 신청 가능

[표 3-6]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사업개요

사업명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사업기간	2020년 3월, 4월(*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매월 신청 접수하며, 코로나 특별융자를 한시 운영)	
사업대상	개인	
지원규모	총 30억원	
사업내용	유형별	생계지원
	지원내용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등 대출가능 -융자한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상향 -상환기간: 기존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유예 -금리: 기존 2.2%에서 1.2%로 인하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2020.01.20.~) 국내·외 행사, 공연의 취소·연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

주 : 사업예산, 신청 건수에 따라 공모기간 변동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19년 3월 사업발표 후 6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소액생활자금(500만원 한도), 주택자금대출(4,000만원 한도), 소액대출(1,000만원 한도) 등 3가지 유형으로 시범운영하였으며, 2020년부터 생활안정자금대출(500만원 한도)과 전세자금대출(1억원 한도)로 운영중
- 2020년 3월과 4월 코로나19 특별융자 실시로, 매월 약 320여건이던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신청 건수 대비 4월 기준 신청접수가 1,300건으로 폭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융자 수요 증가
-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대출 총사업비는 2019년 약 80억원 규모에서 2020년 약 18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사업 코로나19 가점제 운영(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소액(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매년 상반기(3월)와 하반기(7월) 2회 신청접수하며, 연간 약 12,000여명의 예술인을 지원
 - 2020년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 기존 연간 12,000여명 지원 규모를 15,260명(3,260명↑)으로 확대함. 또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을 우선지원하기 위해 가점제(2점)를 운영

-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자격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으로서 생계지원 성격의 사업으로 분류
 - 사업액 증액 : (기존) 360억원, (변경) 460억원(2020년 3차 추경)
 - 가점제 : 코로나19 피해 확인서 제출시 가점 2점
 - (기존) 최초 수혜자(2점), 농어촌 지역 예술인(1점)
 - (변경) 최초 수혜자(2점), 농어촌 지역 예술인(1점), 코로나19 피해 예술인(2점)

[표 3-7]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개요

사업명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사업기간	연 2회. 상반기(3월), 하반기(7월)	
사업대상	개인	
지원규모	인원	15,260명(당초 12,000명)
	지원규모	총 460억원(3차 추경으로 99억원 증액)
사업내용	유형별	생계지원
	지원내용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의 창작준비금 지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심의 후 가점 2점 부여)
신청자격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소득인정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2) 경상지원형

■ 공연장 대관료 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주요 변경내용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코로나19 지원유형’을 추가하여, 기 지급한 대관료의 미환불 금액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
- 또한 동일·유사 공연작품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당초 1,500만원 한도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를 증액. 공연단체는 연간 한도 내에서 공연작품 발표에 소요된 대관료 지원을 신청 가능
 - 코로나19 대응으로 40억 예산을 증액 투입

[표 3-8]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기간	연 4회 공모	
사업대상	공연단체(개인)	
지원규모	인원	1,223개 단체(개인), 1,334건 공연
	지원규모	63억
사업내용	유형별	경상지원형
	지원내용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개인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국내예술단체(예술인)의 공연예술분야(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대관 공연 지원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하여 지원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가능 -1개 작품별 연간 지원금 최대 3,000만원 -1~2차 공모는 2019년 12월~2020년 4월까지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19 피해 경감 대책을 포함하여 진행함
신청자격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및 예술인 -개인은 창작발표 경우에 한함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민간소극장 긴급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민간소극장 긴급지원 사업은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기금변경을 통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가공모 형태로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추진함. 객석 수 300석 미만 민간소극장에 대해 극장 당 1,000만원 범위에서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 총 272개 단체의 363건에 대해 1소극장 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체를 지원

[표 3-9] 민간소극장 긴급지원 긴급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코로나19 피해 민간소극장 긴급지원(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추가공모)	
사업기간	연 2회 공모(6월, 9월)	
사업대상	공연단체	
지원규모	인원	272개(363건)
	지원규모	50억원
사업내용	유형별	경상지원형
	지원내용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일체를 지원 -1차 : 1개 소극장 당 최대 1,000만원 지원(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2차 : 1개 소극장 당 최대 2,000만원 지원(*신청자가 많아 실제로는 최대 1,400만원 지원)
신청자격		-민간 소극장(객석 수 300석 미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기초 공연예술 전용 공간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지속 운영 예정인 전국의 민간 소극장

■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 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전시공간 긴급지원은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전시공간 운영 단체의 경상비 지원 사업임. 공간 임차료와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지원금 금액의 70%까지 집행이 가능하며, 공간 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함
- 지원대상 사업은 전시 또는 프로그램 단위이며, 민간 전시공간·등록 사립미술관·화랑을 대상으로 함

[표 3-10]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	
사업기간	연 2회(5월, 9월)	
사업대상	시각단체	
지원규모	인원	337건
	지원규모	10억원
사업내용	유형별	경상지원형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한 특별 지원으로 공간 당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금 중 70%까지 공간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경비로 집행 가능함 -기획 전시 또는 프로그램 추진과 전시공간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사업은 1개의 전시 또는 프로그램으로 한정
신청자격		-민간 전시공간, 등록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을 운영하는 단체

■ 코로나19 특별공모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코로나19 특별공모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의료시설 관계자에게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시각예술단체가 의료시설에서 개최하는 미술품 대여·전시 사업에 대한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당 400만 또는 50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
- 대여·전시 사업기간은 공모 후 2020년 8월~12월 5개월 간 진행되었으며, ‘공간 사용 허가서’를 제출한 전시 희망 병원 등 전국 68개 병원 목록을 공고 후, 시각단체가 개별 접촉하여 전시사업 추진. 500병상 이상 국민안심병원에서 전시를 진행

[표 3-11] 코로나19 특별공모 미술품 대여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코로나19 특별공모)	
사업기간	연 1회(6월)	
사업대상	시각단체	
지원규모	인원	8건
	지원규모	3,700만원
사업내용	유형별	경상지원형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의료시설에서 개최되는 미술품 시범 대여·전시의 직접경비(작품 대여료, 미술품 운송·설치·보험료, 전시물품 임차료, 홍보비, 회계검사수수료 등) 일부 지원 -사업당 400만원/500만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사업기간은 2020년 8월~2020년 12월 5개월간 진행
신청자격		-코로나19 관련 의료시설(500병상 이상 국민안심병원)에서 미술품 시범 대여·전시를 진행하고자 하는 민간단체(화랑, 대여업체 등) -2018년 1월 이전에 설립된 단체. 2018~2019년에 매년 2회 이상 기획전 개최 경험 또는 미술품 대여·전시 경험이 있는 단체

■ ‘K-Music 시즌’ 코로나19 극복 긴급 대중음악공연 지원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코로나19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K-Music 시즌 대중음악공연 지원사업을 추진. 공연개최에 필요한 공간 및 장비 임차료, 영상촬영 및 송출비, 뮤지션 출연료 등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
- 단기공연의 과제 당 최대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기(다지역)공연의 경우 과제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함

[표 3-12] 'K-Music 시즌' 코로나19 극복 긴급 대중음악공연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K-Music 시즌' 코로나19 극복 긴급 대중음악공연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 1회(6월)	
사업대상	공연단체(개인)	
지원규모	인원	23개 단체(23개 과제)
	지원규모	13억원(운영비 6,000만원 포함)
사업내용	유형별	경상지원형
	지원내용	-공연개최에 필요한 비용 지원(공연장 및 영상 촬영 장소 임차료, 장비 임차료, 공연영상 촬영 및 송출비, 영상 편집 및 제작비, 뮤지션 출연료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비,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비 지원 -KOCCA MUSIC 채널을 통한 리뷰 게재 -단기공연(1회 혹은 3~4회) 과제 당 최대 45백만원 지원 -장기/다지역 공연(7일 이상의 정기공연, 3개 지역 이상의 다지역, 전국투어 공연) 과제 당 최대 100백만원 지원
신청자격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중음악 제작자(사) 및 공연기획자(사)

■ 코로나19피해 공예자원(공예패키지) 지원사업(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예 종사자에게 공예품 포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박스형 공예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원 물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후 포장박스를 발송

[표 3-13] 코로나19피해 공예자원(공예패키지)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코로나19피해 공예자원(공예패키지) 지원	
사업기간	연 2회(1차 : 5월 공모, 2차 : 9월~12월 물품 소진시까지 수시)	
사업대상	공예 예술가	
지원규모	인원	428명
	지원규모	1.5억원
사업내용	유형별	경상지원형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예 종사자에게 공예품 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래박스형 공예패키지 -최대 5세트 선택 신청 가능 -1세트 구성: 포장박스 10장+부자재(완충제, 끈, 라벨스티커 등)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공예 종사자

3) 창작지원형

■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19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제시. 예술계 고용유지 및 안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시각예술분야 예술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지역 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 사업 선정 작가팀은 문체부 및 지자체가 마련한 기본적인 사업방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 총 사업비는 948억원으로 국비 758억 6천만원, 지방비 198억 4천만원으로 구성

[표 3-14]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개요

사업명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기간	2020.7월~2021.2월	
사업대상	시각예술가(팀)	
지원규모	인원	-
	지원규모	948억원
사업내용	유형별	창작지원형
	지원내용	-전국 규모의 다양한 유형의 미술활동으로 예술을 통한 지역공간 개선 활동을 공모 형태로 지원 -17개 광역지자체, 228개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기본적인 사업방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탄력적 운용 -유관기관 협력체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심의위원 및 전문가 Pool 제공, e-나라도움 안내센터 이용 연계, 공모정보 통합 홍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고용보험 · 산재보험 관련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 노무, 회계 등 컨설팅 지원
신청자격		-지자체별 상이

■ 코로나19 긴급 모금 프로젝트 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표 3-15] 코로나19 긴급 모금 프로젝트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코로나19 긴급 모금 프로젝트 지원(텀블벅, 카카오키아기치)	
사업기간	연 1회(3월~5월)	
사업대상	공연, 시각, 문학	
지원규모	인원	428명
	지원규모	1.5억원
사업내용	유형별	창작지원형
	지원내용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 및 개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모금 프로젝트 -프로젝트 목표 모금액의 50%를 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
신청자격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범주 내의 기초예술(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긴급 모금 프로젝트 지원(카카오키아기치) 선정 단체가 긴급 모금 프로젝트 지원(텀블벅) 중복 신청 불가

4) 일자리지원형

■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3차 추경예산을 편성 추진. 공연예술분야 주요 협 · 단체와 민간 공연단체, 예술인력 3자 간 공모 · 심사, 면접 · 채용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 약 3,000여 명의 공연예술분야 인력에 대해 월 180만원 수준의 5개월 근무 조건으로 공연단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

[표 3-16]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사업기간	연 1회(7월)	
사업대상	공연단체(개인)	
지원규모	인원	3,000여명
	지원규모	288억원(3차 추경)
사업내용	유형별	일자리지원형
	지원내용	-공연예술 현장 필요 예술인력(창작, 기획, 경영, 행정, 국제교류, 무대기술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등 각 분야 주요 협·단체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공연단체와 매칭하여 인력 파견 -공연단체가 채용절차를 통해 매칭 인력을 선발하고, 협·단체에서 고용계약 후 파견 근로 -개인별 월 180만원의 인건비 지원(근무기간 9월~'21년 1월)
신청자격		-민간 공연예술단체 및 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 계획이 있는 예술가 -예술인력은 예술단체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배우자, 직계가족, 4촌이내 친인척)가 없어야 함

[표 3-17]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개요

<사업추진체계>		<장르별 지원인력>			
<p>① 공모 및 심사, 모니터링 및 관리 ② 1차 선발 면접 및 오디션 ③ 2차 객격성 심사 후 최종 선발 ④ 채용 고용계약 체결 급여 지급 모니터링 및 관리 ⑤ 공연예술 활동 수행 ⑥ 공연예술 활동 결과보고</p> <p>※ 용어정의 • 협회 : 연극협회, 뮤지컬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 단체 및 개인 :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연 예술단체나 개인 • 예술인력 : 일제리를 의미하는 공연예술 현장 종사자</p>		구분	공연실연 인력 (86.7%)	공연지원 인력 (13.3%)	계 (100%)
		연극 (한국연극협회)	607명	93명	700명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260명	40명	300명
		음악 (한국음악협회)	866명	134명	1,000명
		전통 (전통공연예술 진흥재단)	520명	80명	600명
		무용 (한국무용협회)	347명	53명	400명
		계	2,600	400명	3,000명

■ 공연장 방역지킴이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장 방역지킴이 지원사업은 문체부가 3차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공연분야 예술인의 일자리 지원 성격 과 민간 등록 공연장의 방역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 (사)한국소극장협회가 공연 전후 방역 및 관객 안전관리, 공연시설 안전점검 등 관련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 력과 방역지킴이 인력이 필요한 민간 공연장을 매칭하여, 인건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
- 500명 미만 민간 등록 공연장에 한하여,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100명 미만 소형 공연장의 경우 최대 1명 등 총 537명의 공연장 방역지킴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

[표 3-18] 코로나19 관련 영화관 방역소독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공연장 방역지킴이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중 공모(7월부터)	
사업대상	민간 등록 공연장	
지원규모	인원	537명
	지원규모	31억원(3차 추경)
사업내용	유형별	일자리지원형, 방역지원형
	지원내용	-공연 전후 방역, 관객 안전관리, 공연시설 안전점검 등을 담당할 방역안전지킴이 인력을 직접 매칭하여 지원((사)한국소극장협회 주관) -방역안전지킴이는 월 160만원 주 6일, 1주 6시간 근무 조건으로 지원 -500석 미만 민간등록 공연장 당 2명 이내 신청(단, 100명 미만은 1명)
신청자격		-민간 등록 공연장(단,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공연장, 학교 및 소속단체 공연장,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 운영 공연장 등 제외) -방역안전지킴이 인력은 최근 1년 간 공연예술 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자에 한함

5) 방역지원형

■ 코로나19 관련 영화관 방역소독 지원사업(영화진흥위원회)

- 영화관 방역지원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전문 방역업체에 의한 방역소독 비용 지출 또는 자체 방역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

[표 3-19] 코로나19 관련 영화관 방역소독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코로나19 관련 영화관 방역소독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 2회(3월, 7월)	
사업대상	영화관	
지원규모	인원	-
	지원규모	11.2억원
사업내용	유형별	방역지원형
	지원내용	다음 두 지원항목 중 택1하여 지원신청 -전문 방역업체에 의한 방역소독 실시 후, 해당 업체에 비용 지급 -자체 방역을 위한 방역용품 지원
신청자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 등록된 상영업자로서,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영화관 상영허가를 받은 국내 영화관(법인 및 개인)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통합전산망과 연동 중인 상영관

■ 코로나19 영화제작현장 방역소독 및 감염예방 지원사업(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제작현장의 방역지원 일환으로 작품 당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열화상 카메라, 방역물품, 안전관리비 등 4가지 지원항목 내에서 비용 지원

[표 3-20] 코로나19 영화제작현장 방역소독 및 감염예방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코로나19 영화제작현장 방역소독 및 감염예방 지원사업	
사업기간	연중(4월~예산소진시까지)	
사업대상	영화제작사	
지원규모	인원	-
	지원규모	2억원
사업내용	유형별	방역지원형
	지원내용	-작품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방역 비용 지원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4가지 지원항목(영화촬영현장 방역소독 지원, 열화상 카메라 사용 지원, 방역소독 물품 지원, 촬영현장 안전관리비 지원) 자유롭게 활용 가능
신청자격		-현재 촬영 중에 있는 한국장편영화

6) 온라인지원형

■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으로 2020년 5월(1차)과 8월(2차) 총 24편의 지원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 1편은 출연배우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취소. 연중 2019년도 창작산실 지원작품 2개에 대해 추가적인 생중계 지원이 이루어져 총 25편이 지원됨
- 2020년 당초 사업예산 1억원에 2차 추경에서 3억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지원됨
-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으로 네이버TV와 V LIVE 플랫폼에 실황이 되었으며, 그 외 티켓료 보전과 공연 홍보지원, DVD, 결과물 아카이빙 지원이 포함됨

[표 3-21]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	
사업기간	연 2회(5월, 8월)	
사업대상	공연단체	
지원규모	인원	25편 지원(1~2차 포함)
	지원규모	4억원(2차 추경 3억원 포함)
사업내용	유형별	온라인지원형
	지원내용	-공연실황 생중계 : 네이버 플랫폼(네이버TV, V LIVE)을 통한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 -티켓료 보전 : 무관객 촬영 조건으로 공연장 규모에 따른 정액 지원 (소공연장 500만원, 중공연장 1,000만원, 대공연장 1,500만원) -공연 홍보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홍보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DVD 제공 : 영상(생중계 편집본, 사전 홍보, 하이라이트) 5식 -결과물 아카이빙 : 아르코예술기록원 운영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신청자격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 단체 -공연 상연일 기준 2020년 10월~2020년 12월 공연 가능 단체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Art Change UP)’(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3차 추경에서 편성된 사업으로 17개 광역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협업하여 149억원 사업 예산중 135억원을 광역재단이 직접 집행
-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예술콘텐츠의 멀티미디어화, 트랜스미디어 등 온라인 상에서의 비평, 창작, 조사연구

등에 대한 사업을 공모 형태로 진행

— 1인당 지원액 평균 450만원을 기준으로 재단별 여건에 맞게 사업 운영

— 지역별 총 사업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이 26.0%로 가장 많고, 경기(13.6%), 부산(6.0%) 등 순으로 나타남

○ 사업대상은 예술인(단체)로 국한하지 않고, 스타트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초예술을 주제로 온라인 예술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

— 광역재단별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세부 지원대상 및 분야가 상이한 경우 다수

[표 3-22]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Art Change UP)' 사업개요

사업명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아트 체인지업(Art Change UP)' 사업	
사업기간	2020년 8월부터 연중	
사업대상	기초예술(공연, 시각, 문학, 다원, 문화일반 등) 전 장르 예술가(단체) 및 스타트업·사회적기업 등	
지원규모	인원	지자체별 상이
	지원규모	149억(지역별 평균 163명씩 약 2,765명 지원)
사업내용	유형별	온라인지원형
	지원내용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을 통한 지원사업 -온라인미디어를 활용한 예술활동으로 동일 콘텐츠의 멀티미디어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등의 예술활동(온라인상에서의 사전 준비, 과정 공유, 예술방식 실험, 창작활동, 관객개발, 비평 연구, 아카이빙 등) 지원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비 지원 -창작, 비평, 조사·연구, 관객 개발 등을 위한 예술 소재 기반의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콘텐츠 제작 지원(세부 지원대상 및 분야는 지역 재단별로 상이)
신청자격		-온라인 미디어 창작·향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예술가(개인·단체·프로젝트팀, 기획자 포함),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표 3-23] 아트 체인지업 사업 지역별 배정 규모(백만원/%)

지역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전북	강원	광주	제주	세종
사업비	3,399	1,743	742	632	561	635	560	633	297
운영비	108	93	72	61	55	49	48	53	23
총 사업비	3,507	1,836	814	693	616	684	608	686	320
비중(%)	26.0	13.6	6.0	5.1	4.6	5.1	4.5	5.1	2.4
지역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계
사업비	552	360	561	424	408	363	380	393	12,442
운영비	44	36	49	41	40	34	17	34	1,058
총 사업비	596	396	610	465	448	397	397	427	13,500
비중(%)	4.4	2.9	4.5	3.4	3.3	2.9	2.9	3.2	100.0

■ 전통예술인 공연 실황·녹화 중계 지원((재)국악방송)

○ (재)국악방송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공연이 불가능한 전통공연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실황·녹화 중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추진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악무대 녹화 및 생중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 15~20여개 단체를 지원. 총 22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그 중 코로나19 악화로 사업 취소가 불가피한 4개 단체를 제외한 18개 단체 공연 지원

○ 국악방송 내 생중계 차량,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

여 추진됨. 전통공연 민간단체는 2020년 공연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후 타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공연 경력 등 포트폴리오 작성에 도움을 받음

[표 3-2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사업개요

사업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사업기간	연 1회(8월)	
사업대상	공연단체(전통)	
지원규모	인원	22개 단체 선정 후 18개 최종 지원(*4개 단체 코로나 악화로 취소)
	지원규모	국악방송 생중계 · 녹화 인력 · 장비 등 현물지원 및 예산 투입
사업내용	유형별	온라인지원형
	지원내용	-국악무대 공연실황중계 지원 -중계차를 활용한 녹화 및 SNS 생중계 -공연중계제작 및 국악방송 TV 편성(홈페이지 다시보기 포함)
신청자격		-2020년 09월~2020년 12월에 예정된 국악공연(60분 이상) 가능 민단단체

■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사업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 주요 내용은 온라인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내용 및 방식에 대한 기획안을 공모하고, 200건에 대해 제안 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 선정 기획안 중 우수 기획안 10건에 대해서는 영상제작 및 저작권료(100만원) 지급으로 1억원 예산 집행

[표 3-25]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사업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업개요

사업명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사업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사업기간	연 1회(3월)	
사업대상	개인, 단체	
지원규모	인원	200건(명/단체)
	지원규모	3억원
사업내용	유형별	온라인지원형
	지원내용	-온라인으로 활용 가능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1개 제안 당 100만 원 지원(2억원), 우수 기획안 10건 영상제작(1억원) -우수 기획안은 온라인 콘텐츠용 시나리오 작업 및 영상 제작 지원 -온라인 채널(문화포털, arte 라이브러리 등)에 게시하여 대민 서비스로 제공
신청자격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예술가, 예술강사, 단체 기획자·활동가 등)

■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지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 분야 학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세미나 지원. 학회당 450만원 범위에서 총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온라인 세미나를 위한 발제 · 토론비, 인쇄비, 진행비 등 지원

[표 3-26]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사업개요

사업명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온라인 세미나 지원	
사업기간	연 1회(8월)	
사업대상	단체(학회 등)	
지원규모	인원	10개
	지원규모	45,000천원
사업내용	유형별	온라인지원형
	지원내용	-문화예술교육 장르별(10개 분야) 유관학회 1개씩 총 10개 학회 선정 -온라인 세미나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발제 및 토론비, 세미나 진행, 인쇄비, 진행비 등) -한 학회당 4,500,000원 지원
신청자격		-문화예술교육 관련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학회 간 공동개최 가능(단, 2개 학회 이하로 구성)

3. 해외 사례²²⁾

가. 정책 대응 현황 및 분석

1) 예술지원 방향 및 대응체계

- 위기·변화 상황에 대응하는 예술지원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및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긴급 대응 및 후속 대응방안 마련
- 피해 복구 지원, 유동적 지원금 집행, 금융 지원, 코로나19 이후 대응책 마련 등 다양하고 대대적인 지원책이 마련됨
- 나아가 재난상황에서 문화예술과 동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함
 - 대표적인 예로 유네스코 레질리아트 운동(ResiliArt Movement)²³⁾과 가장 빠른 대응책을 제시한 독일, 국가 방역지침 발표 즉시 분야에 맞춰 유기적으로 대응한 영국(예술위 코로나19 ‘3단계 지원 방향’ 제시) 등이 있음
- 세계 각 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중앙/국가적 차원의 전담 컨트롤 타워가 신속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임
- 영국 디지털문화스포츠부(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이하 문화부)에서는 문화부 장관을 의장으로 ‘문화 쇄신 TF 및 실무그룹(Cultural Renewal Taskforce and Sector Working Groups)’²⁴⁾ 조직·운영
 - TF는 문화부 장관 및 부장관 5명,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8개 실무그룹은 각 부장관이 해당 그룹을 총괄하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
 - 영국 창조산업 분야를 위한 안전한 코로나19 지침을 개발하고, 코로나19 복귀를 위한 창의적인 솔루션 개발에 주력
 - 영국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기관 보호를 위해 15.7억 파운드(약 2조 4천억원) 투자 및 휴양 및 레저 환경

22) 한하경(2020). 예술지원 정책 관련 코로나19 대응 해외사례 조사·분석. 전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였음. 세부 내용은 본 보고서 참조.

23) 출처: <https://en.unesco.org/news/resiliart-artists-and-creativity-beyond-crisis>

24)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cultural-renewal-taskforce-and-supporting-working-groups#entertainment-and-events-members>

2)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공공·민간)

가) [지원금] 예술가·단체 지원 정책

■ 개인 예술가 및 소기업/자영업자 중점 지원책 마련

- 독일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20.3.23)으로 열악한 고용 및 경영환경에서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가 및 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중점 지원(추경 예산안(약 1221억 유로, 164.6조원))에 문화예술분야 지원 포함)
- 'New Start Culture(새로운 시작 문화)' 구호·미래기금을 발표하며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 강화, 코로나19 매출손실 보전, 3% 세율 인하 등 지원(2년간 10억 유로, 약 1.35조원)

[표 3-27] 독일 개인 예술가 및 소기업/자영업자 중점 지원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상세내용
총 예산	- 약 10억 유로(약1.35조원)	
지원 기간	- 2년(2020-2021)	
지원 항목	예술가와 딜러 대상 미술품 수집 지원 강화 등	
	-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투자	최대 2.5억 유로
	- 문화 인프라 강화	최대 4.8억 유로
	- 디지털, 문화 제안을 포함한 대안	최대 1.5억 유로
	- 코로나19 대유행 관련 매출 손실 및 연방정부 지원 기관 및 프로젝트의 추가 요구에 대한 보상	최대 1억 유로
	- 예술 부문 세율 3% 인하(19% → 16%)	-

자료출처: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보도기사 내용을 표로 재구성.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en/news/neustart-kultur-1761588>

- 이 외에도 기 선정자에 대한 지원금 지원 및 집행방식 수정 및 재편성으로 피해상황을 최소화하고 유연한 대처를 도움

나) [시설 가이드] 시설 운영 및 재개관 지원 정책

■ 분야별 세부 안전 가이드 수립 및 실증 연구 진행

-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이하 ICOM)는 박물관 보존/보안 강화 지침 및 재개관 준비 가이드를 제공하여 상황별 전 세계 박물관의 유연한 대응을 실질적으로 도움

[표 3-28] 국제박물관협회의 박물관 보존/보안 강화 지침 및 재개관 준비 가이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소장품 보존	- 일반 준수원칙, 전시운영 기본가이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소장고 및 업무 영역 가이드
박물관 보안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함께 마련한 보안지침 추가 강화 및 집행 권고안
관객 소통	-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원격 관객 참여 증진방안 및 대표 사례
커뮤니티 연계	-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지원을 위한 8단계 가이드
재개관	- 일반 관람객과 박물관 직원의 안전을 위한 재개관 지침 관람객의 도착에 대한 준비 관람객의 출입 : 방문자의 흐름에 적응, 건강 지침 강화, 필요시 일부 접근 제한 리셉션 및 보안 직원 청소 및 모조 지침 사무실 내 지침

자료출처: ICOM 홈페이지에서 내용 재구성 <https://icom.museum/en/covid-19/>

- 영국의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문화 쇄신 TF 및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공연예술 분야 ‘신규 가이드(New Guidance)’, 국립박물관장협의회 ‘박물관 재개관을 위한 모범 실행가이드(Good Practice Guidelines for Reopening Museums)’ 등을 발표하며, 재난상황 및 이후 상황을 단계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
- 안전한 공연 환경조성을 위한 과학적인 조건 검증을 위한 실증 연구 진행
 - 독일 Restart-19가 대표적이며, 공연장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성 실험을 위해 실제 공연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함
 - 안전 수칙 및 조건 준수 시 유행병에 대한 추가 영향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함.(단, 적절한 환기 필수)

다) [신규 사업] 대안적 신규 예술지원 정책(예술과 기술 등)

■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온라인 창작 및 콘텐츠 플랫폼 지원

- 코로나19로 루브르박물관 등 대표 박물관 및 갤러리 중심 온라인 전시 플랫폼 구축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며, 집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각국별 문화예술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구축·제공이 새롭게 부상함
 - 약 1000여개 이상의 전시, 공연 등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랑스 ‘집에서 즐기는 문화 (#Culturechezvous)’²⁵⁾가 대표적인 사례
-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창작과 국제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가상/증강/확장현실 기술을 접목한 영국문화원의 디지털 협력 기금(Digital Collaboration Fund)²⁶⁾이 2021년 새로 발표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① 연구개발/ ② 온라인·실감기술 접목 신규 협력/ ③ 재도약 지원금 지원 트랙을 마련함
- 그 밖에 예술분야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 영국예술위의 디지털 컬처 네트워크(Digital Culture Network)²⁷⁾가 있음
- 이 외에도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인류가 직면한 한계상황을 문화예술과 연계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신규 정책을 추진함

25) 출처: <https://www.culturechezvous.gouv.fr>

26) 출처: <https://www.britishcouncil.org/arts/digital-collaboration-fund>

27) 출처: <https://www.artscouncil.org.uk/developing-digital-culture/digital-culture-network>

- 코로나19로 상시 재난상황이 예측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음
 - 일례로, EU에서는 예술의 미학을 중심으로 하는 신유럽 바우하우스(The New European Bauhaus)²⁸⁾ 정책 발표

라) [네트워크] 상호소통 및 협력 강화 지원 정책

■ 코로나19 대응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 예술가/분야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적응 및 대응하고, 상호간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전용 플랫폼을 신속하게 구축함
 - EU Creative Unite 사이트²⁹⁾, 영국예술위 Covid-19 Support 온라인 게시판³⁰⁾ 등이 있음

마) [정책 분석·평가] 설문 및 연구·조사 활동

■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영향 및 파급효과 평가·분석

- 예술가/분야 대상 피해현황 조사 및 대안 모색
- 관객 대상 예매 현황 및 복귀 조건 /시점 조사
- 코로나19 시대 문화예술의 역할과 미래 방향 모색에 대한 다양한 조사·연구, 온라인 토론회 등 진행

[그림 3-2]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영향 및 파급효과 평가·분석 보고서 예시



바) [정책 공유·확산] 예술의 중요성 및 역할 관련 인식 확산 캠페인

■ 예술의 가치 확산 캠페인 및 축제 개최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서도 예술작품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예술가의 면모와 그 작품세계를 살펴보는 WHO x Create2030 COVID-19 Arts Festival³¹⁾을 온라인으로 개최, 축제 이후에도 온라인 갤러리를 상설화함

28) 출처: https://europa.eu/new-european-bauhaus/index_en

29) 출처: <https://creativesunite.eu/>

30) 출처: <https://www.artscouncil.org.uk/covid19>

31) 출처: <https://www.who.int/campaigns/connecting-the-world-to-combat-coronavirus/together-at-home>

- 이 외에도 미국 민간 예술단체 Americans for the Arts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 인식 확산을 위한 ‘예술이 희망을 만듭니다(#ArtsCreateHope)’ 해시태크 캠페인³²⁾ 전개

■ 예술분야 긴급지원 촉구 선언 및 캠페인, 온라인 포럼 전개

-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긴급지원 촉구 성명이 속속 발표됨
- ICOM에서는 ‘박물관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호기금 할당 필요성’ 성명³³⁾을 신속히 발표('20.04), 전 세계 정책 의사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위기에 처한 박물관에 긴급 구호기금 지원을 촉구함
- 유럽공연예술회의(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에서도 ‘예술계 구조: 국가 정부를 향한 성명’³⁴⁾을 발표하며('20.04), 공연예술 분야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각국의 긴급예산 지원을 촉구함
- 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분야별 온라인 포럼 및 토론회 다수 개최

4. 시사점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총 4차에 걸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시도

■ 이 중 3차 추경 외에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부족

- 1차 추경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 방역체계 강화와 대구·경북 등 피해심각지역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을 골자로 예산이 편성
 -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는 방역체계 강화에 추경예산을 대폭 투입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비위축에 직격탄을 맞는 업종과 피해심각지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유동성 공급, 소비진작, 고용유지 지원을 전개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1차 추경에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음
- 2차 추경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단일사업 편성.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내외 행사 예산 329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문화예술계에 일부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
 - 2차 추경의 지출구조조정 내역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행사 예산 약 329억 원을 구조 조정함
 - 이 가운데는 문화예술계 행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부문 문화예술행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됨
 -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별도 논의가 없었음
- 3차 추경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이 다수 포함되면서 예술계 피해에 대한 반대급부와 버티기 지원이 이루어짐
 - 전체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 중 일자리 지원사업이 67.5%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창작지원 15.5%, 소비 진작 13.2% 순으로 나타남
 - 3차 추경에서는 문화예술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수 포함. 전체 1,596억원 중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이 1,078억원(67.5%)으로 가장 많았고, 창작지원이 248억원(15.5%), 소비 진작이 211억원(13.2%)을 차지

32) 출처: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by-topic/disaster-preparedness/artscreatehope>

33) 출처: <https://icom.museum/en/covid-19/advocacy/statement-on-the-necessity-for-relief-funds>

34) 출처: <https://www.ietm.org/en/rescue-the-arts-plea-to-national-governments>

- 일자리 지원과 창작지원은 사업 바로 시장에 투입이 되었으나, 소비 진작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10월이 돼서야 사업이 전개되었으며, 이 역시 관람객 동원에 실패하여 판매가 저조, 비판 여론이 있었음
-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문화예술분야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예술계에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
 - 직접적으로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예술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이 3차 추경의 공공DB 구축사업에 포함되어, 33억원이 증액되었고, 310명의 일자리 창출 추정
 - 비대면 산업 육성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교육부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등 예술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
 - 데이터 구축·개방 활용에서는 공공 DB를 활용한 예술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등 예술계 적용 모색 필요
- 그 외 공연·전시 작품의 비대면 서비스 등 한국판 뉴딜이 예술계에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략방향 설정 및 예산확보 노력 필요
- 4차 추경에서는 예술계가 직접 수혜대상은 아니었으나, 긴급경영안정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을 통해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예산이 편성됨
 - 다만, 새희망자금 등 일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술단체의 업태·업종이 포함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가 나타남
 - 4차 추경에서는 직접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간접적인 수혜 사업이 다수 존재. 긴급경영안정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해당됨.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프리랜서 근로형태가 많은 예술가들이 수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으로 100~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술분야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단체(업태)가 많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있을 것으로 예상
 - 추후 코로나 확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연장·전시장과 관련 예술단체를 집합금지업종 피해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필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기구, 주요국의 정책대응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섯 가지 부문의 시사점을 도출
-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기간별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함
 - 우선 단기 긴급 지원 대책으로 예술가/단체 대상 신속한 긴급 지원책이 마련됨
 - 분야 피해 현황 조사로 예술현장의 위기인식을 공유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유연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술계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줌
 - 특히 코로나19 전후 위기 단계별 대응 가이드 마련 및 최신 정책정보 제공으로 예술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에 도움을 줌
 -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춘 지원사업 유형이 새롭게 제시되는 상황
 - 중·장기 지원 방안의 마련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 대상 피해현황 파악 연구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한 문화예술 고용·창작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중·장기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및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와 관련한 각국별 구체적인 긴급 지원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중장기 협력 및 국가를 초월한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고 있음
-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함

- 국제기구 및 국가를 중심으로 예술의 가치에 주목하며 주목 문화예술의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일관적인 메시지를 지속 발신함
- 중앙 주도 위기대응 협력 네트워크 체계 운영
 - 중앙 위기대응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함으로써 영향력과 네트워크 체계를 겸비한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 후속 대응책 마련
- 문화예술 분야별 세부 대응 가이드 마련함으로써 위기대응 체계 중심 세부 대응 가이드 적시
 - 분야/시설/대상별(예술가, 스태프, 관객 등) 세부 대응 가이드 제공으로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정상화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
 - 보다 과학적인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공연 요건 마련을 위해 공연장 실증 연구도 진행함
- 뉴노멀 시대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체질개선 및 차세대 수요 대응
 - 디지털 기술과 예술 융복합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연계 창작/플랫폼 및 기술역량 강화 지원 신규 확대
 - 예술가/예술분야 디지털 역량 함양을 통한 미래 대응력 재고에 중점 지원을 늘리고 있음
 - 주요 주체로서 관객의 역할 재조명
 -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공간 폐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로서 관객의 중요성에 더욱 주목하는 추세임
 - 관객 재방문 조건 및 시기 예측을 위해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관객 대상 설문조사를 여러차례 실시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함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타분야 연계 선순환적 예술정책 신규 모색 강화
 -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성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타 분야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에 일조하는 새로운 예술정책 모색이 시도됨
 - 한편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에 예술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짐

IV. 코로나19 피해 실태 및 인식조사

1. 개요

가. 조사배경

- 코로나19 발생으로 문화예술계 피해가 누적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예술현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 규제 위주의 강력한 방역 조치로 공연·전시 등 문화시설 휴관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겪음
- 한국예총은 20년 1월~4월까지 문화예술계 피해액을 약 600억으로 추정 발표했으며³⁵⁾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0년 상반기 공연업계의 매출액 감소를 약 2,874억원으로 추정³⁶⁾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활동의 감소 동향과 정도, 이로 인한 예술계와 향유자의 피해인식,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니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미흡
-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양상과 정책대상자의 니즈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개 분야 현황조사와 2개 분야 인식조사를 추진
- 첫째, 2020년 문화시설 운영현황을 조사, 전년대비 문화예술활동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부문의 피해양상 및 특징을 파악
- 둘째, 문화예술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예술인과 관람객 대상 인식조사는 코로나19발생 이후 문화예술활동 양상과 의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 대응정책을 모색하는데 활용
 - 예술생태계의 주요 주체로서 예술인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양상과 대응현황,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니즈를 파악
 - 예술생태계의 주요 주체로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시행,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술향유 변화 동향, 오프라인 예술활동 복귀 시기와 조건, 대안적 활동(온라인 등) 의향 등을 파악

나.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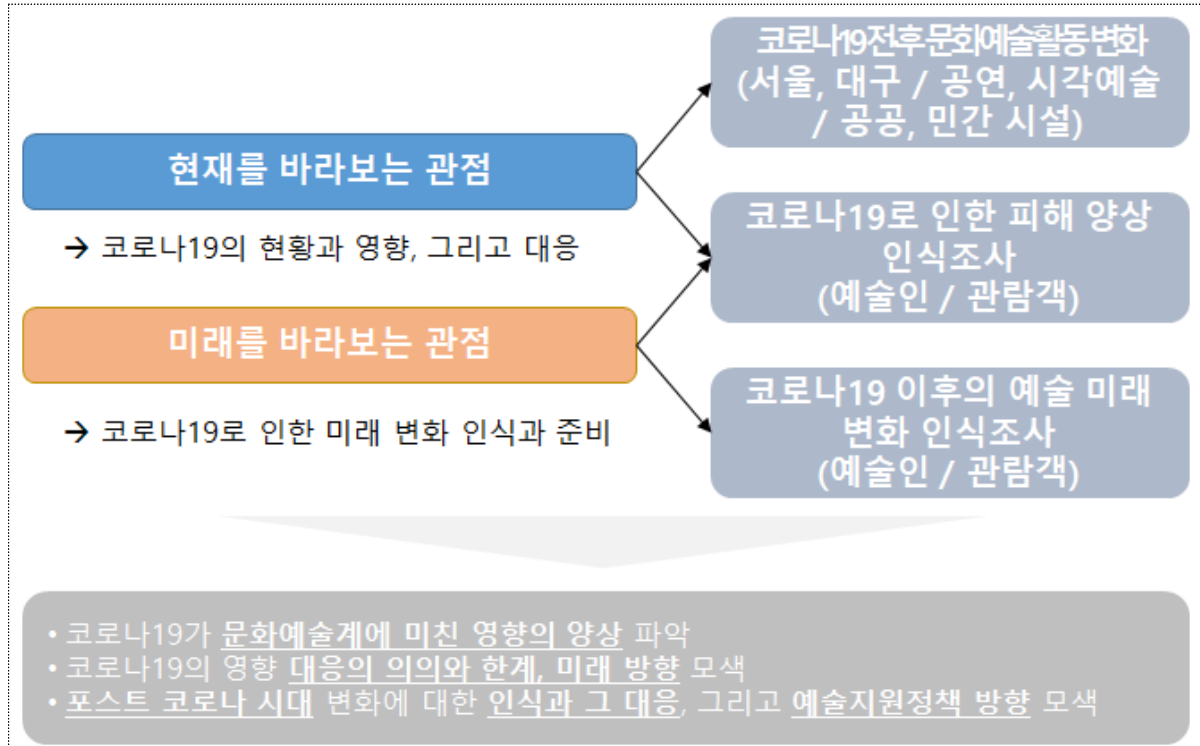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분야 피해실태 및 인식조사는 다음과 같은 Framework로 구성함
- 코로나19에 대한 문화예술분야의 피해 실태를 현재의 관점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구분
- 현재의 관점은 피해현황과 피해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승인통계인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를 통하여 2020년도 상반기 문화예술활동(공연/시각) 현황 파악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사업 대상자(예술인 및 단체)와 문화예술 향유자(관람객)에 대한 경제적 피해, 예술활동, 신체적·심리적 피해 양상 인식조사 실시
-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예술인과 관람객의 피해 대응 방식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

35) 한국예총, 「코로나19 사태가 예술계 미치는 영향과 과제」 (2020.3.18.)

36) 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보고서」 (2020.5)

도출을 시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그림 4-1]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분야 피해 실태 및 인식조사 framework



1) 코로나19 전·후 문화예술활동 변화

■ 조사목적

- 문화예술활동 변화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규모를 추정하는 선행연구의 근거를 제공하고, 특히 활동변화의 양상과 정도를 통해 재난시기 문화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이를 위해 예술 활동이 가장 활발한 서울 지역과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대구 지역의 최근 3년 간 상반기 문화예술 활동을 집중 분석하여 위축 상황 판단

■ 조사범위 및 방법

[표 4-1] 2020년 상반기 문화예술활동 현황 조사설계

구분	항목
시간적 범위	•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 (1월 1일~6월 30일)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우리나라 공연전시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코로나19 전후 공공민간 활동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 대구광역시: 2020년 2월 대구에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상반기 시도별 확진자 최대 규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강력하게 추진된 지역의 특징을 측정하기에 적합
내용적 범위	• 오프라인) 지역별운영주체별 공연예술 건수 및 횟수 / 시각예술 전시 건수
모집단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 제공 전국 문예회관 • 2015~2019 문예연감에 포함된 전시장, 공연장
조사방법	• 공간(공연장, 전시장)을 기준으로 한 온라인 조사
조사 수행기관	• 조사수행: (주)리서치팩토리

2) 예술인 인식조사

■ 조사목적

- 코로나19 이후 예술생태계의 변화양상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종식 시기 및 예술활동 재개예측’,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변화 인식’, ‘코로나19 이후 예술지원 정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조사

■ 조사범위 및 방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신청 예술인(‘18년~’20년) 대상으로 4단계를 거쳐 6,264명의 모집단을 선정
 - 1단계: raw data 구성하여 2018년~2020년 동안의 지원사업 신청 단체, 개인 리스트 작성
 - 2단계: 조사에 부적절한 지원사업은 제외 (ex. 통합문화이용권, 지정교부사업, 축제지원사업)
 - 3단계: 신청단체 중 기준 부적합한 데이터 제외(ex. 지자체, 자료원, 연구회, (지역)재단 등 키워드 제거)
 - 4단계: 리스트 내 중복값 제외함

[표 4-2] 코로나19대응 예술현장의 위기인식: 예술인 부문 조사설계

구분	항목
조사대상	• 전국 예술인
표본 수	• 1,145명
표본추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신청자 표본 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0%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26일
조사 수행기관	• 조사 설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 조사 수행: (주)케이스탯리서치

3) 관람객 인식조사

■ 조사목적

-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화예술향유 양상과 의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준비
- 코로나19 이후 예술향유의 변화 동향, 오프라인 공간으로의 복귀 시기와 조건, 대안적 활동(온라인, 야외 등)에 의향 등 향유자 관점에서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예술생태계 대응방안 모색에 활용

■ 조사범위 및 방법

- 기초예술행사의 관람 및 참여로 한정, 신속하고 유의미한 데이터 개발을 위해 조사대상을 적극적 향유자 개념으로의 ‘관람객’으로 설정³⁷⁾

[표 4-3] 코로나19대응 예술현장의 위기인식: 관람객 부문 조사설계

구분	항목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예술향유자(관람객)
표본 수	• 1,000명
표본추출	• 시·도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3.10%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주)케이스탯리서치 패널 활용)
조사기간	• 2020년 10월 14일 ~ 2020년 10월 26일
조사 수행기관	• 조사 설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 조사 수행 : (주)케이스탯리서치

2. 조사결과

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실태

1) 창작·유통(매개)·향유 부문에서의 문화예술활동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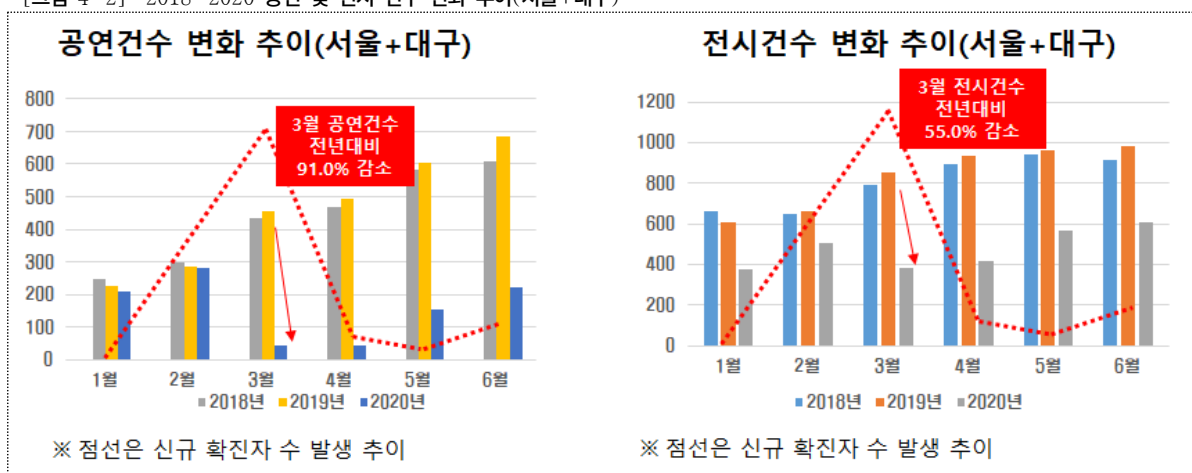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문화예술분야의 다양한 피해규모 추정 조사가 시행되었으나, 객관적으로 감소폭을 측정하는데 한계를 노정³⁸⁾ 본 조사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³⁹⁾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문화예술활동의 양적 변화를 파악

37) ‘관람객’은 연평균 기초문화예술활동 향유 횟수와 향후 여가활동 분야에 대한 의향을 중심으로 스크리닝하였으며,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를 기준을 설정.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0), 「코로나19대응 예술현장의 위기인식 실태조사」 참고.

38) 해당 조사들은 예술계 피해규모를 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영역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예술인/단체의 표본을 추출하여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피해규모를 추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임

39) 해당 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제433001호)이며, 한 해 동안의 국내 문화예술활동 전체를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예술활동 증감에 대해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림 4-2] 2018-2020 공연 및 전시 건수 변화 추이(서울+대구)



-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상반기(1~6월) 서울과 대구 지역의 공연 및 전시건수를 보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3월 전년대비 각각 91.0%, 55.5% 감소
- 이후 4~6월 기간 동안 공연 및 전시 건수의 전년대비 감소세는 줄어들고 있었으나 8월 2차 대유행, 12월 3차 대유행 기간 동안 문화예술활동이 잇따라 취소·연기되어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심각

[표 4-4] 운영주체별 전년대비 공연 및 전시 건수 증감현황

(단위 : %)

	공연			전시(시각예술)		
	전체 (공공+민간)	공공운영	민간운영	전체 (공공+민간)	공공운영	민간운영
전체(서울+대구)	-59.6	-68.8	-44.3	-42.9	-63.9	-34.9
서울	-55.2	-66.0	-39.6	-42.0	-65.9	-36.5
대구	-80.6	-80.7	-76.6	-68.4	-73.4	-58.5

-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주체별로 전년대비 공연 및 전시 건수는 전체 약 60%, 43% 감소
 - － 운영주체별로는 공연과 시각예술 모두에서 공공(운영) 시설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전년대비 공연 건수 80.7%, 전시 건수 73.4%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
 - － 이를 통해 초청, 기획, 대관 공연 등 취소로 예술가(단체)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임을 예측 가능
- 문화시설의 잇따른 휴관과 창작유통활동에의 제약 등으로 향유자의 문화예술활동이 상당히 위축. 코로나19 이후 관람객의 예술활동은 전체 응답자의 76.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4-3]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평균 관람 횟수가 3회 이상인 그룹(80.4%)에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감소 이유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자발적 감소가 90.1%, 이용가능 공간의 제약 때문이라는 외부요인에 의한 감소가 88.2%,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코로나19 이후 관람객 예술활동 변화 추이 및 감소 이유



- 본 조사가 시행된 2020년 10월 시점의 대면 문화예술활동 티켓 예매 동향을 살펴본 결과 72.2%의 응답자가 예매한 바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27.8%의 응답자는 티켓을 예매한 것으로 나타남
- 대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티켓을 예매한 27.8%의 응답자 중 40.3%의 응답자는 2020년 11월에 이루어질 예술활동을 위한 티켓을 예매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당시 시점으로 1~3개월 이내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티켓을 예매한 응답자는 총 73.7%이었으나, 2020년 12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많은 수의 예술활동이 취소·연기되었을 것임을 예측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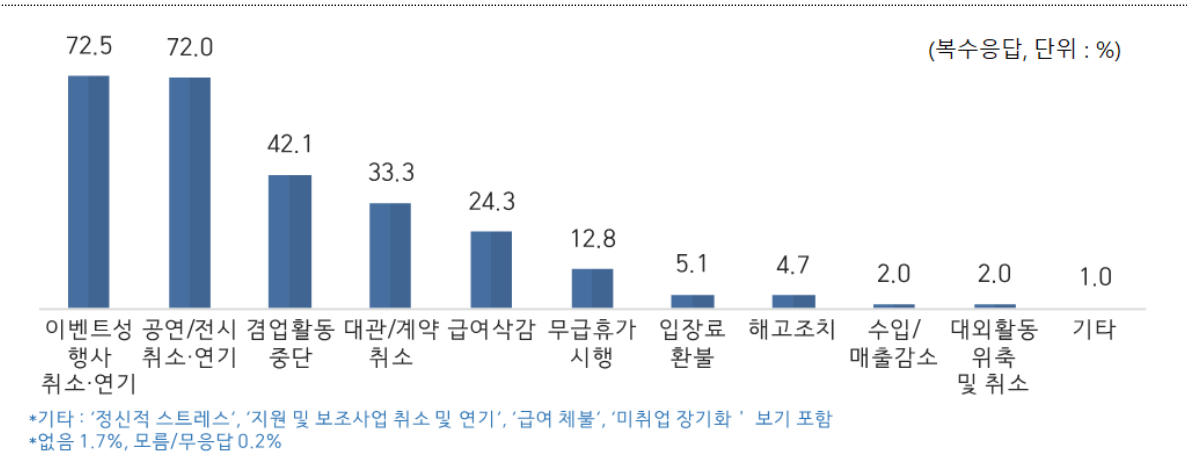
[그림 4-4] 대면 문화예술활동 티켓 예매 동향(2020.10월 현재)



2)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현장 피해양상과 대응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활동의 양적 감소가 예술인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제부문, 예술 활동부문, 신체적·심리적 부문으로 구분하여 피해양상과 대응을 살펴봄

[그림 4-5]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양상(예술인)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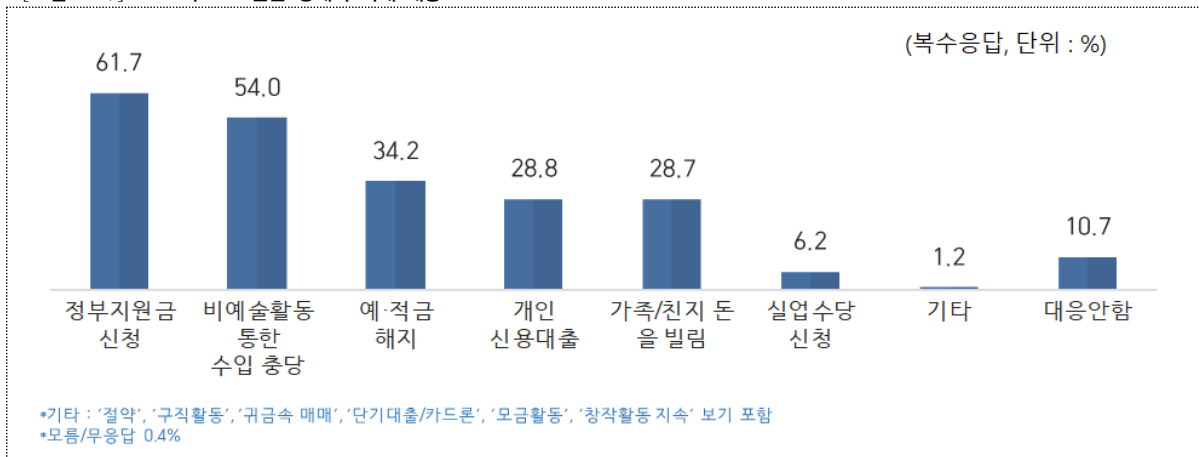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이벤트성행사 취소·연기	공연/전시 취소·연기	겸업 활동 중단	대관/계약 취소	급여 삭감
전체	(1,145)	72.5	72.0	42.1	33.3	24.3
연령	20대	(90)	67.8	82.2	38.9	35.6
	30대	(349)	75.9	80.2	42.1	34.1
	40대	(257)	76.7	82.5	47.5	42.0
	50대	(244)	70.5	62.7	40.6	26.2
	60대 이상	(205)	65.9	51.2	38.5	28.3
활동분야	문학	(345)	64.3	37.7	39.1	18.0
	시각	(229)	70.3	77.3	44.5	33.2
	연극	(209)	73.2	92.3	41.1	40.7
	무용	(69)	78.3	91.3	53.6	42.0
	음악	(249)	87.1	90.4	43.8	52.2
	전통	(106)	85.8	91.5	51.9	40.6
	뮤지컬	(76)	80.3	97.4	50.0	48.7
	다원	(113)	85.0	83.2	45.1	37.2
전업 예술가 여부	기타	(50)	74.0	82.0	30.0	30.0
	예	(756)	76.1	77.5	44.3	35.1
	아니오	(389)	65.6	61.2	37.8	29.8
						19.5

■ [경제적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행사 취소·연기(72.5%), 공연/전시 취소·연기(72.0%) 등 직접적 예술활동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겸업활동 중단(42.1%), 급여삭감(24.3%)에서도 피해가 발생

○ 경제적 피해 양상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 20~40대 연령층에서 공연/전시 취소·연기의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30~40대는 이벤트성 행사 취소·연기 비율도 각각 75.9%, 76.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전업여부에 따라, 비전업 예술가보다 전업 예술가의 문화예술활동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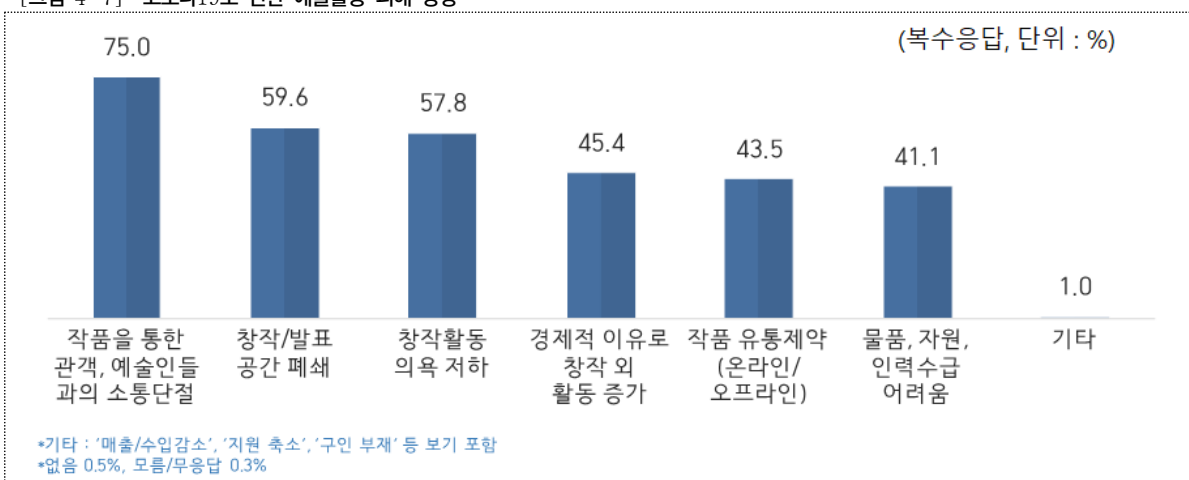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정부 지원금 신청	비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총당	예·적금 해지	개인 신용대출
전체		(1,145)	61.7	54.0	34.2	28.8
연령	20대	(90)	80.0	64.4	32.2	16.7
	30대	(349)	71.6	64.5	34.1	27.5
	40대	(257)	68.5	57.2	36.6	36.2
	50대	(244)	51.2	45.5	34.8	30.7
	60대 이상	(205)	41.0	37.6	31.7	24.9
활동분야	문학	(345)	41.7	44.6	27.0	18.3
	시각	(229)	71.2	62.0	31.9	25.3
	연극	(209)	79.4	67.0	31.1	33.0
	무용	(69)	56.5	63.8	43.5	37.7
	음악	(249)	67.5	55.4	45.0	35.3
	전통	(106)	64.2	60.4	38.7	44.3
	뮤지컬	(76)	80.3	60.5	42.1	43.4
	다원	(113)	68.1	58.4	28.3	38.9
	기타	(50)	64.0	50.0	40.0	34.0
전업 예술가 여부	예	(756)	66.9	56.9	37.7	33.7
	아니오	(389)	51.7	48.3	27.5	19.3

- [경제적 피해 대응] 경제적 피해 대응으로 정부지원금 신청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61.7%), 비예술활동(54.0%), 예·적금 해지(34.2%), 개인 신용대출(28.8%) 등 개인적 자구책 모색이 강하게 나타남
- 경제적 피해 대응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부지원금이나 비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총당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아졌으며, 비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총당은 연극(67.0%), 무용(63.8%), 시각(62.0%)의 순으로 나타남
 - 전업예술가의 경우, 정부지원신청 66.9%, 비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총당 56.9%, 예·적금 해지 37.7%, 개인 신용대출 33.7%로 전체 평균 대비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4-7]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피해 양상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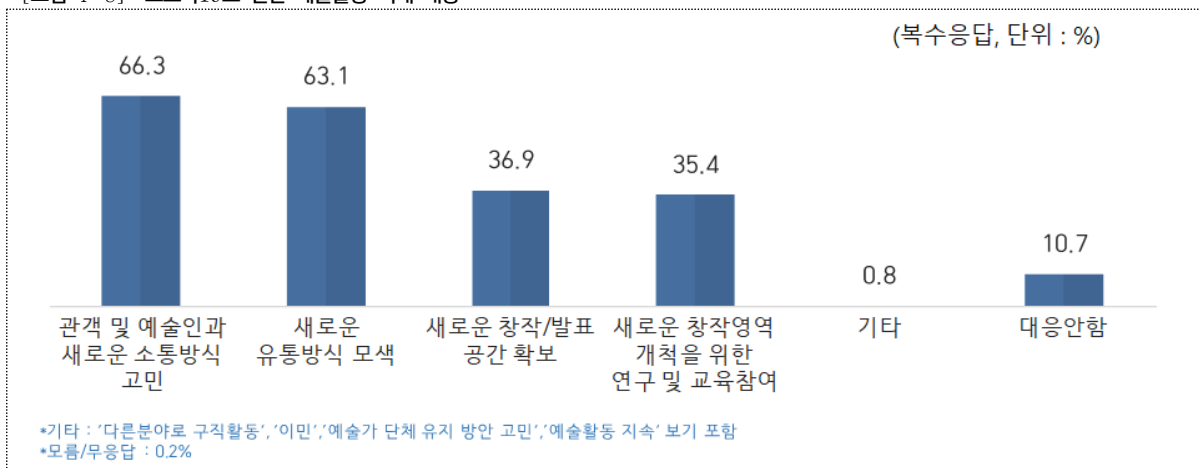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관객 및 예술인들의 소통 단절	창작/발표 공간 폐쇄	창작활동 의욕 저하	경제적 이유로 창작 외 활동 증가
전체	(1,145)	75.0	59.6	57.8	45.4
연령	20대	(90)	82.2	61.1	55.6
	30대	(349)	73.4	64.2	59.0
	40대	(257)	75.1	68.9	56.8
	50대	(244)	76.2	54.5	54.9
	60대 이상	(205)	73.2	45.4	61.5
활동분야	문학	(345)	68.1	43.8	55.9
	시각	(229)	73.8	63.8	45.0
	연극	(209)	78.0	67.9	63.2
	무용	(69)	81.2	78.3	58.0
	음악	(249)	82.3	68.3	61.8
	전통	(106)	82.1	67.0	67.9
	뮤지컬	(76)	80.3	71.1	56.6
	다원	(113)	75.2	69.9	55.8
전업예술가 여부	예	(756)	78.6	64.2	61.9
	아니오	(389)	68.1	50.6	49.9

■ [예술활동 피해] 예술활동 피해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작품을 통한 관객, 예술인들과의 소통 단절 (75.0%)이며, 이어 창작/발표공간 폐쇄(59.6%), 창작활동 의욕 저하(57.8%)의 순임

○ 예술활동 피해 양상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를 보면,

- 관객 및 예술인들과의 소통 단절 항목의 경우 20대에서 82.2%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3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응답율을 보임. 연령별 각 항목 응답 비율에서 특징적인 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창작외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임
- 활동분야별로 보면, 대체로 공연예술분야[연극(78.0%), 무용(81.2%), 음악(82.3%), 전통(82.1%), 뮤지컬 (80.3%)]가 관객 및 예술인들과의 소통 단절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업 예술가의 예술활동 피해 정도가 비전업 예술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8]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피해 대응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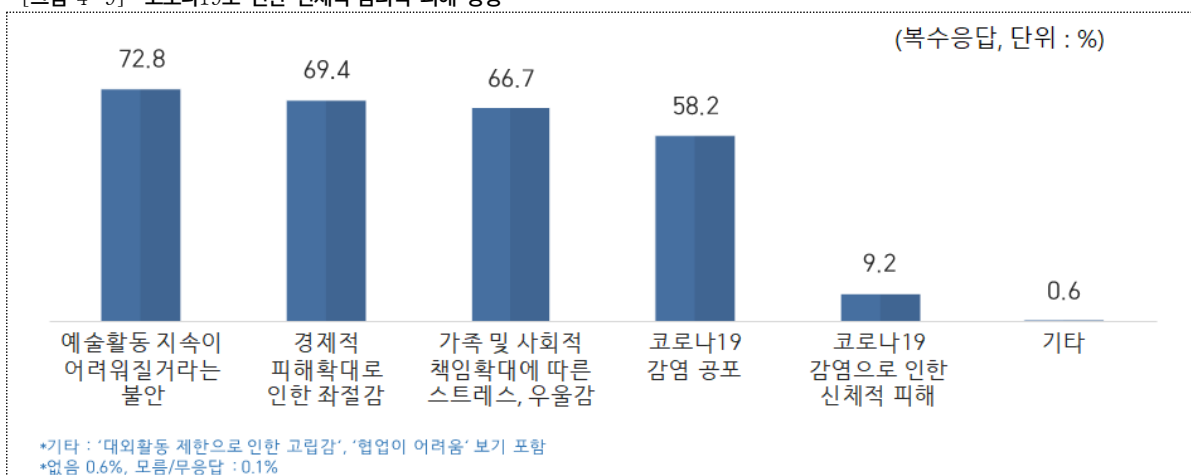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관객 및 예술인과 새로운 소통방식 고민	새로운 유통방식 모색	새로운 창작/ 발표공간 확보
전체		(1,145)	66.3	63.1	36.9
연령	20대	(90)	65.6	75.6	40.0
	30대	(349)	70.5	71.9	41.5
	40대	(257)	72.8	64.2	40.1
	50대	(244)	65.2	56.6	32.4
	60대 이상	(205)	52.7	48.8	28.8
활동분야	문학	(345)	49.0	48.4	34.2
	시각	(229)	76.0	69.9	36.7
	연극	(209)	76.6	70.8	39.2
	무용	(69)	76.8	75.4	37.7
	음악	(249)	74.7	69.5	42.6
	전통	(106)	71.7	71.7	40.6
	뮤지컬	(76)	72.4	69.7	39.5
	다원	(113)	76.1	77.0	40.7
	기타	(50)	70.0	76.0	30.0
전업예술가 여부	예	(756)	69.4	64.2	39.3
	아니오	(389)	60.2	60.9	32.1

- [예술활동 피해 대응] 예술활동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객 및 예술인과 새로운 소통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유통방식의 모색(63.1%), 새로운 창작/발표 공간의 확보(36.9%), 새로운 창작영역 개척을 위한 연구 및 교육참여(35.4%)의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임

○ 예술활동 피해에 대한 대응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결과,

- 연령별 응답자 분석에서 새로운 유통방식 모색을 통해 예술활동 피해를 대응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다는 특징이 나타남
- 활동분야별 응답자 분석에서는 문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관객 및 예술인과 새로운 소통방식 고민, 새로운 유통방식 모색에서 전체 평균 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전업예술가의 경우 관객 및 예술인과 새로운 소통방식 고민(69.4%), 새로운 유통방식 모색(64.2%), 새로운 창작/발표공간 확보(39.3%) 모두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그림 4-9]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피해 양상



(복수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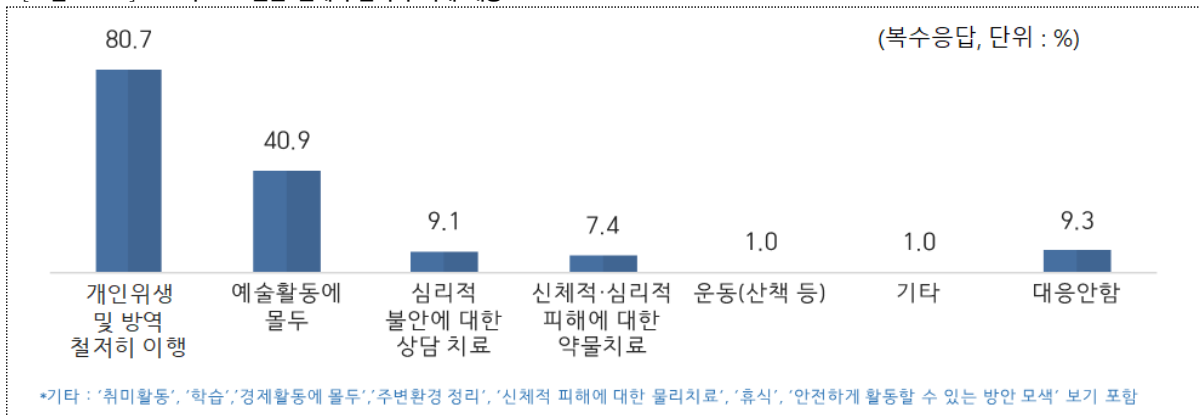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술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	경제적 피해 확대로 인한 좌절감	책임 확대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감
전체	(1,145)	72.8	69.4	66.7
연령	20대	(90) 90.0	75.6	61.1
	30대	(349) 80.5	75.4	61.3
	40대	(257) 75.1	72.8	69.3
	50대	(244) 64.3	68.9	69.7
	60대 이상	(205) 59.5	53.2	71.7
활동분야	문학	(345) 53.3	52.2	68.4
	시각	(229) 68.1	72.5	59.8
	연극	(209) 89.0	78.5	66.5
	무용	(69) 76.8	78.3	71.0
	음악	(249) 86.3	80.7	71.5
	전통	(106) 80.2	84.0	71.7
	뮤지컬	(76) 96.1	82.9	68.4
	다원	(113) 70.8	72.6	60.2
	기타	(50) 62.0	68.0	62.0
전업 예술가 여부	예	(756) 79.2	75.4	66.5
	아니오	(389) 60.4	57.8	67.1

■ [신체적·심리적 피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피해 양상 조사결과 예술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72.8%), 경제적 피해확대로 인한 좌절감(69.4%), 가족 및 사회적 책임확대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감(66.7%), 코로나19 감염공포(58.2%)의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피해 양상 조사결과를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 20~40대에서 예술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는 90.0%의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20~40대는 경제적 피해확대로 인한 좌절감 또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40~60대 이상 계층에서는 책임 확대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감의 항목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예술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 항목은 연극(89.0%), 무용(76.8%), 음악(86.3%), 전통(80.2%), 뮤지컬(96.1%) 분야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 확대로 인한 좌절감은 문학, 기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전업예술가의 경우 예술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79.2%로 전체 평균보다 높음

[그림 4-10]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피해 대응



(복수응답, 단위 : %)

구분	사례수	개인위생 및 방역 철저히 이행	예술 활동 더욱 몰두	심리적 불안에 대한 상담 치료	신체적·심리적 피해 약물치료	
전체	(1,145)	80.7	40.9	9.1	7.4	
연령	20대	(90)	81.1	40.0	10.0	10.0
	30대	(349)	80.8	37.2	13.5	7.4
	40대	(257)	78.6	37.0	7.0	7.8
	50대	(244)	79.5	42.6	7.0	4.5
	60대 이상	(205)	84.4	50.2	6.3	9.3
활동분야	문학	(345)	80.9	43.8	7.8	8.7
	시각	(229)	84.7	39.3	7.4	5.7
	연극	(209)	79.4	40.2	11.5	7.2
	무용	(69)	85.5	47.8	15.9	5.8
	음악	(249)	82.7	41.4	8.0	8.4
	전통	(106)	75.5	37.7	10.4	10.4
	뮤지컬	(76)	81.6	40.8	6.6	6.6
	다원	(113)	77.0	39.8	9.7	4.4
	기타	(50)	66.0	40.0	4.0	4.0
전업예술가 여부	예	(756)	80.3	44.6	9.4	7.3
	아니오	(389)	81.5	33.7	8.5	7.7

■ [신체적·심리적 피해 대응] 코로나19로 발생한 신체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응답은 개인 위생 및 방역 철저히 이행이 80.7%, 예술활동에 몰두 40.9%, 심리적 불안에 대한 상담치료 9.1%, 신체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약물치료 7.4%의 순으로 나타남

○ 신체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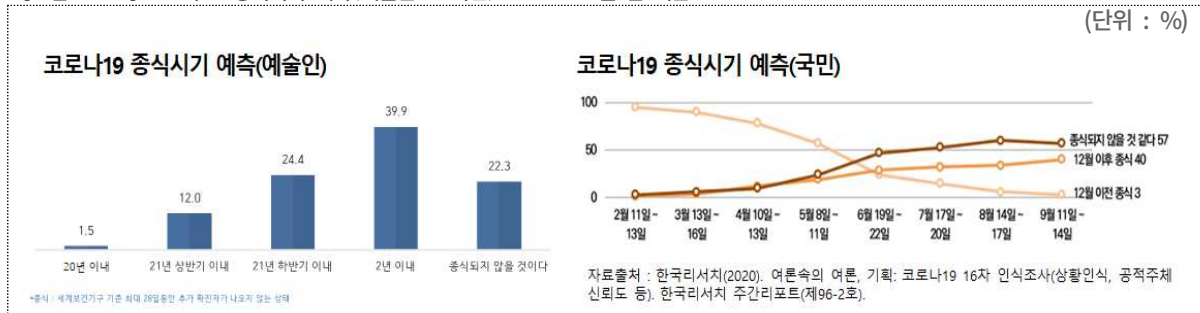
- 60대 이상의 계층에서 개인위생 및 방역 철저히 이행, 예술활동에 더욱 몰두, 약물치료 등의 항목에서 다른 계층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비전업 예술가의 경우 개인위생 및 방역 철저히 이행 항목에 대해서 81.5%로 전업 예술가(80.3%)보다 근소하게 높은 비율을 보임

나. 코로나19 종식과 향후 문화예술활동

1) 코로나19 종식과 문화예술활동 재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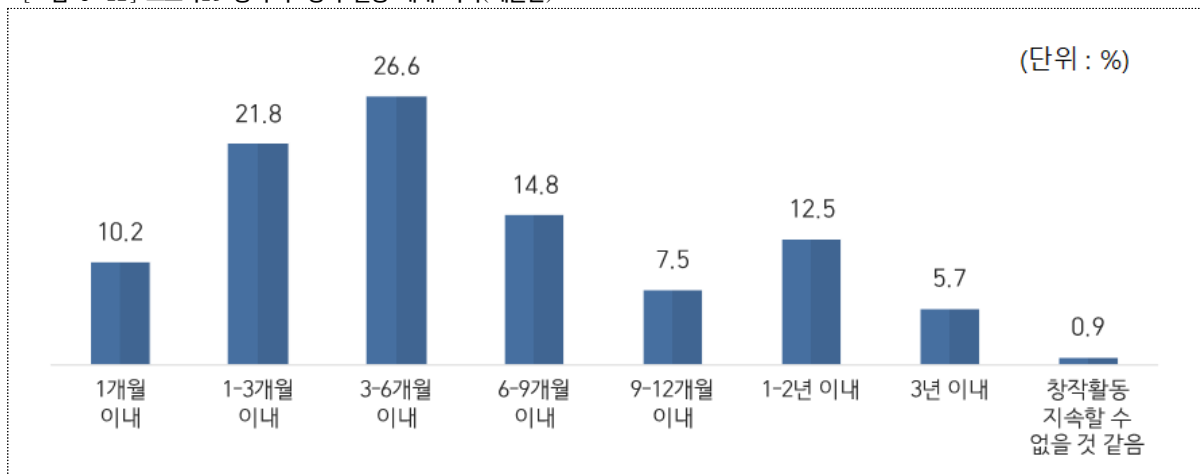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이후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에 따라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시간적 범위 설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코로나19 종식시기 예측 인식을 조사 분석함
- 예술인의 코로나19의 종식시기 예측과 비교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기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는 코로나19 인식조사의 결과를 활용함

[그림 4-11] 코로나19 종식시기 예측(예술인 & 국민) : 2020.10월 말 기준



- 코로나19 종식시기 예측 인식 조사 시점(2020.10월 말) 기준으로 종식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 예술인의 비율은 6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자가 22.3%인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대해 86.6%의 응답자가 비관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음
-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국민들도 종식되지 않는다고거나 중기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종식될 것이라 예측한 비율이 97%에 달하고 있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종식에 비관적 인식이 점차 확대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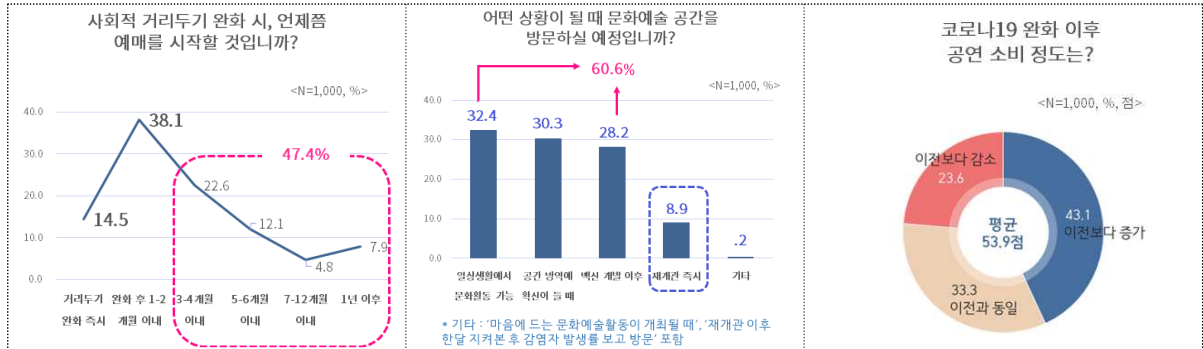
[그림 4-12] 코로나19 종식 후 창작 활동 재개 시기(예술인)



- [예술인] 코로나19 종식 이후 창작 활동을 재개하는 시기를 묻는 문항에 대해 1~6개월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48.4%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종식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는 응답의 비율이 64.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해볼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관람객]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활동이 중단된 관람객들은 언제쯤 문화예술활동에 복귀할 것인지, 이후 문화예술 관련 소비는 어느 정도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조사함

[그림 4-13] 코로나19 이후 대면 문화예술활동 복귀 시기 및 소비 정도



- 관람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대면 문화예술활동 복귀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38.1%가 1~2개월 이내로 응답하였으며, 3개월~1년 이후의 응답자 비율이 47.4%로 나타남
- 이는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방문 시 일상 생활에서 문화활동이 가능, 공간 방역에 대한 확산이 들 때, 백신 개발 이후에 대한 응답이 60.6%에 해당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임
-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추세와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문화예술활동으로 복귀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공연 소비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이전보다 증가하거나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76.4%로 나타났으며, 이전보다 감소할 것 같다는 응답은 23.6%로 나타남

[그림 4-14] 공연장에서 안전감을 느끼는 요소



-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장에서 안전감을 느끼는 요소를 질문한 결과 모든 관객 및 스태프 마스크 쓰기, 체온측정 및 손소독제 비치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것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각각 6.11, 5.91(7점 척도)로 높게 나타남
- 행사장 내 거리두기(5.88), 관객 물림 방지를 위한 대기시간 조정(5.79), 시간대별 총 관람객 수 제한(5.65) 등 직접적인 방역 조치에 대한 응답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 방역계획 및 현황 정보 제공(5.76), 방역 준수를 알리는 안전마크 부착(5.61), 행사 참여자의 안전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5.53) 등 방역 관련 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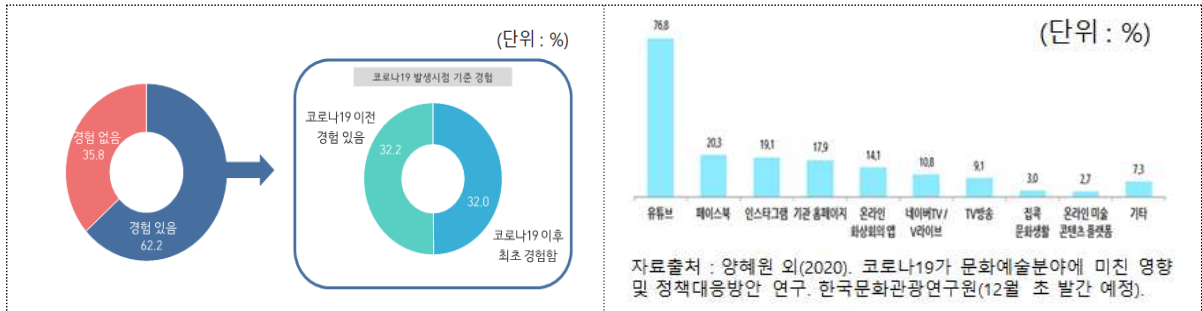
한 정보 제공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2) 비대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인식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시행에 의해 비대면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경험, 의향, 비대면 예술활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예술인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통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 아울러, 향후 비대면 예술활동이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지 않도록 수요자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지불의사, 온라인 콘텐츠 중요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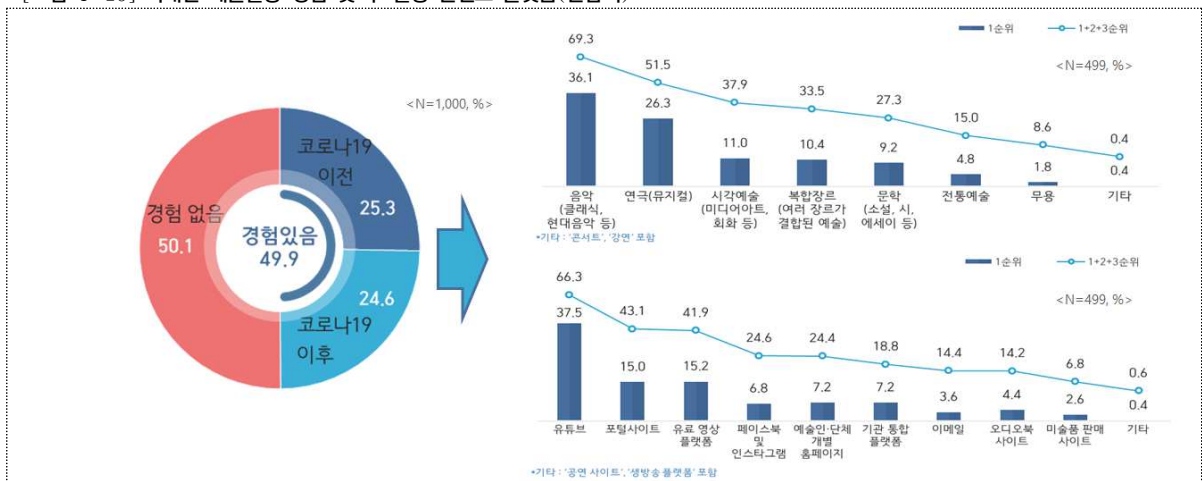
[그림 4-15] 비대면 예술활동 경험 및 주 활용 콘텐츠 플랫폼(예술인)



■ [예술인 경험] 예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62.2%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32.2%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전, 32.0%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경험하였음을 확인함

- 양혜원 외(2020)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예술활동 시 주로 활용한 콘텐츠 플랫폼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유튜브가 76.8%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페이스북(20.3%), 인스타그램(19.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6] 비대면 예술활동 경험 및 주 활용 콘텐츠 플랫폼(관람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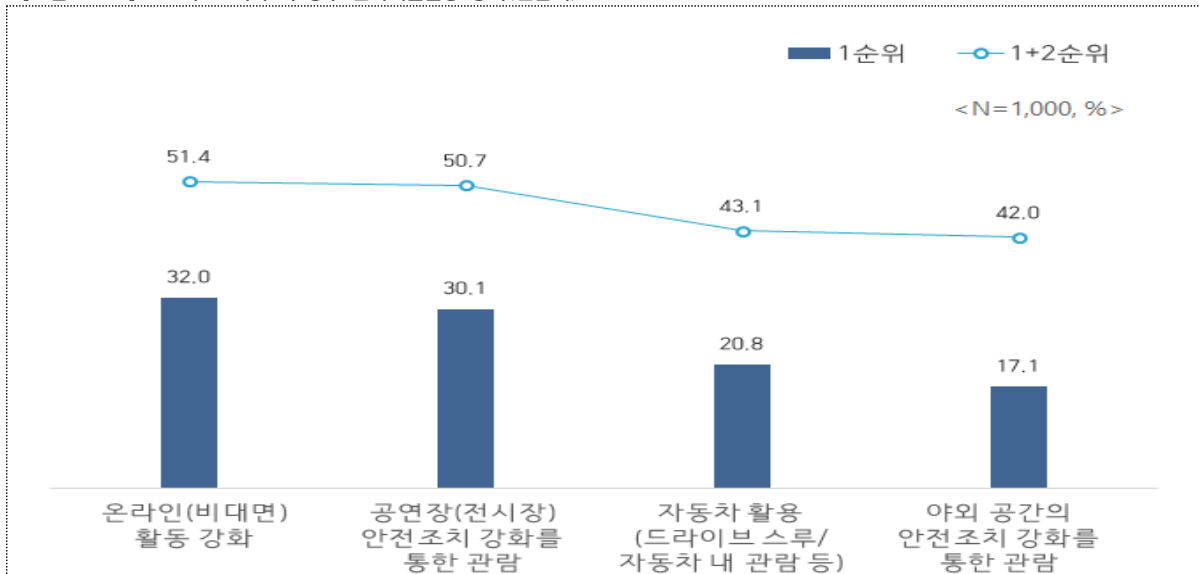
■ [관람객 경험] 관람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49.9%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5.3%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전, 24.6%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경험

- 경험한 비대면 예술활동 장르에 대한 조사에서는 음악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 비율이 36.1%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연극(뮤지컬)이 26.3%, 시각예술이 11.0%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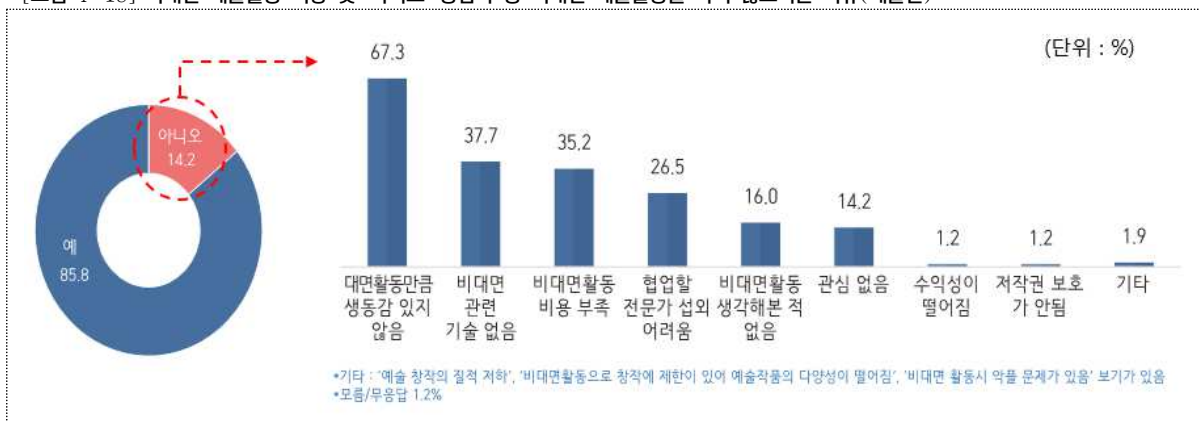
- 주 활용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응답은 유튜브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 비율이 37.5%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료 영상 플랫폼 15.2%, 포털사이트 15.0%의 순으로 나타남
- 예술인들과 응답을 비교해보면, 유튜브를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예술인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SNS 채널을 선호하는데 비해 관람객들은 유료 영상 플랫폼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그림 4-17] 코로나19 지속 시 향후 문화예술활동 방식(관람객)



-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향후 문화예술활동의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 온라인(비대면) 활동 강화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연장 안전조치를 통한 관람(30.1%), 자동차 활용(20.8%), 야외 공간 관람(17.1%)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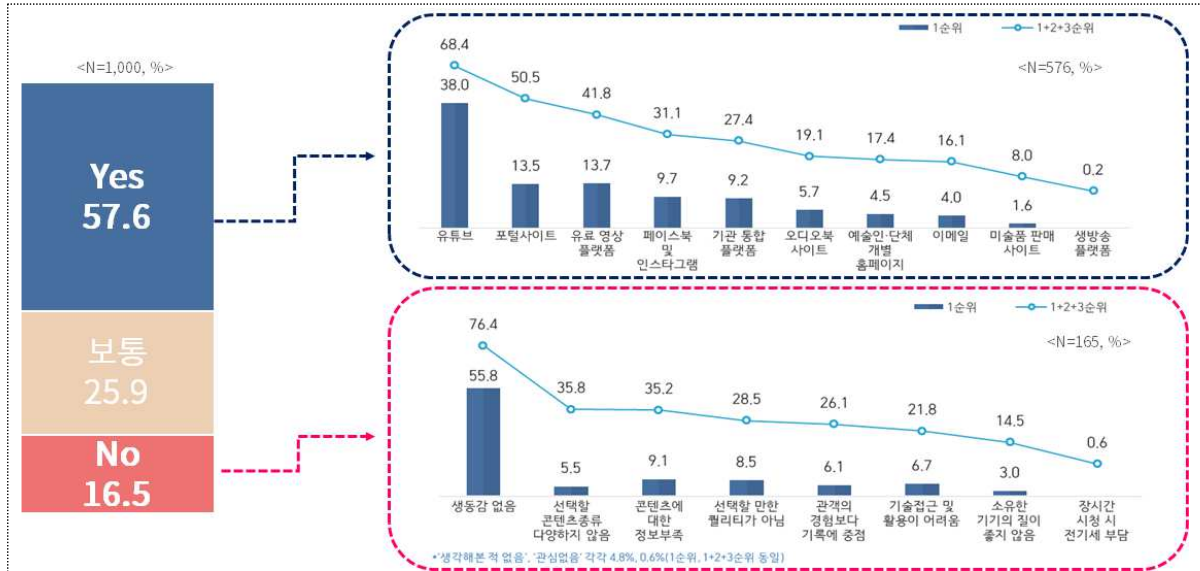
[그림 4-18] 비대면 예술활동 의향 및 '아니오' 응답자 중 비대면 예술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예술인)



- [예술인 의향] 예술인들의 향후 비대면 예술활동의 의향을 조사한 결과 85.8%의 응답자가 향후 비대면 예술활동을 지속 혹은 시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니오'라고 응답한 14.2%의 예술가들에게 비대면 예술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 비대면 예술활동이 대면활동만큼의 생동감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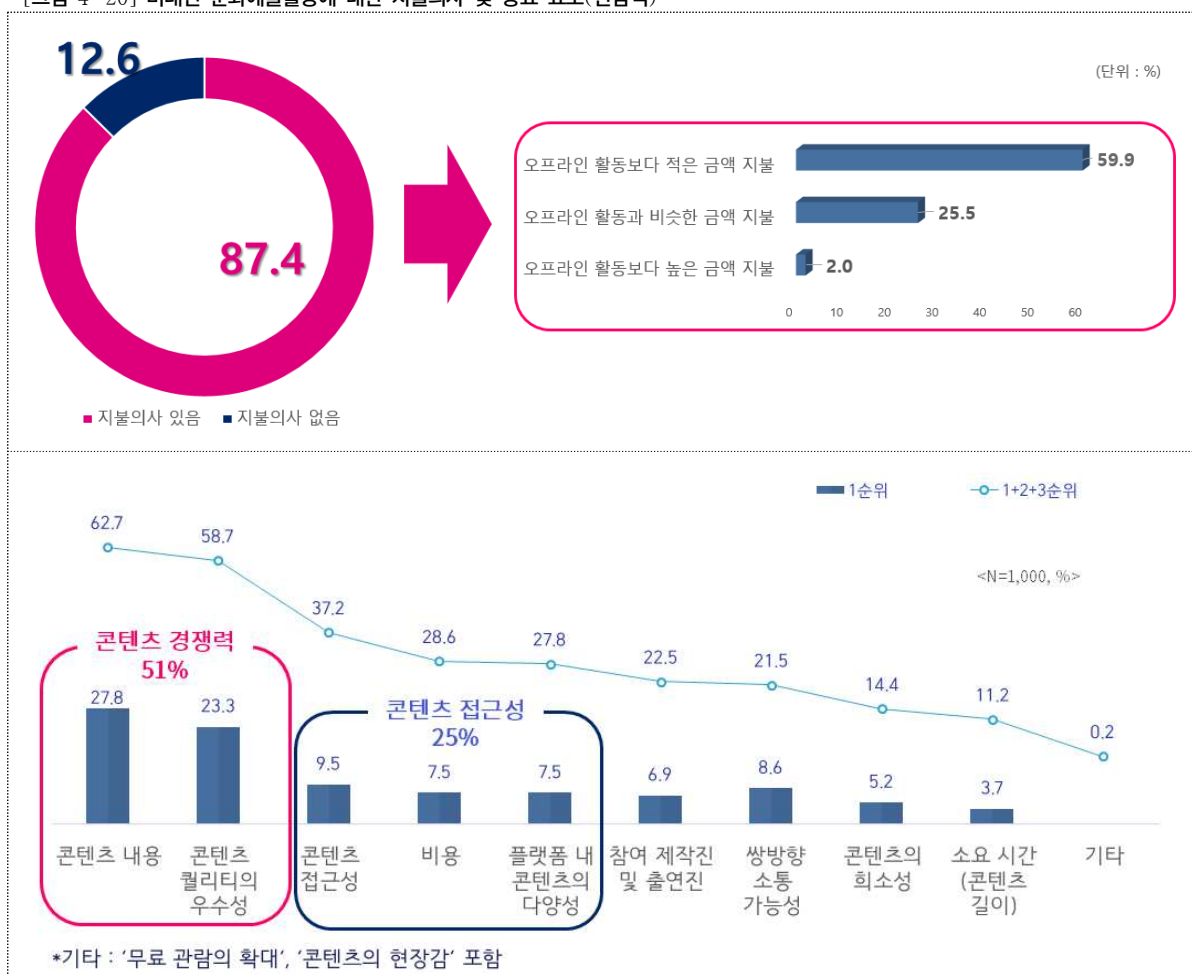
면 관련 기술 없음(37.7%), 비대면 활동 비용 부족(35.2%), 협업할 전문가 섭외 어려움(26.5%)의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임

[그림 4-19] 향후 비대면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의향(관람객)



- [관람객 의향] 관람객들의 비대면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의향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은 57.6%로 나타났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5%로 나타남
- 비대면 문화예술활동에 긍정적인 의향을 나타낸 응답자들은 향후 유튜브를 통해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료 영상 플랫폼(13.7%), 포털사이트(13.5%)의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임
- 비대면 문화예술활동에 부정적 의향을 보인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조사한 결과,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이 생동감이 없음을 1순위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콘텐츠에 대한 정보 부족(9.1%), 선택할 만한 퀄리티가 아님(8.5%), 기술접근 및 활용이 어려움(6.7%)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분포

[그림 4-20] 비대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불의사 및 중요 요소(관람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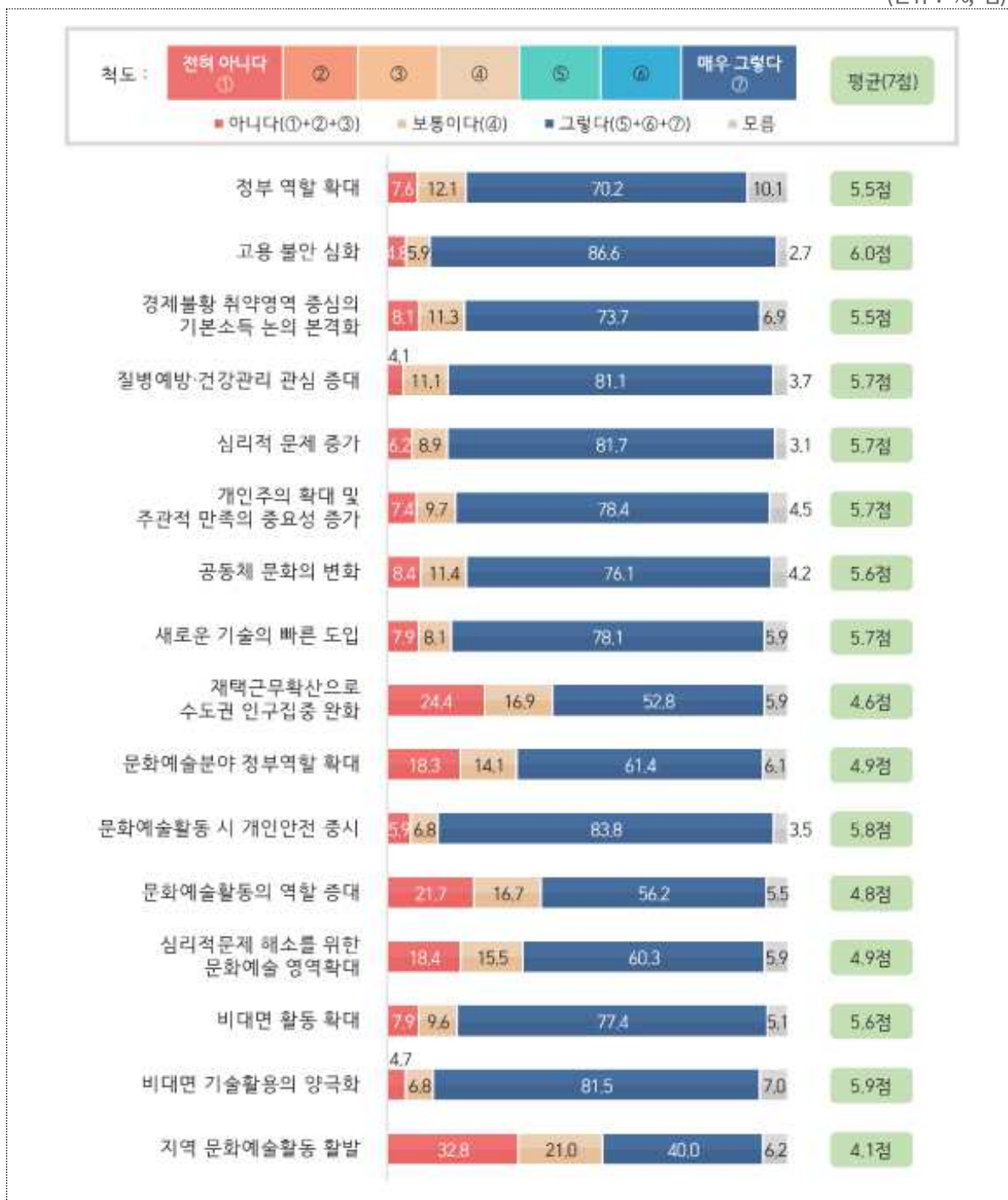
- 관람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한 결과 87.4%의 응답자가 지불의사 있음을 확인함
-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활동 대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보다 적은 금액 59.9%, 오프라인 활동과 비슷한 금액 25.5%로 나타남
- 관람객들은 대체로 콘텐츠 경쟁력(51%)과 콘텐츠 접근성(25%)을 비대면 문화예술활동 참여 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이 확인됨

3) 포스트 코로나와 예술의 가치

-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에 대한 전문가 예측 내용을 중심으로 예술인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책 설계의 방향성을 모색. 또한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예술이 갖는 가치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 예술인과 관람객의 인식을 통해 살펴봄

[그림 4-2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예측(예술인)

(단위 : %, 점)



- [예술인] 포스트 코로나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인식의 평균(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남(86.6%)
- 인식 평균은 동일하나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심리적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는 항목(81.7%)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분야 변화에 대한 인식은 비대면 기술활용의 양극화 항목이 인식 평균은 가장 높게 나타났음(5.9점)
- 지역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해짐, 문화예술활동의 역할 증대, 문화예술분야 정부역할 확대, 심리적 문제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영역 확대에 대한 인식은 평균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해당 항목들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2.8%임

[그림 4-2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속도 체감 인식(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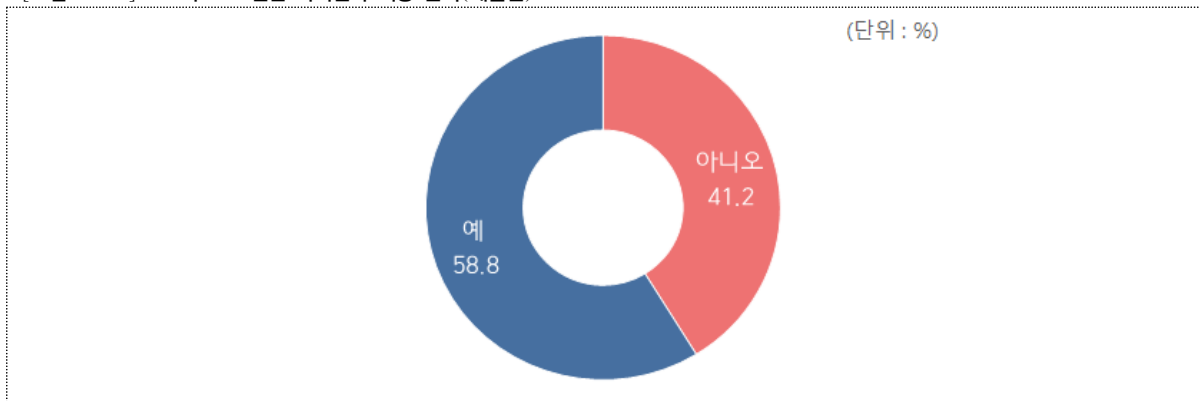
(단위 : %, 점)

구분		사례수	종합			평균-점
			빠르지 않다	보통이다	빠르다	
전체		(1,145)	2.7	6.1	91.2	5.7
연령	20대	(90)	3.3	4.4	92.2	5.8
	30대	(349)	1.7	5.2	93.1	5.8
	40대	(257)	3.5	7.0	89.5	5.7
	50대	(244)	2.5	7.8	89.8	5.7
	60대 이상	(205)	3.4	5.4	91.2	5.6
활동분야	문학	(345)	2.3	7.0	90.7	5.6
	시각	(229)	3.5	6.1	90.4	5.7
	연극	(209)	1.0	6.7	92.3	5.7
	무용	(69)	0.0	5.8	94.2	5.9
	음악	(249)	2.4	5.2	92.4	5.9
	전통	(106)	3.8	5.7	90.6	5.8
	뮤지컬	(76)	0.0	5.3	94.7	5.9
	다원	(113)	0.9	4.4	94.7	5.9
	기타	(50)	4.0	2.0	94.0	5.6
해당분야 활동 경력	5년 미만	(104)	1.0	7.7	91.3	5.5
	5년-10년 미만	(225)	1.8	6.7	91.6	5.8
	10년-15년 미만	(251)	5.2	6.0	88.8	5.7
	15년-20년 미만	(146)	1.4	4.8	93.8	5.8
	20년 이상	(419)	2.6	6.0	91.4	5.7

■ [예술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속도에 대한 체감에 대해 91.2%의 응답자가 빠르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20대(92.2%), 30대(93.1%)가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활동분야별로는 연극(92.3%), 무용(94.2%), 음악(92.4%), 뮤지컬(94.7%), 다원(94.7%)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경력별로는 15년~20년 미만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93.8%)을 보임

[그림 4-2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적응 준비(예술인)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145)	58.8	41.2
연령	20대	(90)	64.4	35.6
	30대	(349)	61.9	38.1
	40대	(257)	55.6	44.4
	50대	(244)	57.8	42.2
	60대 이상	(205)	56.1	43.9
활동분야	문학	(345)	54.8	45.2
	시각	(229)	59.4	40.6
	연극	(209)	61.2	38.8
	무용	(69)	66.7	33.3
	음악	(249)	65.9	34.1
	전통	(106)	56.6	43.4
	뮤지컬	(76)	65.8	34.2
	다원	(113)	68.1	31.9
	기타	(50)	76.0	24.0
해당분야 활동 경력	5년 미만	(104)	51.9	48.1
	5년-10년 미만	(225)	61.3	38.7
	10년-15년 미만	(251)	60.2	39.8
	15년-20년 미만	(146)	61.0	39.0
	20년 이상	(419)	57.5	42.5
전업 예술가 여부	예	(756)	59.8	40.2
	아니오	(389)	56.8	43.2

- [예술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적응 준비 여부에 대해 58.8%의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함
-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예'라고 응답한 비율(64.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활동분야별로는 기타 분야(76.0%)를 제외하면, 다원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율(68.1%)을 보임
- 활동경력별로는 5~10년 미만의 경력의 예술가들이 '예'라고 응답한 비율(61.3%)이 가장 높고, 전업예술가가 59.8%로 나타남
- [예술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한 준비는 '비대면 활동 준비', '새로운 활동 구상', '방역 수칙 준수', '창작활동 지속', '네트워크 형성', '기타'의 여섯 개 분야로 분류하여 세부 내용을 살펴봄

[표 4-5] 사회변화 적응 준비 사례(open question) - 예술인

▶비대면 활동 준비
비대면 활동을 위해 다양한 준비(컨텐츠 제작,기술,1인활동,장비구비등), 콘텐츠의 온라인유통을 위한 플랫폼 및 인프라 개발, 온,오프라인 활동 병행 방법 모색, 비대면 예술형태에 대한 개선점 연구
▶새로운 활동 구상
고령층 대상 프로그램 구상, 사회의 변화와 맞는 새로운 활동방법 모색,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활동장르의 확대, 관객과의 다양한 소통방법 모색, 예술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갖기
▶방역 수칙 준수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비대면 생활 적응 중,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연구 및 소규모 활동
▶창작활동 지속
개인창작 활동 지속,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대면 예술활동의 지속방법 모색, 활동 영역 축소와 전문화
▶네트워크 형성
교류 네트워크 형성, 세계 시장 진출/해외교류 진행, 다양한 단체 구성
▶기타
예술활동 외의 다른 일자리 모색, 철저한 자기관리 (운동,시간활용,건강관리 등), 국내외 동향 파악(수요자의 변화 등) 이주(시골,지방,해외), 예술활동의 안정적인 수입창출에 대한 모색, 자기성찰, 지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 휴식, 긍정적인 마인드 고취, 기존 활동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DB화하여 새롭게 구성, 클라우드 편딩 모집, 봉사활동, 자료수집 및 검색, 지출 최소화

- [예술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적응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 대응의 한계’, ‘비대면 활동의 어려움’, ‘정책 및 제도의 미흡함’, ‘코로나19 상황 변화 예측의 어려움’, ‘준비 필요가 없음’, ‘기타’의 여섯 개 분야로 분류하여 세부 내용을 살펴봄

[표 4-6] 사회변화 적응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open question)

▶개인 대응의 한계
대응할 방법을 몰라서/개인적인 대응의 한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심리적 위축(불안감,좌절,무기력 등), 기술 등 개인 역량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떨어짐, 개인적인 문제(연령, 가족,건강,보육 등)
▶비대면 활동의 어려움
비대면 활동에 적응하기 어려움, 비대면 예술영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비대면활동 관련 교육지원이 없어서
▶정책 및 제도의 미흡함
정부의 정책이 미흡해서, 제도적 지원이 없어서
▶코로나19 상황의 변화 예측 어려움
변화를 예측할수 없어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거리두기 단계가 수시로 바뀌어서
▶준비 필요가 없음
준비 없이 적응이 가능함, 이미 준비를 마침, 준비의 필요성이 없다
▶기타
시간이 없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코로나 발생 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코로나 발생 전후 큰 차이가 없다, 관객과의 직접소통이 중요해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비인기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어서, 창작활동 중단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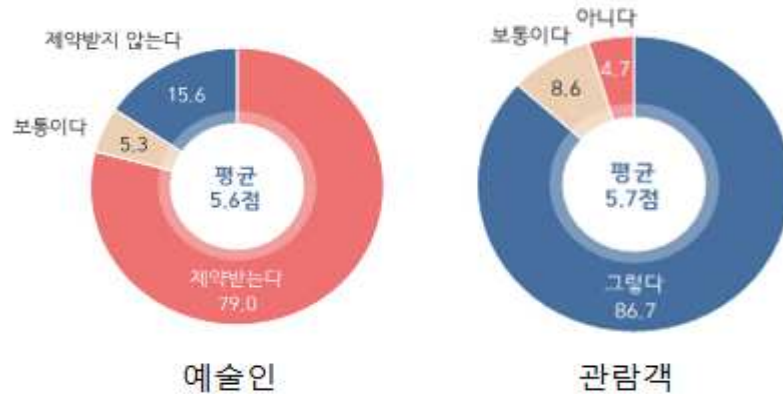
[그림 4-24]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제약 정도에 대한 인식(예술인 & 관람객 공통)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의 예술활동 제약 정도에 대한 인식>



※ 평균 : '전혀 제약받지 않는다(1점)' - '매우 제약받는다(7점)' 기준 평균값임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의 예술활동 제약 정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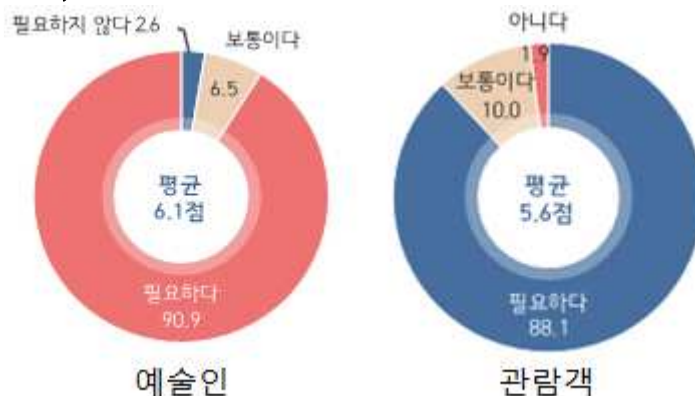
※ 평균 : '전혀 제약받지 않는다(1점)' - '매우 제약받는다(7점)' 기준 평균값임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에 대한 제약 인식을 예술인과 관람객에게 동시에 질문함

- 예술인의 예술활동 제약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예술인의 경우 80.3%가, 관람객의 경우 84.2%가 '제약받는다'라고 응답함
- 관람객의 예술활동 제약 정도에 대한 인식에서 예술인의 경우 79.0%가, 관람객의 경우 86.7%가 '제약받는다'라고 응답함

[그림 4-25] 코로나19로 인한 예술활동 경험 기회 및 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예술인 & 관람객 공통)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기, 다양한 경로로 문화예술활동 경험 기회 확대의 필요성 인식>



※ 평균 :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 '매우 필요하다(7점)' 기준 평균값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문화예술공간의 가치를 새삼 느끼는 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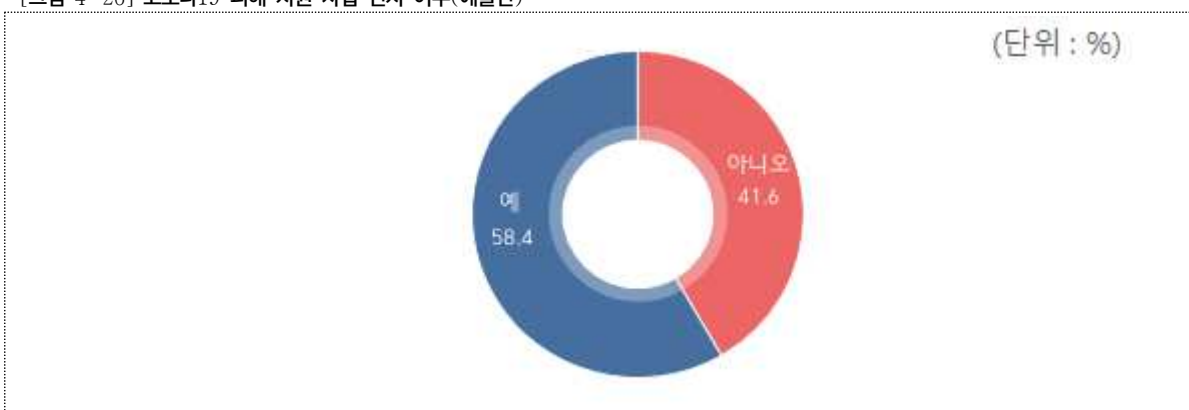
※ 평균 : '전혀 아니다(1점)' - '매우 그렇다(7점)' 기준 평균값임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기, 다양한 경로로 문화예술활동의 경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예술인과 관람객 공동 응답 내용을 조사함
- 예술인의 경우 90.9%가, 관람객의 경우 88.1%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함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기, 문화예술공간의 가치를 새삼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살펴보면,
- 예술인의 경우 77.9%가, 관람객의 경우 75.1%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다. 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요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술현장의 의견과 향후 니즈를 조사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계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음
- 여기서는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시행된 사업들에 대한 인지, 도움이 된 사업 종류, 향후 확대가 필요한 사업 종류,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재난 시기(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

[그림 4-26]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인지 여부(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프로젝트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대관료 지원, 공연예술 초연·재공연 지원, 공연 온라인 생중계 지원, 공연예술특성화 극장 운영, 청년예술가 지원, 전시공간 긴급지원, 문예기금 집행 인정범위 확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소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창작준비금 지원(창작디딤돌), 심리상담 지원대상 확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판촉행사 실시, 공예 포장상자 무상보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예술강사 원격수업 지원,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 지원, 어디서든 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 관람료 지원,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기타]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고용노동부),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구축(www.artnuri.or.kr)·운영

(단위 :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145)	58.4	41.6
연령	20대	(90)	62.2	37.8
	30대	(349)	62.8	37.2
	40대	(257)	63.4	36.6
	50대	(244)	57.4	42.6
	60대 이상	(205)	44.4	55.6
활동분야	문학	(345)	45.8	54.2
	시각	(229)	65.9	34.1
	연극	(209)	72.7	27.3
	무용	(69)	69.6	30.4
	음악	(249)	56.2	43.8
	전통	(106)	64.2	35.8
	뮤지컬	(76)	72.4	27.6
	다원	(113)	64.6	35.4
	기타	(50)	56.0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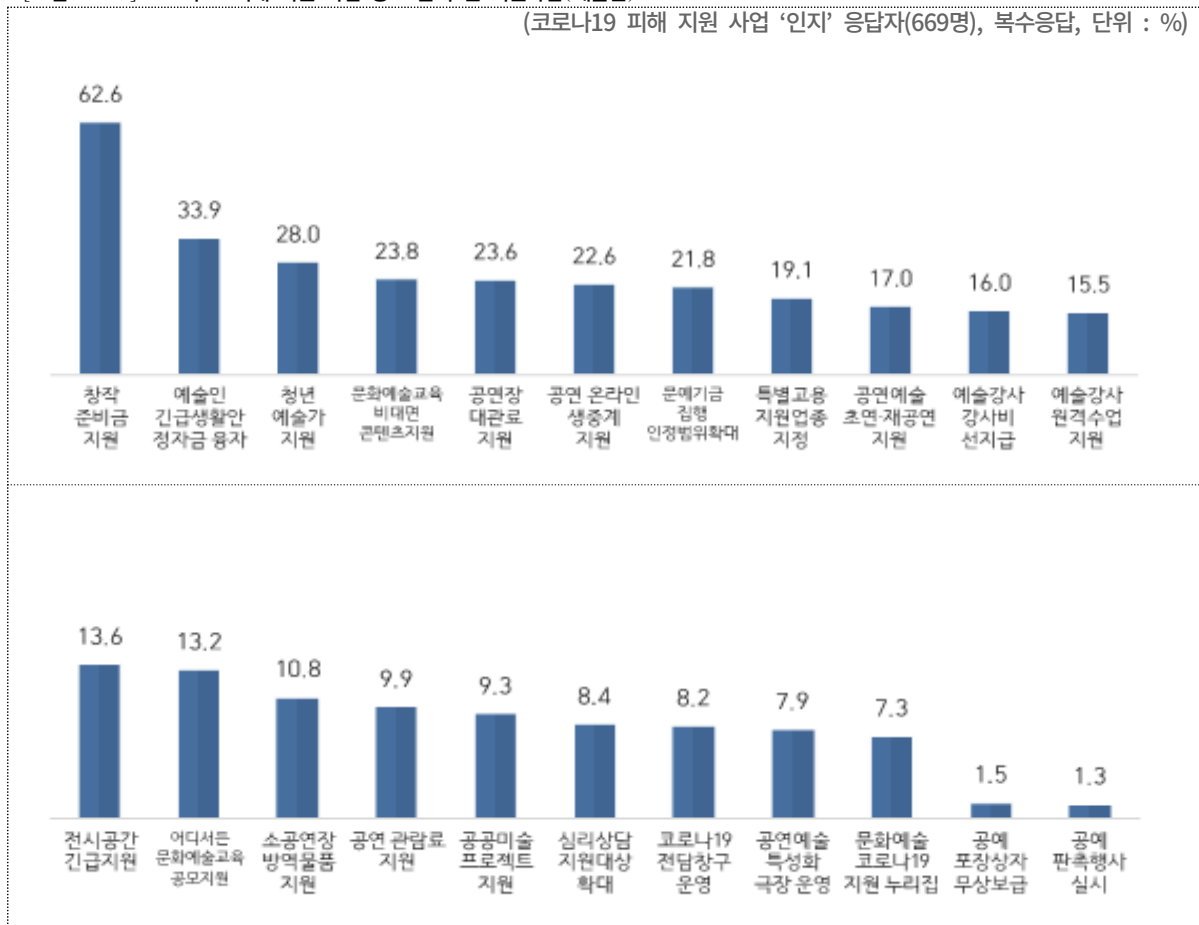
- [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58.4%의 응답자가 인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41.6%의 응답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함

○ 연령과 활동분야의 응답자 특성별로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 40대의 인지도(63.4%)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50대, 60대 이상의 인지도가 각각 57.4%, 44.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활동분야별로는 문학 장르의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45.8%)

[그림 4-27]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중 도움이 된 지원사업(예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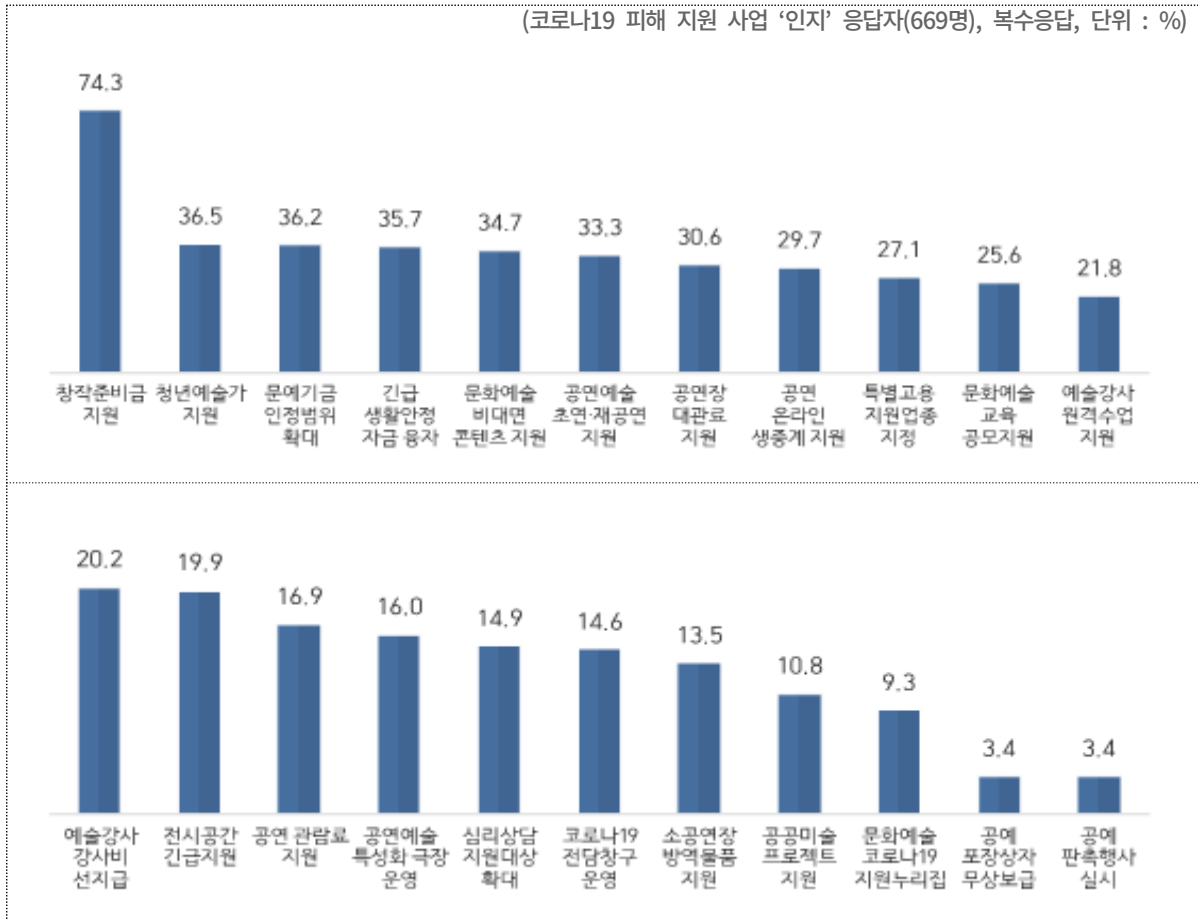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인지' 응답자(669명), 복수응답, 단위 : %)



- [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을 '인지'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 669명을 대상으로 도움이 된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허용) 창작 준비금 지원(62.6%), 예술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33.9%), 청년 예술가 지원(28.0%), 문화예술교육 비대면 콘텐츠 지원(23.8%)의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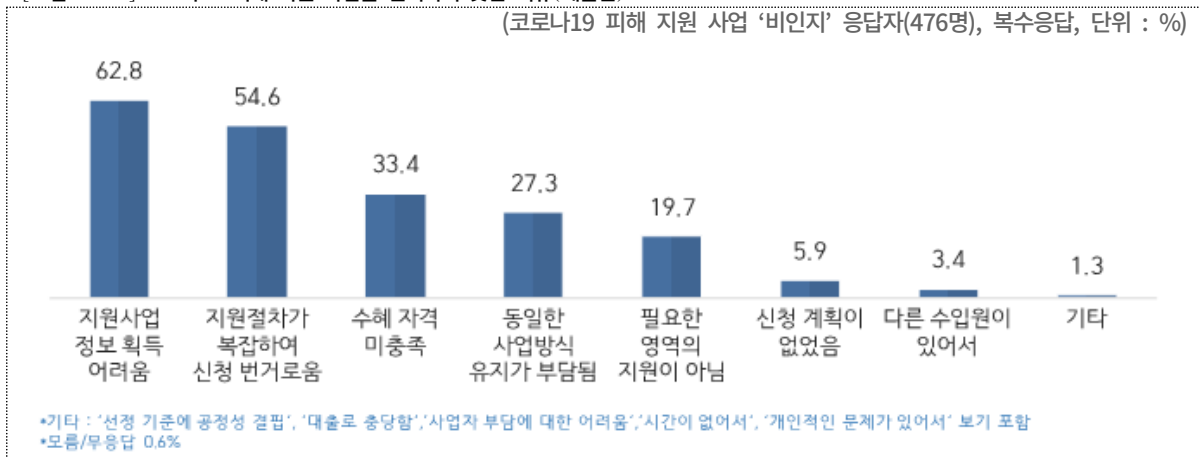
[그림 4-28]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중 확대가 필요한 지원사업(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인지' 응답자(669명), 복수응답, 단위 : %)



- [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을 '인지'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 669명을 대상으로 향후 확대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허용) 창작준비금 지원(74.3%), 청년 예술가 지원(36.5%), 문예기금 인정범위 확대(36.2%),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35.7%), 문화예술교육 비대면 콘텐츠 지원(34.7%)의 순으로 응답

[그림 4-29]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예술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비인자’ 응답자, 단위 : %)

구분		사례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획득 어려움	지원절차 복잡하여 신청이 번거로움	수혜자격 미충족	기존 지원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담됨
전체		(476)	62.8	54.6	33.4	27.3
연령	20대	(34)	82.4	50.0	32.4	26.5
	30대	(130)	60.8	53.1	41.5	31.5
	40대	(94)	62.8	50.0	42.6	30.9
	50대	(104)	58.7	55.8	27.9	26.0
	60대 이상	(114)	63.2	60.5	21.9	21.1
활동분야	문학	(187)	56.1	55.6	25.1	23.5
	시각	(78)	67.9	56.4	46.2	34.6
	연극	(57)	70.2	56.1	42.1	29.8
	무용	(21)	57.1	71.4	47.6	38.1
	음악	(109)	68.8	59.6	33.0	24.8
	전통	(38)	55.3	39.5	26.3	28.9
	뮤지컬	(21)	81.0	52.4	33.3	23.8
	다원	(40)	60.0	60.0	32.5	35.0
	기타	(22)	72.7	50.0	50.0	18.2

- [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476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허용) 지원사업 정보 획득 어려움(62.8%), 지원절차가 복잡하여 신청 번거로움(54.6%), 수혜자격 미충족(33.4%), 동일한 사업 방식 유지가 부담됨(27.3%)의 순으로 응답 비율을 보임
- [예술인]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재난 상황에서의 예술지원정책 방향성에 대한 조사 결과(open question), '비대면 활동 관련 지원', '금전적 지원 확대',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확대',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 '지원 대상자 선별 과정 재정비', '예술인 대상 심리치료 지원', '기타'의 일곱가지 분류로 정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 4-7]과 같음

[표 4-7] 재난 상황에서의 예술지원정책 방향성 제시(open question) - 예술인

▶비대면 활동 관련 지원
비대면 활동 확대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 지원(기술,인력,장비,공간,유통 등),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 정부차원의 다양한 비대면 플랫폼 개발 운영, 비대면과 대면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 온오프간 유동적인 콘텐츠 전환이 필요
▶금전적 지원 확대
다양한 금융지원(기본소득보장,창작지원금,대출지원 등), 다양한 공간활용 및 비용지원(대관료 등), 정당한 보수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예산확보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확대
다양한 분야와 유형(제작 기획사,예술가 등)에 대한 공평한 지원, 각 예술 특성에 맞는 지원과 유통망 확보가 필요 다양한 지원사업의 필요, 예술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 강화, 여러장르를 통합하여 다변화바람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
다양한 제도적 지원 필요(지원 조건및 절차 완화,관련법 개정등), 복지혜택 확대(의료비보장 등), 각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청취를 통한 정책수립, 예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 라인 정립(긴급상황,저작권,표준계약서 등), 예술,창작가와 수요자(기업,개인)의 매칭 지원, 유연한 제도 운영바람, 예술인의 자립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신중하고 세밀한 정책수립, 다양하고 공평한 공모사업 실시(새로운 아이디어 공모 등), 정부 주도의 방향설정이 필요
▶지원 대상자 선별 과정 재정비
소규모,신진작가,지방거주 등 소외대상 우선 지원, 지원 대상자 축소의 필요(실력 우수자 지원 등),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바람(분야별 전문가 배정.심사기준 공개 등)
▶예술인 대상 심리치료 지원
예술가의 심리상담치료, 정신적 육체적 면역강화가 필요
▶기타
제한이 없는 개인 창작활동 중시/과정을 중시하는 지원, 대면 예술활동 유지를 위한 지원 마련, 교육 지원 확대, 방역 지원 확대, 문화예술 대중화 정책 진행, 안정적으로 예술창작활동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다양한 활동방법 마련, 단계별 지속적인 지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현 상황을 반영한 예술프로그램 개발(치유,환경오염 등)

*분류별 top10 제시

3.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가. 조사결과 요약

- 서울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공연 및 전시 활동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동 기간 3년 간 문화예술활동 현황을 비교한 결과 전년 3월 대비 공연예술은 91.0%, 시각예술은 55.5% 감소
- 문화예술활동 현황의 증감을 운영주체별로 살펴본 결과 민간 시설(전년 대비 공연은 44.3% 감소, 시각은 34.9% 감소)에 비해 공공시설(전년 대비 공연은 68.8% 감소, 시각은 63.9% 감소)의 감소율이 크게 나타남
 - 초청, 기획, 대관 공연 등 취소로 예술가(단체)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확산 이후 예술활동 피해 양상을 살펴본 결과
- 관람객의 경우 76.4%의 응답자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예술활동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술활동이 감소하게된 원인으로는
 - 코로나19의 감염우려(90.1%), 이용가능 공간 제약(88.2%), 콘텐츠 감소(87.2%) 등을 꼽음
-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의 피해는 경제적 피해, 예술활동 피해, 신체적·심리적 피해로 구분하여 그 양상과 대

응을 살펴봄

— 경제적 피해는 이벤트성 행사 취소·연기(72.5%), 공연/전시 취소·연기(72.0%), 겸업활동 중단(42.1%)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정부지원금 신청(61.7%), 비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충당(54.0%), 예·적금 해지(34.2%)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응안함’의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적임

— 예술활동 피해는 작품을 통한 관객·예술인들과의 소통 단절(75.0%), 창작/발표 공간 폐쇄(59.6%), 창작활동 의욕 저하(57.8%), 경제적 이유로 창작 외 활동 증가(45.4%)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관객 및 예술인과 새로운 소통 방식을 고민(66.3%), 새로운 유통방식의 모색(63.1%), 새로운 창작/발표 공간의 확보(36.9%), 새로운 창작영역 개척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참여(35.4%)의 순으로 나타남

— 신체적·심리적 피해는 예술활동 지속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72.8%), 경제적 피해확대로 인한 좌절감(69.4%), 가족 및 사회적 책임확대에 따른 스트레스, 우울감(66.7%), 코로나19 감염공포(58.2%)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개인위생 및 방역 철저히 이행(80.7%), 예술활동에 몰두(40.9%), 심리적 불안에 대한 상담 치료(9.1%), 신체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약물치료(7.4%)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종식,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향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음

○ 코로나19 종식 시기에 대한 예측(예술인 및 국민 대상)과 코로나19 종식 이후 창작활동 재개 시기(예술인 대상)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종식이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응답 비율이 예술인의 경우 64.3%, 국민의 경우(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종식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거나(57%), 중기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 종식될 것이라는 예측이 40%에 달하고 있음

○ 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창작활동 재개 시기를 질문한 결과, 1~6개월 이내로 재개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48.4%에 달함

■ 관람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이후 대면 문화예술활동 복귀 시기와 소비정도를 조사·분석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대면 문화예술활동 복귀를 하겠다는 응답자가 38.1%, 3개월~1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은 47.4%임

— 대면 문화예술활동으로의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방문 시 일상 생활에서 문화활동이 가능, 공간 방역에 대한 확신이 들 때, 백신 개발 이후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이 60.6%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완화된 이후 공연 소비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전보다 증가하거나 이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76.4%로 나타남

■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연장에서 안전감을 느끼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 모든 관객 및 스태프 마스크 쓰기, 체온측정 및 손소독제 비치 등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것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각각 6.11, 5.91(7점 척도 기준)로 나타남

○ 행사장 내 거리두기(5.88), 관객 물림 방지를 위한 대기시간 조정(5.79), 시간대별 총 관람객 수 제한(5.65) 등 직접적 방역 조치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공간 방역계획 및 현황 정보 제공(5.76), 방역 준수를 알리는 안전마크 부착(5.61), 행사 참여자의 안전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5.53) 등 방역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비대면 예술활동 관련하여 예술인과 관람객 모두에게 경험 및 주 활용 콘텐츠 플랫폼을 조사·분석한 결과,

- 예술인의 경우 62.2%의 응답자가 비대면 예술활동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32.2%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30.0%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경험하였다고 응답
 - 비대면 예술활동 시 주로 활용한 콘텐츠 플랫폼은 유튜브(76.8%), 페이스북(20.3%), 인스타그램(19.1%)의 순으로 나타남
- 관람객은 49.9%가 비대면 예술활동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25.3%의 응답자가 코로나19 이전부터 경험이 있었으며, 24.6%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경험하였다고 응답
 - 관람객이 비대면 예술활동 향유 시 주로 활용한 콘텐츠 플랫폼은 유튜브(37.5%), 유료 영상 플랫폼(15.2%), 포털사이트(15.0%)의 순으로 나타남
-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예술인들의 인식과 대응을 조사한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 속도에 대해 91.2%의 응답자가 빠르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함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준비는 58.8%의 응답자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응답하였는데,
 - 준비 사례를 open question으로 질문한 결과 ‘비대면 활동을 준비’, ‘온·오프라인 활동 병행 방법을 모색’, ‘비대면 예술 형태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예술활동을 구상’ 등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41.2%의 응답자는,
 - 개인 대응의 한계를 느껴서, 즉 방법을 모르거나 경제적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거나 심리적인 위축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음
 - 또한,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미비를 지적한 응답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음
-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에 대하여 인지여부, 도움 여부, 확대 필요사업 등을 조사하였음
 -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58.4%의 응답자가 ‘예’라고 응답하였으며, 41.6%의 응답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
 -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항목은 ‘지원사업 정보 획득 어려움(62.8%)’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 도움이 된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창작준비금 지원에 대한 응답이 62.6%로 나타났다으며, 예술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33.9%), 청년 예술가 지원(28.0%), 문화예술교육 비대면 콘텐츠 지원(23.8%)의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임
 -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중 확대가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창작준비금 지원이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청년 예술가지원(36.5%), 문예기금 인정범위 확대(36.2%),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35.7%), 문화예술교육 비대면 콘텐츠 지원(34.7%)의 순으로 응답비율을 보임

나. 시사점 도출

-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는 여전히 비상 상황이며, 위기는 장기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는 종식 없는 ‘엔데믹’이 될 것이며, ‘with corona’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 조사에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혹은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정상적인 예술활동에 복귀하겠다는 시점이 짧게는 1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코로나19 관련 정책 대응이 단기적 처방에 그쳐서는 안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함

- 코로나19 대응은 현재의 관점에서 '예술계 피해 대응'과 '일상 회복' 측면, 미래의 관점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 측면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공간 운영 측면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관람객들의 대면 문화예술활동 복귀를 위한 안전감 요소에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직접적 방역 조치, 방역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예술활동 공간 운영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공유, 방역 관련 조치 수행에 대한 지원, 문화시설 방역 관련 정보 제공 방안 모색 등 다양한 방안 도출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상반기 문화예술활동이 전년 대비 최대 91% 감소한 가운데, 예술인(단체)의 경제적 피해가 2차~3차 대유행 시기에 크게 확대되었을 것임
 - 예술단체, 예술가, (민간) 극장 및 관계자의 경제적 타격은 물론, 예술활동에 대한 제약, 이로 인한 심리적 타격 등 다양한 피해 양상이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됨
 - 관람객 또한 예술활동 및 소통에 대한 갈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 피해 양상에 대한 정책 대응이 경제적 피해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데, 예술인들의 피해가 심리적인 부분에도 나타나는 만큼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술인들이 심리적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이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예술활동에 더욱 몰두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전문적 상담 치료 등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 필요
- 코로나19 대응 사업에서 창작준비금, 문예기금 인정범위 확대 등에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결과물 중심 사업 구조와 경직적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
- 예술인 인식조사에서 NCAS를 통해 예술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사업 미인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던 것에서 지원사업 홍보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예술활동의 제약이 발생한 상황에서 확대된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해 예술가와 관람객 모두에게서 향후 비대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높은 의향이 나타남
- 재난시기의 한시적인 현상을 넘어 대면 예술활동의 대체(또는 경쟁), 보완 활동으로서의 가능성 확인
 - 관람객에게는 기초예술에 대한 경험 유형·경로 확대,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유형의 활동을 통해 관객 개발의 효과, 관람객과 예술인 모두에게 새로운 소통의 방식이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 작품의 온라인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저작권의 문제,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digital divide) 해소의 필요성, 대면 예술활동 대비 생동감 저하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 제기
-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미래 대응 측면에서
 - 제도적으로는 저작권 문제 등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를 대응해야 함
 - 접근성 측면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교육, 정보, 네트워크 지원 등)
 - 창작 지원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실험활동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함
 - 비대면 예술활동의 기반 측면에서 인프라(플랫폼)를 구축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함
 - 비대면 예술활동 관련하여 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예술인과 관람객 모두 유튜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꼽았으나
 - 예술인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SNS 채널을 주로 활용하는 반면, 관람객들은 유료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대상 플랫폼 접근성 관련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관람객의 경우 유료로 지불하더라도 콘텐츠의 질 등이 보장된 예술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지불의사가 87.4%로 나타난 것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대해 예술인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인식하고 있었음

- 그러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는 41.2%의 응답자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 개인적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사회를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다거나 경제적 한계, 심리적 위축,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미비를 지적하기도 하였음
 - 대체로 개인이 준비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마련 필요
 - 정책마련의 필요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58.8%의 응답자들의 미래 대응 준비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온·오프라인 활동의 병행 방법을 모색, 비대면 예술형태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예술활동을 구상한다는 응답에서 볼 때 예술지원 정책도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음

V.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지원 방향과 사업개선방안

1. 코로나19와 예술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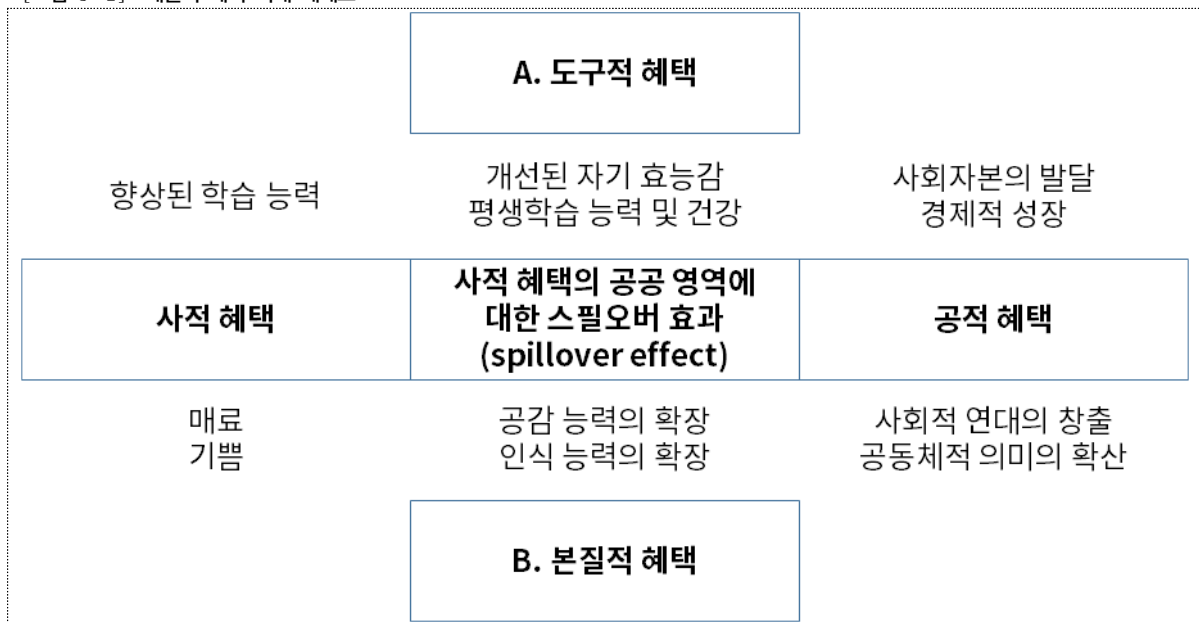
가. 예술의 가치에 대한 담론 전개

- 예술 자체를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예술을 위한 예술(arts for art's sake)은 예술 본연의 내재적인 가치를 강조하지만, 문화예술이 개인의 경험재와 사치재로서 받아들여지는 일반 정서로 인해 예술을 위한 공적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옴⁴⁰⁾
- 이에 따라 개인이 예술작품 및 예술활동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나아가, 예술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 및 가치와 가치 측정 척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문화예술 분야의 공적 지원에 있어 예술의 공공적 가치 입증 모색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 옴
 -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 및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관점의 예술의 가치에 대한 담론 및 분석 모델이 제시됨
 - 큰 틀에서 예술의 본질적, 도구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예술의 가치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위한 모색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나타냄
- 나아가 일반 대중을 예술 참여의 주체로 새롭게 바라보는 사회를 위한 예술(art for society's sake)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범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남⁴¹⁾
-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예술의 가치 논의에 대한 맥락적 흐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관련 주요 담론을 고찰하고자 함
- 본질적 vs 도구적, 개인 vs 공적 가치에 대한 균형 있는 모색
 - 예술의 혜택 이해 체계(McCarthy 외(Rand예술연구센터), 2004)
 - 본질적 혜택과 도구적 혜택이 상호 간에 넘나들고 확장되며 공공 영역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인식하고, 모든 예술의 혜택을 창출하는데 있어 본질적 혜택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음
 - 나아가 개인 예술체험의 지속적인 축적이 공적 혜택으로 확장되는 가능성에 주목함

40) 김인설(2015), 문화정책 이슈: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합의 그리고 정책적 과제', 웹진 아르고, <https://webzine.arko.or.kr/load.asp?subPage=10.View&idx=384&searchCate=10>

41)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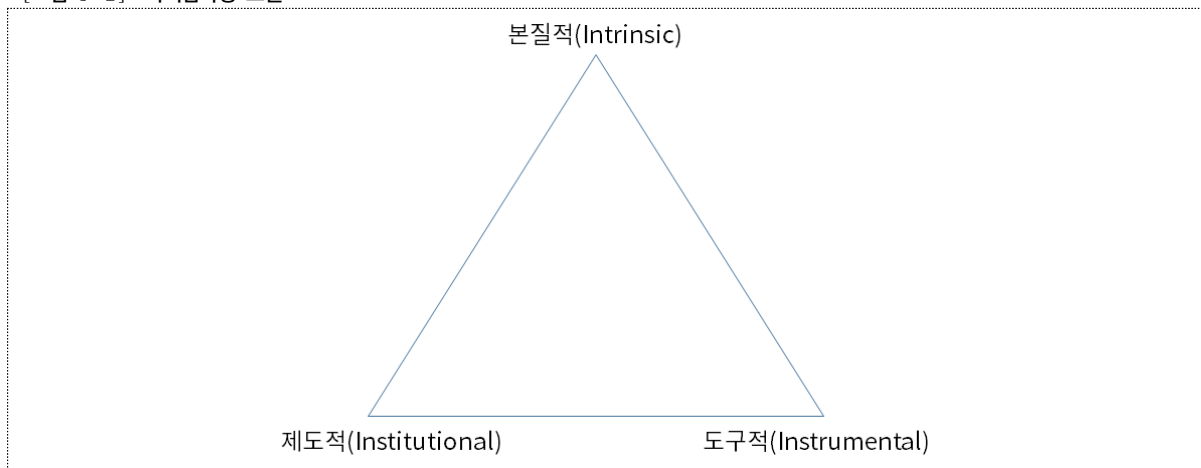
[그림 5-1] 예술의 혜택 이해 체계도



자료출처: McCarthy, K. F., et al. (2004), *Gifts of the muse :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CA: the RAND Corporation.

- (A. 도구적 혜택) 선행연구(5가지 도구적 가치 유형: 사회, 경제, 건강, 인식, 행동 및 태도)의 경우 예술 참여의 혜택과 형태 사이의 연결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예술이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무시하여 결국 예술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의 범위를 포착하지 못함. 이에 따라 본 체계에서는 예술의 도구적 혜택에 대한 가능성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함
 - (B. 본질적 혜택) 통상 예술에서 얻는 본질적 혜택을 개인적 차원으로 국한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개인에서 공적 혜택으로 확장되는 스피로버 효과를 강조함. ① 개인이 예술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매료, 기쁨과 같은 본질적 혜택을 시작점으로 ② 예술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타인 및 타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과 세계에 대한 공감 및 인식 능력이 확장될 수 있음. 나아가 개인 삶의 향상은 물론 다원적 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제시함. ③ 또한, 대중 차원에서 개인이 자신의 예술경험을 공유할 때 생기는 사회적 유대감, 국가적 사건을 기념하는 예술작품을 통한 공동 가치와 공동 정체성의 표현에도 주목함
- 가치삼각형 모델(John Holden, 2006)
- 예술의 가치에 대한 학술적 담론에서 나아가, 공공지원 예술이 창출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본질적, 도구적, 제도적 가치를 제시함
 -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문화정책에서 취한 본질적, 도구적 가치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상호 결합을 총망라한 도식으로, 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과 우려, 형이상학적 가치, 정치·제도적 문화행정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한 데 나타내고자 함

[그림 5-2] 가치삼각형 모델



자료출처: Holden, J.(2006), *Cultural Value and the Crisis of Legitimacy: Why culture needs a democratic mandate*, London: DEMOS.

- **본질적인 가치**는 문화에 대한 지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문화의 주관적 경험과 관련된 가치의 집합으로서 개인 간 만남이나 상호작용, 예술작품이나 경험에서 비롯되며, 문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 **도구적인 가치**는 문화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화의 보조적 효과와 관련이 있으며 주로 숫자로 표현됨. 새로 생긴 영화관에서 창출되는 지역 고용량, 함께 노래를 부르는 환자의 회복 시간 등과 같이 예술에 대한 투자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을 문서화하는 ‘출력’, ‘결과’, ‘영향’ 연구에서 포착되는 경향이 있음
(다만, 명확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특정 사회 또는 경제적 목표 달성에 대한 직접적, 비용 효율적 성과 증명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예측가능한 효과보다는 잠재가능성 창출 면에서 접근해야 함)
 - **제도적인 가치**는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과정 및 기법과 관련이 있음. 즉, 제도적인 가치는 조직의 작업 관행과 태도에서 비롯되며, 공공서비스 정신에 뿌리를 뒀. 이처럼 조직은 대중에 대한 관심을 통해 시민 간 신뢰, 상호존중, 공공 영역 강화, 사회성 및 공유 경험의 향유와 같은 공공재를 달성할 수 있음. 문화기관의 역할을 단순히 정치인과 대중 간 중재자로 보지 않고, 대중이 원하는 가치를 창조하거나 파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문화예술 가치 이해 보고서(Understanding the Value of Arts & Culture Report, 2016)’
- 영국 AHRC(예술인문연구위원회) 지원 ‘문화 가치 프로젝트(Cultural Value Project)’⁴²⁾의 최종 연구성과로 **경제, 도시, 사회, 교육, 개인의 건강 및 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문화예술 참여가 만들어내는 차이점을 고려함**
 - 공적 자원 지원의 타당성 근거 마련을 위해 진행된 선행연구들이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데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자체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개인의 성찰 능력과 시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더욱 중요한 요소로 제안함**
 - 문화 가치 요소로 ① 성찰적 개인(the reflective individual), ② 참여적 시민: 시민 단체와 시민 참여(the engaged citizen: civic agency & civic engagement), ③ 공동체, 도시재생, 공간(communities, regeneration and space), ④ 경제: 영향, 혁신, 생태계(economy: impact,

42) 3년간 진행된 본 프로젝트는 첫째, 문화적 가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둘째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과 증거를 고려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자료: Geoffrey C., Kaszynska, P.(2016), *Understanding the value of arts & culture*, London: AHRC.

innovation and ecology), ⑤ 건강, 노화, 웰빙(health, aging and wellbeing), ⑥ 교육 안에서의 예술(arts in education)을 도출함

- 문화예술은 실험적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복잡한 변수와 결과의 세계에서 작동함
- 이에 따라 연구 대상과 적용 대상 각각에 대한 방법론의 적절성, 엄격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또한 예술의 가치 평가가 (정부 정책의) 책임이나 옹호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예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좀 더 성숙한 논의가 펼쳐져야 함
- 이에 따라, **문화예술 참여의 범위와 그 효과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연구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다양한 장르의 모든 문화예술이 예술의 가치를 창출하는지(다수에서 음악 분야 사례가 중점 다뤄짐), 문화예술이 창조산업과 혁신경제사회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작은 규모의 예술 자산이 도시 공동체의 스트레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상업적 문화예술과 디지털 참여의 경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적 참여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이 추가 고찰되어야 함
- 2018년 본 연구의 후속 성과로 ‘문화 가치 범위 프로젝트 보고서(Cultural Value Scoping Project Report)’가 발간됨
- 200명의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재원확충 기관, 자원봉사 영역, 학계 및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한 결과이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크고 시급한 도전과제로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흥미와 실천의 공동체 수립**이 도출됨
- 이에 따라 이전 보고서에서 제시된 바 있는 ‘문화 가치 협력 센터(A Collaborative Centre for Cultural Value)’ **설립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영국 문화부 문화정책백서(The Culture White Paper, 2014)

- 영국 문화부에서 1965년 이후 50년 만에 두 번째로 발간한 백서로, 문화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본질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명시함
- 나아가 문화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계량적 측정 체계를 중점** 제시함
- 차별점으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주요 지표 측정 주체를 문화부(DCMS)로 한정하지 않고 지표별 관련성이 높은 교육부, 노동부, 통계청 등 유관부서와 연계 협력할 것을 명시한 점을 들 수 있음
-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음

[표 5-1] 문화적 가치 측정 체계

내용		목표	산출지표(Output indicator) ¹⁾
본질적 가치	모든 사람은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시작하든 문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즐겨야 함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삶	주관적 웰빙 향상(ONS4 측정) 교육 또는 업무 기반 학습에 있어 16~18세 증가 및 교육 분야 고용/훈련을 제외한 교육 대상 감소 실업률 감소
사회적 가치	문화의 풍요로움은 전국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	성공적인 공동체	주관적 웰빙 향상(ONS4 측정) 경제성장 증가 빈곤층으로 정의되는 가구 비율 감소 미취업 비율 감소
경제적 가치	문화의 힘은 영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음	영국의 평판 향상	영국 소프트파워 랭킹 유지 또는 향상
	문화 투자, 탄력성, 개혁	문화기관의 번영	별도 지표 없음

자료출처 : DCMS(2014), The Culture White Paper. London. 내용 재구성

주1) 결과 지표(Outcome indicator)는 지연관계 상 미표기

- 예술의 가치 논의에 대한 2000년대 이후 관련 주요 담론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음
- 예술의 가치 요소에 대한 균형 있는 종합 성찰 추세
 - 예술의 본질적, 도구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고른 성찰이 두드러짐
 - 다만, 국가 정책 효율성 차원에서 예술의 가치 측정을 사회 및 경제 등 도구적 관점에서 중점 조명하는 현 추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본질적인 예술의 가치 및 혜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됨
 - 나아가 두 가치 간 상호보완적 관계에도 주목함
- 예술의 본질적, 도구적 가치를 중심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모색 추구 경향
 - 특히 예술의 가치는 개인적 차원의 본질적인 가치에서 시작해서 그 파급효과가 사회 및 공동체로 확산되는 도구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관점에 주목해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최근까지 논의된 주요 담론을 고찰해 볼 때 예술의 본질적, 도구적 가치의 이분법적 분류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참여 및 수혜 주체, 예술체험의 시간 및 강도 등에 따라 본질적 가치에서 도구적 가치를 단계적으로 수반할 수 있고, 그 결과 전 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재난상황 도래 시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고찰을 위해, 개인 및 공동체 대상 질적, 양적 연구가 균형 있게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

나. 재난시대 예술의 가치 확산 노력

- 여기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고 지지해온 국제사회 및 국가별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적, 도구적 가치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각 주체가 바라본 가치에 대한 실제 적용 예시를 살펴보고자 함
- 유네스코에서는 위기 시대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으로 레질리아트 운동(ResiliArt Movement) 전개
-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예술가 지원 및 문화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전 세계적인 운동 추진. 예술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Art is resilient), 위기 시기에 어느 때 보다도 예술이 필요함을 강조
 - 국가별 레질리아트 토론회 개최(20.11 기준 110국 240회 진행)
 - 소셜미디어 이니셔티브(Social Media Initiative: 예술가 작업 영상 및 메시지 SNS 게시 및 해시태그)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을 돕는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조명과 논의 확산을 추구함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영감을 주고, 달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술의 힘이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그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자료 출처 : <https://en.unesco.org/news/resiliart-artists-and-creativity-beyond-crisis>

- 독일에서는 연방정부의 주도로 문화예술 보존 및 예술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술의 가치 인식 확산 및 지원 강화
- 연방정부 차원에서 위기상황 시 사회적 응집력의 토대로서 문화의 가치를 강조하며, 예술가 및 예술기관 대상 신속한 지원 책 마련

○ 나아가 문화 인프라의 보존과 예술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확산 노력을 기울임

“예술가들은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20.03)

“우리에게 독일의 문화인프라의 보존과 보호는 전국의 예술가와 창의적 인재가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20.06)

“특히 위기상황에서 문화는 우리의 사회적 응집력의 토대입니다.”

“예술, 문화 미디어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토론이 가능하고, 희망되고, 견뎌질 수 있는 언론, 문화, 의견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큰 특권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보호는 연방 문화정책의 가장 높은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9)

- 모니카 그뤼터스 독일 문화부 장관

자료 출처 : 독일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정책' 관련 언론보도

<https://news.artnet.com/art-world/germany-another-1-billion-culture-bailout-1878870>,
<https://news.artnet.com/art-world/german-bailout-50-billion-1815396>

■ 영국은 문화부(DCMS)를 중심으로 예술의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는 활동 전개

○ ‘문화 쇄신 TF 및 실무그룹’을 발족운영하며 창조산업 보호·회복 및 지역사회를 위한 예술의 사회 및 경제적 역할 강조

“우리는 영국인의 삶의 놀라운 부분인 동 부문의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올리버 다우든 문화부 장관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영감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문화부는 그들이 이 전염병을 통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바로 재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일 멘도자, 문화부 ‘문화 회복 및 재생’ 위원

자료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culture-secretary-announces-cultural-renewal-taskforce>
<https://twitter.com/DCMS/status/1263154680110161920>

■ 미국에서는 American for the Arts를 중심으로 ‘예술이 희망을 만듭니다’ 캠페인(#ArtsCreateHope) 전개

○ 재난시기에 삶의 희망을 주는 기재로서 예술의 본질적, 사회적 가치 강조

○ 예술이 위기상황에서 고유의 역할과 더불어 희망을 창출한다는 예술의 가치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해시태그 운동 전개

“예술이 더 필요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매일 코로나19와 싸우고 인종 간 형평성을 위해서
싸울 때 예술은 우리를 지원해줍니다.
우리는 음악을 듣고, 읽고, 아이들과 분필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비디오 게임을 하고, 거실에서 춤을 추고, 영화와 TV를 보죠.
우리는 기타를 연습하고,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고,
항의의 의미로 포스터를 만듭니다.

예술은 모든 커뮤니티, 가정, 가족에서 헌신하며 예술이 가장 잘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의 순간을 주고,
무엇보다 희망을 만들어 줍니다.
#예술이 희망을 만듭니다.

자료 출처 : <https://www.americansforthearts.org/by-topic/disaster-preparedness/artscreatehope>

■ ‘레질리아트 일본 토론회’ 발제 중: 재난상황 이후 발휘된 예술의 포용적 가치

○ 재난상황 도래 이후 심리적 위안의 기재로서 예술의 본질적, 사회적 가치 재조명⁴³⁾

- 자연재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의 경우, 일례로 관동대지진과 같은 큰 재해를 맞았을 때 당장에는 음식 등 재난구호물품이 중요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정신 및 신체 건강 추스르기로 관심이 옮겨갔고, 당시 예술은 포용(embrace)의 역할을 자처함
-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이후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의 가치 및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 시사점

■ 예술의 가치 발현 및 확산 측면에서 예술의 본질적, 도구적 가치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 자세 필요

- 예술의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예술의 공적 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영미권과 유럽을 중심으로 예술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짐
-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예술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심축으로 ① 예술의 본질적, 도구적(경제, 사회적 측면) 혜택과 ② 개인 및 공동체·사회 주체 단위가 논의되어 옴
- 특히 20세기 후반부터는 정책 목표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문화예술 가치의 효용성을 입증하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됨
-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부 간과하는 경향도 나타남
- 이에 따라 좀 더 중장기적 시간적 범위에서 예술의 가치가 개인에서 사회로, 본질적인 가치에서 사회적인 가치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성이 파악됨
- 또한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예술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가치를 측정하려 하기보다는, 예술참여로 인해 향후 사회와 경제에 미칠 잠재 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예술의 다양한 가치 확대 검토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50년간 유례없는 속도로 신종감염병이 나타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발생지역 확산이 예측되고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등 점차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뉴노멀 시대 도래에 대한 예측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현 상황을 대변함
- 이처럼 급격하고 불확실한 일상 환경의 변화를 맞아,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일상 속 예술의 가치와 역할을 다각적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재난시대에 개인 및 공동체에 위안을 주고 회복을 도와주는 심리적 기재로서 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조명이 필요한 시점임

■ 실증연구 기반 대국민적 예술의 가치 인식 확산 및 예술분야 지원책 마련 시급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이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유네스코와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예술의 본질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출함
- 향후 일상생활 속 예술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확산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 진행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대국민 인식 확산 캠페인이 수반되어야 함

43) 자료: <http://nara-iff.jp/overseas/470/>

- 더불어 재난의 일상화 시대 속, 사회 성원으로서 개인 및 공동체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예술분야의 유지·보존과 예술가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정책지원체계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할 것으로 보임

2. 코로나 이후 시대 예술지원 방향 설정

-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코로나19대응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각 장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 예술지원 방향을 수립함

[표 5-2] 연구 각 부문별 시사점 요약 및 예술지원 방향 수립

부문	주요 시사점
예술현장 의견(토론회 중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예술을 지속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재난상황으로 인한 예술활동(행사) 취소 시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예술인(단체) 예술활동 지속과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가 연계되는 지원 확대 ·온라인 공연예술의 방향성과 세밀한 지원방안 추진
사례조사·분석	·4차에 걸친 추경 예산 중 3차 추경 외에 문화예술분야 직접 재정 지원 부족 ·한국판 뉴딜이 예술계에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략 방향 설정 및 예산확보 노력 필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별 대응책 체계적 마련 필요 ·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중앙 주도 위기대응 협력 네트워크 체계 운영 필요 ·문화예술 분야별 세부 대응 가이드 마련 및 위기대응 체계 중심 세부 대응 가이드 제시 ·뉴노멀 시대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체질개선 및 차세대 수요 대응
예술현장 의견(예술인 및 관람객 인식조사 중심)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관련 정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함을 시사 ·위기 상황에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프로젝트 기반 결과물 중심 사업구조와 경직적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예술인과 관람객 모두에게서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높은 의향이 나타남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대해 예술인들이 매우 빠른 속도의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응답 → 대체로 개인이 준비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예술지원 방향 수립]

-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책 마련 강화
- 유사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 주도의 컨트롤 타워 구축
- 문화예술 분야별 세부 대응 가이드 마련
- 예술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 확산
-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술정책의 외연 확대

3. 코로나 대응 지원사업 개선방안

1) ‘문화방역’ 정책 수립 :

재난사회에서 문화적 관점과 역할에 기반한 대응 정책 수립

- [국회 및 정부 제안사항] 2021년 상반기 내에 재난사회 관련 문화·예술분야 중장기 정책 수립하여 2022년 예산 반영 추진

- 재난사회의 일상화 속에서 물리적인 방역과 대책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블루와 같은 사회적 고립, 소외, 배제, 치유 등에 대한 사회적 대책 시급
- 문화적 차원(감각, 감성, 심리, 소통 등)에서 재난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및 체계 마련 필요

- 문화와 예술,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심리와 치유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방역 거버넌스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문화방역 정책 수립
- 위기상황에서 유효한 정책 수단과 사회적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위기단계별 지원, 맞춤형 지원 등)

2) 문화·예술분야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

재난사회 관련 문화·예술분야 위기대응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정부 제안사항] 2020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요 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코로나19·재난사회 민관합동 위기대응TF>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운영 시작

-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위기대응체계 구축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분야 위기대응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 필요
- 코로나19의 사례처럼 재난과 위기 발생시에 문화시설 운영 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매뉴얼 등 개발
 - － 분야별 단계별 실태 파악을 통해 인공호흡이 필요한 영역들에 빠르게 산소를 공급
 - － 전시장, 공연장 접근의 불안요소 등 부정적 시그널을 거둬주는 조치 필요
- 문화·예술분야 현장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 지표 체계 등 마련
- 문화·예술 현장의 실태파악, 의견수렴, 지원방안 수립 등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로서 비상 거버넌스 구축 : 부실하고 형식적인 긴급지원사업 남발 방지

3) 예술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완충 지원제도 체계화 :

예술인공제회, 예술인재난지원기금 등

■ [국회 및 정부 제안사항] 2021년 내에 문화·예술 분야 재난 완충사업 제도화를 위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 예술재난보험, 예술인재난지원기금 등 위기재난 발생 시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충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 적극 추진
-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적·보편적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문화·예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원 추진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확대 등
- 장기적으로 예술인공제회 등 예술인들의 자조적 연대체의 설립 지원 : 초기 자본금 투자, 기금 조성 지원 등

4)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확대 외

■ [국회 및 정부 제안사항]

- ① 2020년 내에 예술인 긴급지원 사업 점검 및 대책 마련하여 2021년 예산 반영
 - ②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코로나19 이후 예술인 지원정책 혁신을 위한 TF> 구성하여 지원 구조 전환, 재원 확보 방안 등 추진
- 공공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시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원사업 체계 마련

- 지원사업 운영방식의 대응력과 탄력성 강화 :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안적 시나리오 수립, 지원방식의 탄력성 확대 등
- 사업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사람(예술인) 중심의 지원 구조로 패러다임 전환 : 재난과 위기 시에도 공공사업을 실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왜곡된 지원사업 구조 개혁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사례처럼 창작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 지원 사업 확대

5) 생태, 기술 등과의 융합적 예술 활동 지원 활성화

- [국회 및 정부 제안사항] 정부의 한국형 뉴딜 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가칭)<기후위기와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예술창작 지원체계 기본계획(5개년)> 수립
- 비대면 사업의 형식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확대를 강요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사회변동에 예술이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실험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지원사업 활성화
- 기후위기, 기술변동, 고령화 등 사회변동에 반응하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예술 활동 사업화
- 디지털, 비대면 등의 예술 환경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확대 : 온라인과 비대면 제작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저작권 제도 보완 외
-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예술과 미적 실험을 준비(리서치)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는 창작 지원 활성화

6) 예술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창작활동 조성

- [국회 및 정부 제안사항] 재난 상황 대처에 취약한 계층으로서 예술가 보편 지원에 대한 논의 필요
- 상당수의 예술가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프리랜서로서 코로나19로 작업이 재개될 날만을 기다리며 각종 단기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 예술계 내부에서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많은 이탈자 속출
- 공모지원 예산의 관행적인 구조를 변형가능한 구조로 전환하여 창작지원, 생계지원, 활동지원을 구분하고 각각의 성격에 따른 지원구조를 다양화하는 정책 필요
- 자부담 폐지 적극 검토 :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재적 성격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국고보조금의 일반원칙인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민간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
-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 외에도 심리 상담 지원 등이 반드시 병행되는 통합관리 필요
- 지원대책에서 특정 장르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지원
 - 문학분야는 작가들의 주된 수입원이 되어 온 강의 및 강연, 작가와의 대화 등 문화행사 및 창작물의 출간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 발생
 - 문학창작인 69.9%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으며 65.9%가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분야 피해상황보고서 2020.8.10.)
 - 시급한 대책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적인 생계지원과 창작지원대책 수립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 노력 필요
 - 도서관, 문학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작가파견 및 일자리 확대, 창작기금 확대, 문예지 지원, 고료 증액, 집필공간 지원, 인문행사 확대 및 강연활동 지원, 독서 캠페인, 공공기관 도서 구입, 공공도서관 대여저작권 법제화, 육아 지원, 문학계 성폭력 근절, 작은 서점 지원사업, 예술인 의료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도서정가제, 번역출간지원, 발표지면 확대, 문학분야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플랫폼 구축 등

7) 비대면 문화예술 사업의 세부적 설계

■ [정부 제안사항] 응모방식의 비대면 문화예술 사업이 초래할 예술가 간 기술적, 지역적, 세대적 간극을 좁힐 방안까지 고심하고 배려한 정책설계 필요

-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센터 : 현장 예술인들의 작품이나 콘텐츠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거나, 기술적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의 상설화
- 비대면 프로그램 교육 :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예술인들의 역량을 길러나가는 강습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 공간 : 지역 단위마다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가 설치된 스튜디오를 상설하여, 지역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 문화예술지원센터 시군단위 설치 및 현장지원 방안과 연계하여 접근성 해소